

농업·농촌경제동향

2016 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경제동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으로 국내외 농업 여건의 변화와 농업·농촌경제의
주요지표에 관한 동향을 정리·분석하여 정책 담당자 및 농업종사자의 의사 결정에 유익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서 분기별로 작성하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봄(5월), 여름(8월), 가을(11월), 겨울(2월)에 작성되어 발간됩니다.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krei.re.kr> “발간물정보/정기간행물/농업농촌경제동향”)

작성자 농업관측센터

이상민 smlee@krei.re.kr 박한울 phu87@krei.re.kr 박지원 jjone1105@krei.re.kr

연락처 전화: 061-820-2262 팩스: 061-820-2409

목 차

I. 일반경제 동향

1. 경제성장	1
2. 고용	4
3. 소비	5
4. 물가	8
5. 금융·환율	13

II. 농촌경제 동향

1. 농촌 물가	16
2. 농림어업 취업자	19
3. 농축산물 수출입	21

III. 주요 농축산물 수급 동향

1. 곡물	26
2. 엽근채소	30
3. 양념채소	37
4. 과일	46
5. 과채	51
6. 축산	61

특별주제

이슬람권 농식품 시장수출 동향 및 잠재성	71
한·미 FTA 발효 4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과제	85
귀농·귀촌의 국내외 성공사례 조사 분석: 지역개발과 6차 산업화 중심 ..	103

요 약

I. 일반경제 동향

- 2016년 1/4분기 경제성장률은 저유가와 경기침체 여파로 인한 수출 감소, 내수 위축 등의 영향이 지속되면서 전년 대비 2.7% 증가하는 데 그침.
- 2016년 1/4분기 민간소비는 작년 하반기 정부의 소비활성화 정책 효과가 약화되고 경제에 대한 불안감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전분기에 비해 0.3% 감소함. 반면, 건설투자는 건물 건설 및 토목 건설이 모두 늘어 전분기보다 5.9% 증가함.
- 2016년 1/4분기 취업자수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심으로 상용직 취업자가 크게 증가하여 전년 동기대비 1.1% 증가하였음. 반면, 고령층이 대부분인 농림어업 취업자수는 전년 동기대비 4.9% 감소함.
- 2016년 2월 소매판매는 국산 승용차 내수판매량 및 백화점 매출액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됨. 소비심리지수는 전월보다는 2.0% 상승하였으나,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0% 하락함.
- 2016년 1/4분기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와 비교하여 1.0% 상승하는데 그쳐 낮은 수준의 물가상승률을 지속하고 있음. 한편,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신선 채소 가격이 상승하여 전년 동기대비 4.5% 상승함.
- 2016년 2월중 계절조정계열 기준 협의통화(M1)은 전월대비 0.1%감소하였으나, 광의통화(M2)는 0.5% 증가함.
- 2016년 3월 금리는 기준금리 동결 및 미 FOMC의 완화적 기조 유지 등으로 보험권 내에서 안정적 흐름을 유지함.
- 2016년 1/4분기 환율은 전분기 대비 모두 상승하여 원화가치는 달러 및 엔화대비 하락함.

Ⅱ. 농촌경제 동향

- 2016년 1/4분기 농가판매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1.3% 하락하였으나 전분기보다 9.6% 상승함.
 - 부류별로 살펴보면, 곡물 가격지수는 미곡 가격 하락으로 전년 동기 및 전분기에 비해 각각 8.0%, 3.4% 하락함. 채소류 가격지수는 전년 동기보다 8.0% 하락한 반면, 전분기에 비해서는 20.3% 상승함. 이는 조미채류 가격이 전년 동기보다 하락하였지만, 엽채류와 과채류가 전년 동기와 전분기 모두 상승했기 때문임. 한편, 과일류 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및 전분기보다 각각 6.4%, 34.0% 상승함. 축산물은 한우 및 육우 송아지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보다 9.0% 상승함.
- 2016년 1/4분기 농가구입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0.3% 상승한 반면, 전분기에 비해서는 0.5% 하락함.
 - 농업용품지수는 비료를 포함한 대부분 농업용품 가격이 하락하여 전년 동기보다 1.1%, 전분기보다 2.3% 하락한 반면, 농촌임료금지수는 전년 동기대비 3.6% 상승함. 가축류를 제외하고 산출된 농업투입재가격지수는 전년 동기보다 3.9%, 전분기보다 3.2% 하락함.
- 2016년 1/4분기 농업경영조건지수는 상승하여 농가경영조건이 개선된 것으로 추정됨.
 - 전년과 비교했을 때 농업투입재가격지수의 하락률보다 농가판매가격지수의 하락률이 더 작아 농업경영조건지수는 전년 동기대비 2.8% 상승함. 전분기와 비교했을 때는 농업투입재가격지수는 하락했으나, 채소 및 과일류의 농가판매가격지수가 상승하여 농업경영조건지수는 전분기보다 13.1% 상승함.
- 2016년 1/4분기 계절조정 농림어업 취업자수는 전년 동기보다 4.8% 감소한 반면, 전분기에 비해서는 1.7% 증가함. 일반적으로 1/4분기의 취업자수는 다른 분기에 비해 낮게 나타나지만 매년 취업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농림어업부문 취업 상황이 어려운 것으로 보임.
- 2016년 1/4분기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2.9% 증가한 반면, 수입액은 5.0% 하락함.
 - 수출의 경우 축산물 수출액은 16.7% 감소하였으나 농산물과 임산물은 각각 4.2%, 11.4% 증가함. 수입의 경우에는 모든 부류에서 수입액 감소가 나타났는데, 농산물은 6.1%, 축산물은 4.1%, 임산물은 2.9% 감소를 보임.

Ⅲ. 특별주제 시사점

1. 이슬람권 농식품 시장수출 동향 및 잠재성

- 세계 이슬람권 농식품 시장 규모와 우리 농식품의 이슬람권 수출시장 성장률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라면 중장기적으로도 이슬람권 시장은 우리 농식품 수출에 있어 주요한 시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이슬람권 수출시장 성장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출시장 잠재성을 분석하고 대응할 필요성이 있음.
- 이슬람권 농식품 시장 수출잠재성 분석 대상 품목은 국내 생산농가와 연관성이 높은 28개 품목류 중에서 신선농산물, 가공식품, 축산물로 구분한 후, 각 품목류에 속하는 총 124개 품목들 중에서 수출액이 높은 품목들 중심으로 분석함. 품목류별 주요 분석대상 품목은 채소류(딸기, 김치, 채소종자), 곡류(쌀), 인삼류(홍삼, 인삼음료), 커피류(커피조제품), 기타 조제농산물(아이스크림), 면류(라면), 낙농품(조제분유), 포유가축 육류(쇠고기, 돼지고기)임.
- 우리나라에서 주목해야 할 이슬람권 시장 주요 국가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이란 등이며 이들 5개 국가들에 대한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액은 지난 5년 간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음. 이들 국가들 중에서 수출액이 높고 시장 분석 자료수집이 가능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를 집중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음.
- 잠재성 분석 결과 딸기, 감, 채소종자, 버섯, 인삼 등의 품목이 수출 잠재성이 큰 것으로 분석됨. 감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시장에서 각각 80.8%, 86.5%, 신선딸기는 말레이시아 수입딸기 시장에서 41.5%, 버섯류는 말레이시아 시장에서 10.5%의 점유율을 차지함. 채소종자는 사우디아라비아 시장에서 일본(41.7%)과 태국(30.4%)이 우위를 점유하고 있지만 한국산도 4.8%의 점유율을 차지함.
- 향후 이슬람권 농식품 시장은 성장 가능성이 높으며 그 중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리트 시장을 주요 목표 국가로 설정하여 적극적인 진출 노력이 필요함. 그리고 이슬람권역 국가별 수출유망품목을 중심으로 시장 진출여건을 분석하고 차별적인 진출 전략을 수립해야 함. 이슬람권 시장에서는 수출상품 관리가 엄격하므로 수입제도에 대응하고 품질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 성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

2. 한·미 FTA 발효 4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과제

- 한·미 FTA 이행 4년차('15)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이행 3년차 대비 10.2% 감소한 70.1억 달러이고, 동기간 수출액은 6.0% 증가한 6.2억 달러임. 미국산 농축산물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71.6%로 이행 3년차 대비 8.4%p 상승했고,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47.6%로 동기간 1.4%p 상승함.
- 이행 4년차 미국산 축산물과 과일 수입은 관세율 인하, 국내 수요 증대 등으로 이행 3년차 대비 증가했고, 곡물 수입은 수입선 전환으로 감소함.
 - 미국산 축산물 중 쇠고기와 돼지고기 수입량은 관세율 인하와 국내산 가격 상승 등으로 증가했고, 닭고기 수입량은 미국 내 시 발생에 따른 수입 금지로 감소함.
 - 미국산 과일 중 오렌지, 레몬, 자몽 수입량은 관세율 인하와 국내 소비 증가 등으로 증가했고, 체리와 포도 수입량은 주산지 작황부진으로 감소함.
 - 미국산 곡물(식용) 중 옥수수 수입량은 주요 수출국 대비 높은 수입단가로 수입선이 전환되어 감소했고, 대두 수입량은 FTA TRQ 증량 등으로 증가함.
- 이행 4년차 관세율 인하폭 확대에 따라 축산물과 과일을 중심으로 수입가격 하락효과가 커짐.
 -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과 과일(오렌지, 체리, 포도, 석류, 레몬, 자몽)의 수입가격 하락폭은 각각 약 6.7~16.5%와 12.4~23.3%로 추정됨.
 - 곡물(옥수수, 밀, 대두)은 FTA 발효 전 기준관세율이 낮고 TRQ 물량의 비중이 커 수입가격 하락폭은 약 1.1~1.3%로 추정됨.
- 한·미 FTA 이행으로 농업부문 직접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FTA 국내보완대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FTA 활용을 통한 국산 농축산물 수출 활성화 노력도 필요함.
 - 실효성 있는 국내보완대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직접적인 수입피해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원해야 함.
 - 또한, 對미 농축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가공식품에 집중된 수출품목을 신선농산물 등으로 다양화해야 하며, 수출 유망품목 발굴, 수출 촉진 인프라 구축, 특혜관세 활용 FTA 수출 지원 등이 필요함.

3. 귀농·귀촌의 국내외 성공사례 조사 분석: 지역개발과 6차 산업화 중심

- 이 조사의 주요 목적은 ① 지역개발 및 6차 산업화 부문의 국내외의 귀농·귀촌 성공사례를 조사·분석하여, ② 우리나라의 귀농·귀촌 관련 정책에 함의하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임.
- 귀농·귀촌인의 지역개발 부문에서의 주요 성공사례는 마을 만들기 관련 사업 또는 운동을 활용하여 성공한 유형, 사회적 경제 또는 복지 관련 활동으로 성공한 유형, 농촌관광으로 성공한 유형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귀농·귀촌인의 6차 산업화 부문 성공요인은 가족들의 적극적인 협조, 지역사회와의 상생, 교육 및 6차 산업화 정책의 활용, 창의력과 적극적인 도전정신 등으로 유형화 할 수 있음.
- 사례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음.
 -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 간의 상호 이해교육을 강화해야 함.
 -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귀농·귀촌을 계획적이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함.
 -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가족들의 이해와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중요함.
 -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들이 사회의 변화 트렌드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귀농·귀촌 관련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귀농·귀촌인이 생활방식 및 삶의 자세를 재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귀농·귀촌인의 홍보 및 의사소통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I. 일반경제 동향¹⁾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1. 경제성장

- 2016년 1/4분기 경제성장률은 2.7%로 수출 부진이 지속된 가운데, 소비 등 내수 회복세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성장세가 부진함.
 - 2016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4%에 그치면서 3분기 만에 최저치를 기록함.
 - 부동산 경기악화로 인해 실질 GDP가 급격하게 감소하였던 2015년 4/4분기 0.6% 성장보다 0.3%p 하락한 수준으로, 이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가 미쳤던 지난해 2분기와 동일한 수치임.
- 부문별 경제성장률을 보면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수출은 감소한 반면, 건설투자는 증가로 전환됨.
 - 2016년 1/4분기 민간소비는 작년 하반기 시행된 정부의 소비활성화 정책의 효과가 약화되고, 경제에 대한 불안감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내구재와 준내구재 소비가 줄어 전기 대비 0.3% 감소하였음.
 - 2016년 1/4분기 건설투자는 건물 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늘어 전기 대비 5.9%, 전년 동기대비 8.7% 증가함.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가 모두 줄어 전기 대비 5.9%, 전년 동기대비로는 3.0% 감소함.
 - 2016년 1/4분기 총수출은 석탄 및 석유제품, 자동차 등이 줄어 전기 대비 1.7% 감소하였으나,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0.1% 증가함. 총수입은 기계류, 운송장비 등을 중심으로 전기 대비 3.5% 감소하였으며,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는 1.4% 증가함.

1)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이상민 연구위원(smllee@krei.re.kr), 박한울 연구원(phu87@krei.re.kr)이 작성하였음.

부문별 경제성장률 추이(2010년 연쇄가격 기준)

단위: %

	2014					2015 ^p					2016 ^p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1/4
G D P 성장률	3.3	3.9	3.4	3.3	2.7	2.6	2.4	2.2	2.8	3.1	2.7 (0.4)
최종소비지출 (민 간)	2.0	2.7	1.7	2.0	1.8	2.4	1.9	2.1	2.3	3.4	2.7 (0.1)
	1.8	2.6	1.7	1.5	1.4	2.2	1.5	1.7	2.2	3.3	2.1(-0.3)
총고정자본형성 (건 설)	3.1	5.8	3.3	3.3	0.7	3.8	2.4	2.4	5.0	5.6	3.6 (1.2)
(설 비)	1.0	4.1	0.2	2.3	-1.5	4.0	0.7	1.4	5.5	8.3	8.7 (5.9)
	5.8	7.2	7.7	4.2	4.2	5.3	5.7	5.2	6.8	3.6	-3.0(-5.9)
총 수 출	2.8	4.2	3.4	2.2	1.4	0.8	0.6	-0.6	0.7	2.5	0.1 (-1.7)
총 수 입	2.1	3.2	2.9	2.3	0.1	3.2	2.0	1.7	3.2	6.0	1.4 (-3.5)

주 1. 2015^p, 2016^p 자료는 잠정치임.2. 표 안의 숫자는 계절조정계열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이고 ()는 전분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 경제활동별로는 전분기 대비 제조업은 감소했으나, 농림어업, 서비스업은 증가하였음.
 - 농림어업은 양돈과 가금류 등 축산업을 중심으로 전기 대비(계절조정) 5.9% 증가하였으나, 전년 동기대비(원계열) 3.0% 감소함.
 - 제조업은 기계·장비,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전기 대비 0.2% 감소하였으나, 전년 동기대비 1.8% 증가함.
 - 서비스업은 도소매·음식숙박업, 문화·기타서비스업은 감소로 전환했지만, 금융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등이 늘어나면서 전기 대비 0.5% 증가하였고, 전년 동기대비 6.3% 증가함.

경제활동별 경제성장률(2010년 연쇄가격 기준)

단위: %

	2014					2015 ^p					2016 ^p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1/4
농 립 어 업	3.6	5.9	4.5	2.7	2.4	-1.5	7.5	-4.0	-0.8	-5.0	-3.0(5.9)
제 조 업	3.5	4.7	4.7	3.1	1.8	1.3	0.6	0.5	1.5	2.4	1.8(-0.2)
서 비 스 업	3.4	3.5	2.9	3.5	3.5	2.9	3.1	2.9	2.8	2.8	6.3 (0.5)
(도소매 및 음식숙박)	2.4	3.9	2	2.3	1.6	2.1	1.7	2.0	1.6	3.1	2.2(-0.1)
(금융 및 보험업)	5.6	4.1	5.7	6	6.7	6.3	6.3	6.8	7.4	4.5	4.9 (1.6)
(부동산 및 임대)	3.3	3	3.4	3.7	3.2	1.9	2.1	1.7	1.9	1.9	1.7 (0.5)
(보건 및 사회복지)	6.8	7.2	6.3	6.3	7.5	5.6	7.1	4.6	4.8	5.9	6.5 (2.0)

주 1. 2015^p, 2016^p 자료는 잠정치임.2. 표 안의 숫자는 원계열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이고, ()는 계절조정계열 전분기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 2016년 경제(GDP)성장률은 내수 정체와 수출 부진으로 2.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상반기 2.9% → 하반기 2.6%)됨.
-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하반기에는 소비와 설비투자의 개선흐름이 다소 약화될 전망이며, 지출부문별 기여도를 보면 내수 기여도가 수출 기여도를 크게 상회할 전망이다.
- 민간소비는 소비심리 개선, 정부의 소비대책 등에 힘입어 연초의 부진²⁾에서 벗어나 완만한 증가세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됨.
- 승용차 개별소비세 재인하, 신규 우대 주택연금 출시 등 정부의 소비대책도 계속될 전망이다. 다만, 가계의 예비적 저축성향 증대, 원리금 상환 부담 확대 등이 소비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음.

경제성장 전망

단위: %(전년 동기대비)

	2015			2016 ^{e)}			2017 ^{e)}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연간
GDP	2.3	2.9	2.6	2.9	2.6	2.8	3.0
민간소비	1.6	2.7	2.2	2.6	2.0	2.3	2.2
설비투자	5.4	5.2	5.3	-1.1	2.8	0.9	3.7
건설투자	0.9	6.6	3.9	6.7	2.4	4.4	2.2
상품수출	-0.5	1.5	0.5	-0.3	1.8	0.8	2.7
상품수입	0.6	3.4	2	0.6	0.2	0.4	2.6

주 1.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016.4.19. 발표한 「2016년 경제전망」 참고

2. 2016^{e)} 2017^{e)}는 전망치임.

자료: 한국은행

- 설비투자는 금년 들어 증가세가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그 이유는 대내외 경기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기업의 투자 계획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주택거래량 감소, 미분야 아파트 적체 등은 건설투자 증가세를 제약할 가능성 있음.

2) 금년 1~2월에는 지난해 개별소비세 인하(15.8~12월)와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15.10월) 등의 반사효과로 민간소비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3월 들어 회복조짐을 보임.

- 상품 수출은 중국 등 신흥국의 수입수요 둔화 등으로 낮은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나, 하반기로 갈수록 세계 경제의 완만한 회복 등에 힘입어 부진이 완화될 전망이다.

2. 고용

- 2016년 1/4분기 취업자수는 2,555만 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1% 증가함.
 - 2월에는 설 명절효과 등의 특이요인으로 인해 취업자 증가폭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3월 경기 개선흐름으로 취업자가 큰 폭으로 확대됨.
 -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상용직 취업자가 크게 증가함. 특히, 청년층의 구직활동이 크게 늘면서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됨.

고 용 동 향

단위: 천명, %

	2014	2015					2016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26,536 62.4	26,913 62.6	26,356 61.5	27,140 63.2	27,166 63.0	26,989 62.5	26,708 61.7	1.3 -
취업자	25,599	25,936	25,267	26,098	26,237	26,143	25,554	1.1
· 농림어업	1,452	1,345	1,092	1,505	1,494	1,289	1,038	-4.9
· 광공업 (제조업)	4,343	4,500	4,428	4,479	4,525	4,566	4,561	3.0
· 건설업	4,330	4,486	4,418	4,466	4,511	4,550	4,544	2.9
· 도소매·음식숙박업	1,796	1,823	1,756	1,857	1,844	1,835	1,748	-0.5
· 도소매·음식숙박업	5,889	5,962	5,984	5,927	5,979	5,958	5,929	-0.9
실업자	937	976	1,089	1,042	929	845	1,153	5.9
실업률(계절조정)	-	-	3.6	3.8	3.6	3.5	3.8	5.6

자료: 통계청

- 2016년 1/4분기 경제활동인구는 2,670만 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3% 증가하였음.
 - 고령층이 대부분인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대비 4.9% 감소함. 농림어업은 고령화, 노인 일자리사업 확대, 기초연금 도입 등으로 영세 고령농 은퇴가 늘어 감소세가 확대되었음.

-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고용 안정성이 높은 상용직 취업자가 크게 증가하여 전반적인 고용증가세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음.

3. 소비

- 2015년 4/4분기 민간소비는 전기 대비 1.4%, 전년 동기대비 3.3% 증가하였음.
- 2016년 2월 소매판매의 경우 승용차 등 내구재(3.6%) 판매는 증가하였으나, 의복 등 준내구재(2.1%)와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4.4%) 판매가 줄어 전월 대비 1.8% 감소함.
- 3월 소매판매의 경우 국산 승용차 내수판매, 백화점 매출액 등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확대됨.

소 비 동 향

단위: %

	2014	2015 ^p					2016	
	연간	연간	1/4	2/4	3/4	4/4	1월 ^p	2월 ^p
민 간 소 비	1.7	2.2	0.8	-0.1	1.1	1.4	-	-
소 매 판 매	2.0	3.9	2.2	3.4	3.6	6.1	4.6	3.1
(내 구 재) ¹	5.1	10.2	4.3	0.8	2.0	8.2	-13.5	3.6
(준내구재) ²	-0.8	-1.2	-2.0	-1.0	1.8	2.8	0.1	-2.1
(비내구재) ³	1.6	2.5	0.6	1.2	0.7	0.3	5.7	-4.4

주 1. 내구재는 승용차, 가전, 가구, 통신기기 등

2. 준내구재는 의류, 의복, 신발 등

3. 비내구재는 의약품, 화장품, 연료, 음식료품, 담배 등

4. 2015년^p, 2016년 1월^p, 2월^p은 전망치임.

5. 민간소비와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이고,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는 전분기와 전월대비 증감률임.

자료: 기획재정부

- 2015년 연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37만 3천 원으로 전년대비 1.6% 증가(물가상승을 제외한 실질소득은 전년대비 0.9% 증가)함. 2014년에 비해 명목·실질소득 모두 증가율이 다소 둔화됨.
 - 지난해 7월 맞춤형 급여 시행으로 이전소득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 증가세 둔화, 사업소득 감소 전환 등으로 가계소득 증가율은 둔화됨.
 - 임금상승으로 근로소득이 1.6% 증가하였고 기초연금 및 공적연금 등 수급자 확대에 이전소득은 9.4% 증가한 반면, 사업소득은 1.9% 감소함.
- 2015년 연간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56만 3천 원으로 전년대비 0.5% 증가(실질로는 0.2% 감소)함.
 - 담배가격 인상 등으로 주류·담배 관련 지출(18.8%)이 증가하였으며, 월세가구 증가 등으로 실제 주거비 증가, 주택매매증가에 따른 주택유지 및 수선 증가로 인해 주거수도광열(4.8%) 등이 증가함.
 - 개별소비세 인하 등으로 인해 자동차 구입이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휘발유 가격이 하락하여 전체 교통비(3.7%)는 감소하였음. 통신비는 단통법 효과 및 알뜰폰 가입 증가 등으로 1.7% 감소하였고 교육비는 학생수 감소, 장학금 확대 등으로 0.4% 감소하였음.

전가구(2인 이상) 가계수지 변화추이

단위: %(전년 동기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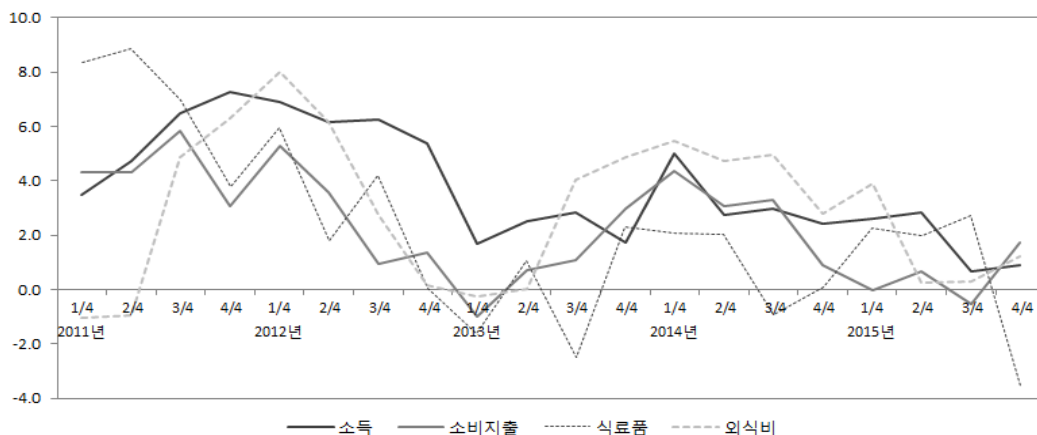
	2014					2015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소 득	3.4	5.0	2.8	3.0	2.4	1.6	2.6	2.9	0.7	0.9
(경상소득)	3.2	4.4	2.9	3.0	2.3	1.6	2.8	2.1	0.8	1.1
(비경상소득)	8.6	20.9	-0.4	2.2	8.1	1.6	-2.1	25.9	-4.7	-4.8
소 비 지 출	2.8	4.4	3.1	3.3	0.9	0.5	0.0	0.7	-0.5	1.7
(식료품·비주류음료)	0.8	2.1	2.0	-0.9	0.1	0.8	2.3	2.0	2.7	-3.5
(의류·신발)	-0.1	-1.2	2.3	2.9	-2.9	-4.4	-5.3	-3.4	-3.5	-5.2
(교 통)	8.6	12.2	5.9	13.7	3.1	-3.7	-4.5	-4.4	-12.5	6.7
(교 육)	0.4	2.6	0.5	-1.1	-0.5	-0.4	-1.6	-1.6	-1.1	3.2
(음식·숙박)	4.7	6.1	4.9	5.2	3.3	1.4	3.8	0.3	0.4	1.1

자료: 통계청

- 2015년 4/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30만 2천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0.9% 증가(실질소득은 0.2% 감소)함.
 - － 2015년 하반기 들어 이어진 경기회복 흐름에 따른 견조한 고용 증가세 등에 힘입어 3/4분기에 비해 증가세가 다소 확대됨.
- 2015년 4/4분기 가구당 소비지출은 255만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7% 증가(실질 0.7% 증가)함.
 - － 2014년 3/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소비지출이 가계지출 증가율 상승을 견인하며 소비가 개선됨.
 - － 비목별로는 교통, 주류·담배, 오락·문화, 보건 등에서 주로 증가하고, 식료품, 주거·수도·광열 등은 감소함.
- 2015년 연간 식료품·비주류 음료 지출은 전년대비 0.8% 증가하였음.
 - － 가격하락으로 곡물(9.3%), 과일·가공품(2.8%) 등의 지출이 감소하였으나, 육류는 6.7%, 채소·가공품은 4.3% 증가함.
- 2015년 4/4분기 식료품·비주류 음료 지출은 전년 동기대비 3.5% 감소하였음.
 - － 곡물 및 과일가격 하락으로 곡물 14.1%, 과일·가공품 11.0% 감소함.

식료품 및 음식 소비지출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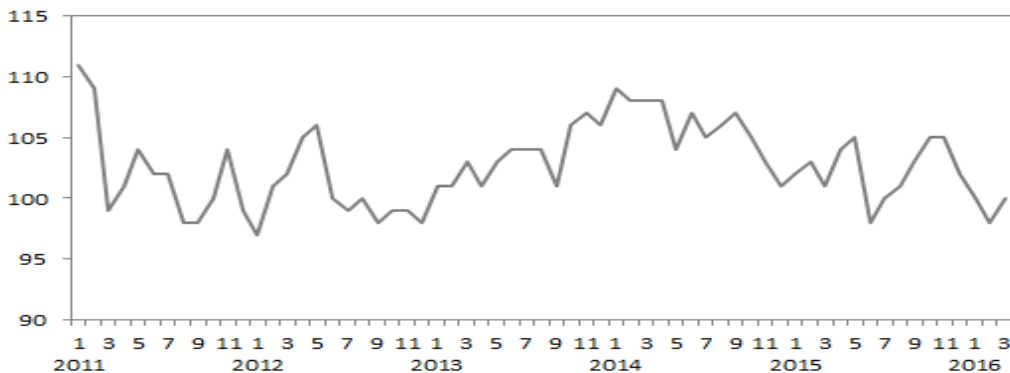
단위: %(전년 동기대비)



자료: 통계청

- 2016년 3월 소비심리지수³⁾는 100으로 나타났으며, 전년 동월(101)대비 1.0% 하락, 전월대비(98) 2.0% 상승한 수준임.

소비심리지수 월별 변화추이



자료: 통계청

4. 물가

- 2016년 1/4분기 소비자물가지수(2010년 100을 기준)는 110.5로 전년 동기대비 1.0% 상승함.
 - 농축산물가격은 상승한 반면, 석유는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해 가격상승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으로 소비자물가는 1%대 수준의 낮은 상승률을 보임.
- 상품 부문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보다 0.6% 하락하였으나, 서비스 물가지수는 집세, 공공서비스, 개인서비스 등의 상승으로 전년 동기대비 2.4% 상승함.
 - 신선 채소를 중심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4.5% 상승하였으며, 유가하락에 따른 석유류와 전기·수도·가스 가격은 하락함.

3) 소비자심리지수는 현재생활형편,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등 6개의 주요 개별지수를 표준화하여 합성한 지수로서 전반적인 소비자심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유용하게 쓰이고 있음. 소비자심리지수가 100보다 높을 경우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인 기대심리가 과거에 비해 낙관적임을, 100보다 낮을 경우에는 비관적임을 나타냄.

- 2016년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0.5로 전월대비 0.3% 하락, 전년 동월대비 1.0% 상승함.
 - 전월에 비해 석유류 하락폭이 확대되고, 일부 지자체의 학교급식비 인하로 개인서비스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월에 비해 상승세가 둔화됨.
- 지출목적별로는 전월 대비 교육, 음식·숙박, 가정용품·가사서비스 등은 상승하였고, 식료품·비주류음료, 주택·수도·전기·연료, 교통, 오락·문화 등은 하락함. 주류·담배, 의류·신발, 보건 등은 변동이 없음.
 - 전년 동월에 비해 식료품·비주류음료, 음식·숙박, 교육, 의류·신발, 보건, 오락·문화, 가사용품 및 가사서비스 등은 상승하였고, 교통, 주택·수도·전기·연료 등은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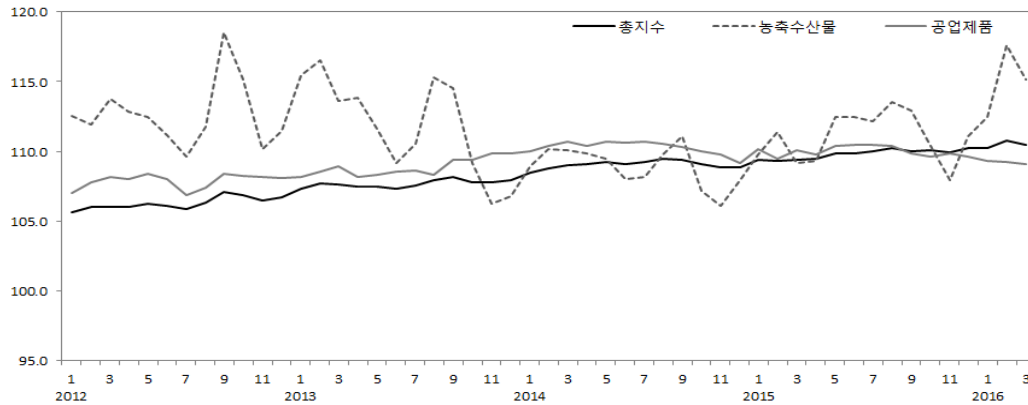
부문별 소비자물가지수(2010년=100)

	2014	2015					2016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총 지 수	109.0 (1.2)	109.8 (0.7)	109.4 (0.6)	109.7 (0.5)	110.1 (0.6)	110.1 (1.1)	110.5 (1.0)
상 품	111.1 (0.9)	110.3 (-0.7)	110.6 (-0.6)	110.5 (-0.8)	110.3 (-1.0)	109.9 (-0.4)	109.9 (-0.6)
농축수산물	108.9 (-2.7)	111.1 (2.0)	110.1 (0.4)	111.4 (2.1)	112.9 (2.9)	109.8 (2.5)	115.1 (4.5)
공업 제품	110.3 (1.4)	110.0 (-0.2)	109.9 (-0.5)	110.2 (-0.4)	110.3 (-0.2)	109.7 (0.0)	109.2 (-0.6)
서 비 스	107.4 (1.5)	109.4 (1.8)	108.4 (1.5)	109.1 (1.6)	109.9 (1.9)	110.2 (2.2)	111 (2.4)

주: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월별 소비자물가지수 변화추이(2010년=100)



자료: 통계청

- 2016년 1/4분기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는 115.1로 전년 동기대비 4.5% 상승하였고, 전분기 보다는 4.8% 상승함.
 - － 농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대비 5.6% 상승함. 곡물은 전년 동기예 비해 5.0% 하락한 반면, 채소, 과실은 각각 17.3%, 0.8% 상승함.
 - － 축산물의 경우에도 전년 동기대비 4.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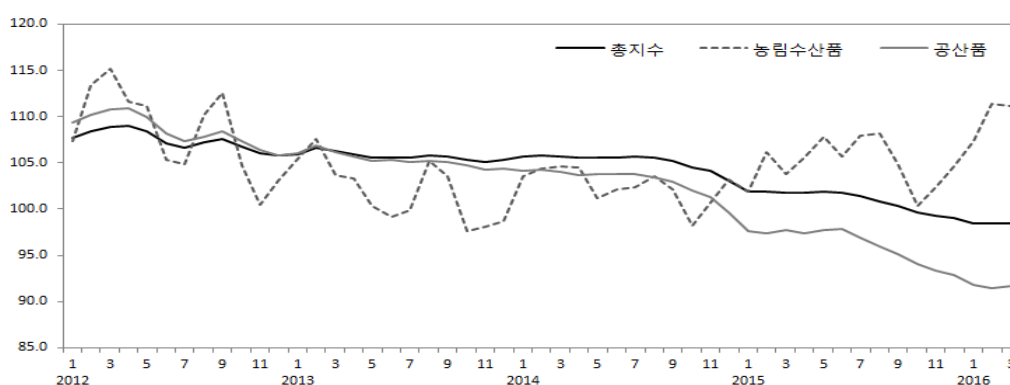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2010=100)

	2014	2015					2016	등락률(%)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농축수산물	108.9	111.1	110.1	111.4	112.9	109.8	115.1	4.5	4.8
농산물	105.3	106.7	107.1	107.3	108.3	103.9	113.2	5.6	9.0
곡물	123.3	119.9	120.7	119.9	119.9	119.1	114.6	-5.0	-3.8
채소	84.8	93.2	94.6	92.4	96.1	89.6	111.0	17.3	23.8
－배추	54.4	61.5	43.6	74.1	79.0	49.4	70.7	62.2	43.0
－양파	86.7	116.1	80.3	100.1	129.0	154.9	169.7	111.3	9.5
－마늘	88.4	108.9	93.4	100.1	117.3	124.9	136.1	45.7	9.0
－대파	57.8	81.2	68.1	83.4	91.7	81.8	109.9	61.3	34.5
과실	111.5	106.1	104.6	109.0	107.8	102.9	105.5	0.8	2.5
축산물	110.8	114.9	110.5	114.6	118.8	115.5	115.1	4.1	-0.3
수산물	115.0	116.2	117.3	116.7	114.2	116.5	118.9	1.4	2.1

자료: 통계청

- 생산자물가는 전년대비 증감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2016년 1/4분기 생산자물가지수는 98.5로 전분기 대비 0.8% 하락, 전년 동기대비 3.3% 하락함.
- 농림수산물 생산자물가는 전년보다 상승하였으나 석탄 및 석유제품, 제1차 금속제품 등의 공산품과 전력·수도·가스의 생산자물가는 전년보다 하락하였음.

월별 생산자물가지수 변화추이(2010년=100)



자료: 한국은행

- 2016년 1/4분기 수출물가지수는 81.3으로 전년 동기대비 2.7% 하락함. 3월 수출물가는 80.7로 석유제품 상승에도 불구하고 원화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1.5%, 전년 동월대비 4.5%로 하락함.
- 계약통화기준(외화표시 수출가격) 수출물가는 전월 대비 0.8% 상승한 반면, 전년 동월대비 10.5% 하락함.
- 2016년 1/4분기 농림수산물 수출물가지수는 91.8로 전년 동기대비 0.3% 하락함. 3월 농림수산물 수출물가지수는 99.1로 전월대비 0.5% 상승하였으나, 신선·냉동어류 등을 중심으로 전년 동월대비 1.4% 하락함.
- 2016년 1/4분기 공산품 수출물가지수는 81.3으로 전년 동기대비 2.7% 하락하였음. 3월 공산품 수출물가지수는 전기 및 전자기기 등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1.6%, 전년 동월대비로는 4.5% 하락함.

부문별 수출물가지수(2010년=100)

	2014	2015					2016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월	3월
총 지 수	88.1 (-6.0)	83.5 (5.2)	83.6 (-7.8)	83.8 (-3.9)	85.4 (-1.9)	81.3 (-7.1)	81.3 (-2.7)	82.0 (-2.0)	80.7 (-4.5)
농림수산물	91.8 (-5.9)	91.5 (-0.3)	90.5 (-2.4)	88.5 (-1.8)	95.5 (3.5)	91.8 (-0.3)	98.1 (8.3)	98.1 (8.5)	99.1 (10.2)
농 산 물	147.2 (-3.3)	145.0 (-1.5)	142.1 (-6.9)	140.8 (-7.2)	153.7 (4.0)	146.7 (7.4)	143.2 (0.7)	141.0 (-0.8)	137.7 (-4.0)
공 산 품	88.1 (-6.0)	83.5 (-5.2)	83.5 (-7.9)	83.8 (-3.9)	85.3 (-1.9)	81.2 (-7.1)	81.3 (-2.7)	81.9 (-2.0)	80.6 (-4.5)

주: ()는 전년 동기,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 2016년 1/4분기 수입물가지수는 75.8로 전분기 대비 1.8% 하락하고 전년 동기에 비해 1.5% 하락함.
- 2016년 3월 수입물가지수는 76.2로 국제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원화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보합, 전년 동월대비로는 7.6% 하락함.
 - 계약통화기준(외화표시 수입가격) 수입물가는 전월 대비 2.2% 상승하였으나, 전년 동월대비 13.7% 하락함.
 - 원재료의 경우, 원유 등 광산품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5.6% 상승하였으며, 중간재, 자본재, 소비재는 전월대비 각각 1.1%, 1.7%, 1.8% 하락함.
- 2016년 3월 농림수산물 수입물가지수는 92.0으로 전월 대비 2.3% 하락하였으며, 밀, 커피 등의 품목을 중심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4.8% 하락한 수준임.

부문별 수입물가지수(2010년=100)

	2014	2015					2016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월	3월
총 지 수	94.9 (-7.6)	80.4 (-15.3)	81.6 (-18.2)	81.4 (-15.2)	81.3 (-13.6)	77.2 (-14.1)	75.8 (-1.5)	76.2 (-7.4)	76.2 (-7.6)
농림수산물	98.9 (-1.9)	94.1 (-4.9)	96.9 (-2.0)	92.6 (-6.9)	95.2 (-1.9)	91.7 (-8.7)	93.4 (-2.9)	94.2 (-2.5)	92.0 (-4.8)
농 산 물	91.5 (-8.7)	85.0 (-7.1)	87.4 (-7.4)	84 (-9.6)	86.3 (-1.7)	82.2 (-9.6)	82.5 (-2.8)	83.1 (-4.9)	80.9 (-7.0)
축 산 물	120.9 (9.0)	115.0 (-4.9)	120.7 (4.6)	111.9 (-5.7)	115 (-5.9)	112.3 (-11.7)	113.7 (-4.7)	115.0 (-3.7)	112.7 (-5.6)
공 산 품	89 (-6.5)	83.8 (-5.8)	83.5 (-9.4)	83.3 (-6.0)	85.5 (-2.6)	82.9 (-5.4)	84.0 (0.4)	84.6 (1.0)	83.6 (-0.7)

주: ()는 전년 동기,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5. 금융·환율

- 2016년 2월중 계절조정계열 기준 협의통화(M1, 평잔)는 전월대비 0.1% 감소(원계열 전년 동월대비 19.4% 증가)함.
- 2016년 2월중 계절조정계열 기준 광의통화(M2, 평잔)는 전월대비 0.5% 증가(원계열 전년 동월대비 8.3% 증가)함.
 - 금융상품별로는 2년 미만 정기예적금, MMF, 요구불예금, 수익증권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경제주체별로는 가계 및 기타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음.
- 금융기관유동성(Lf, 평잔)은 계절조정기준 전월대비 0.6% 증가(원계열 전년 동월대비 8.9% 증가)함.

통화지표 증감률(평균잔액기준)

단위: %(전년 동월대비)

	2015											2016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M1 ¹	14.3	15.5	17.7	18.9	18.5	21.0	21.3	21.4	21.5	20.6	19.6	20.7	19.4
M2 ²	8.0	8.3	9.0	9.3	9.0	9.3	9.2	9.4	8.8	7.7	7.5	8.1	8.3
L ³	8.6	9.3	10.0	10.3	10.5	10.6	10.4	10.5	10.2	9.2	8.9	8.9	8.9
본원통화 ⁴	15.9	15.3	16.4	15.7	17.0	20.6	13.2	20.1	17.3	18.8	16.3	15.9	15.8

주 1. M1: 은행 및 비은행의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예금, 투신사 MMF

2. M2: 은행 및 비은행(생보, 증권금융제외) 금융기관의 만기 2년미만예수금

3. 기존의 M3가 유동성 지표 신규편제에 따라 L로 개칭

4. 본원통화: 화폐발행액(기념화폐 제외) + 지급준비예치금

자료: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 2016년 3월 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동결 및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완화적 기조 유지 등으로 보험권 내에서 안정적 흐름을 유지함.
 - 국고채(3년)금리는 미 연준의 금리인상 지연 기대, 주요국 국채금리 하락 등으로 낮아졌다가 소폭 반등하였으며, 회사채금리의 경우 우량물은 상대적 금리메리트에 따른 투자 수요 등으로 소폭 하락함.
 - 3월중 외국인의 채권투자는 4개월 만에 소폭 증가하였으며, CD유통수익률(91일)은 2016년 3월 기준 1.63%로 전월대비 0.01%p 소폭 하락함.

금리동향

단위: %

	2015								2016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국고채(3년)	1.75	1.79	1.78	1.74	1.65	1.63	1.75	1.72	1.63	1.47	1.50
회사채 ¹	2.06	2.11	1.48	1.49	1.48	1.48	1.49	1.48	1.49	1.49	1.49
CD유통수익률(91일)	1.80	1.65	1.65	1.64	1.60	1.58	1.59	1.67	1.67	1.64	1.63
콜금리 ²	1.74	1.50	2.00	1.98	1.95	1.96	2.12	2.14	2.09	1.95	1.98

주 1. 회사채: 장외3년, AA-등급

2. 콜금리: 무담보콜금리(1일물)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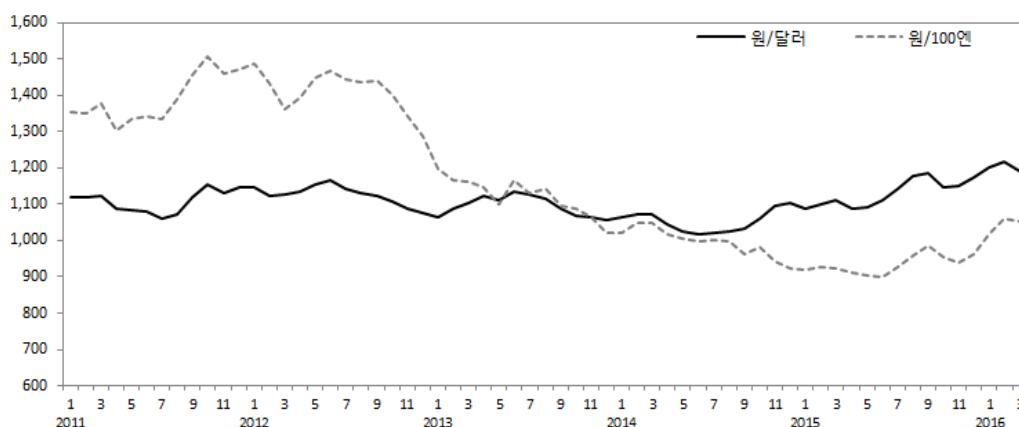
- 2016년 1/4분기 원/달러 환율은 1,201원으로 전분기에 비해 43원 상승하였으며, 원/100엔 환율은 전분기 대비 90원 상승한 1,043원임.
 - 2016년 1/4분기 원/유로 환율 및 원/위안 환율 모두 상승함.
- 2016년 3월 원/달러 및 원/100엔 환율은 모두 하락함.
 - 원/달러 환율은 국제유가 반등, 글로벌 주가 상승에 따른 위험선호 심리 개선으로 전월대비 29원 하락한 1,188원이며, 원/100엔 환율은 전월대비 소폭 하락한 1,052원임.

원화 환율 동향

	2014	2015					2016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1월	2월	3월
원/달러	1,053	1,131	1,100	1,098	1,168	1,158	1,201	1,202	1,217	1,188
원/100엔	996	935	923	905	956	953	1,043	1,017	1,060	1,052
원/유로	1,399	1,255	1,239	1,214	1,299	1,268	1,325	1,306	1,349	1,322
원/위안	171	180	176	177	185	181	183	182	186	183

주: 평균 환율 기준
자료: 한국은행

원화 환율 추세



자료: 한국은행

Ⅱ. 농촌경제 동향⁴⁾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1. 농촌 물가

1.1. 농가판매가격지수

- 2016년 1/4분기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23.7로 전년 동기에 비해 1.3% 하락하였으나 전분기에 비해서는 9.6% 상승함.
 - － 부류별로 살펴보면, 곡물과 채소가 전년 동기보다 하락한 반면, 과일과 축산물은 상승함.
- 곡물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02.8로 전년 동기 및 전분기에 비해 각각 8.0%, 3.4% 하락함.
 - － 미곡에서는 일반미와 찰쌀이 전년 동기대비 각각 10.0%, 10.8% 하락함.
 - － 두류/잡곡은 검정콩, 콩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보다 8.4%, 전분기보다 6.8% 상승함. 서류 역시 고구마가 크게 상승한 영향으로 전년 동기대비 3.9%, 전분기에 비해서는 12.9% 상승함.
- 채소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22.7로 전년 동기에 비해 8.0% 하락한 반면, 전분기에 비해서는 20.3% 상승함.
 - － 엽채류는 배추가 크게 상승한 영향으로 전년 동기와 전분기에 비해 각각 29.4%, 22.3% 상승함.
 - － 조미채류에서는 마늘, 양파 등이 크게 상승했으나 고추류가 하락하여 전년 동기보다 28.0% 하락함.

4)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이상민 연구위원(smllee@krei.re.kr), 박지원 연구원(jione1105@krei.re.kr)이 작성하였음.

- 과채류는 딸기, 토마토 등의 품목에서 하락이 있었지만 전년 동기 및 전분기 대비 각각 1.8%, 26.9% 상승함.
- 과실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202.7로 사과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이 상승하여 전년 동기와 전분기에 비해 각각 6.4%, 34.0% 상승함.
- 축산물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08.3으로 전년 동기보다 9.0% 상승하였으나 전분기보다는 1.9% 하락함.
 - 가축은 한우송아지, 육우송아지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보다 21.1%, 전분기보다 0.3% 상승함.
- 기타농산물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09.2로 전년 동기보다 3.1%, 전분기보다 5.0% 하락함.

농가판매가격지수(2010년=100)

	가중치	2014	2015	2014	2015	2015	2016	등락률(%)	
		연간	연간	4/4	1/4	4/4	1/4	전년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총 지수	1000.0	111.3	113.8	113.5	125.3	112.9	123.7	-1.3	9.6
곡물	280.1	115.7	109.6	115.7	111.7	106.4	102.8	-8.0	-3.4
-미곡	234.3	120.4	112.7	119.8	115	108.9	103.4	-10.1	-5.1
-맥류	5.5	135.8	144	144.2	138.7	150.7	140.8	1.5	-6.6
-두류/잡곡	23.9	88.2	73.3	85.7	78.3	79.5	84.9	8.4	6.8
-서류	16.4	82.5	106.9	90.9	103.7	95.4	107.7	3.9	12.9
청과물	406.5	116.2	121.3	119.1	152.7	118.7	149.8	-1.9	26.2
-채소	268.9	96.4	103.2	101.4	133.4	102	122.7	-8.0	20.3
-과실	137.6	154.8	156.6	153.8	190.5	151.3	202.7	6.4	34.0
축산물	252.6	98.5	107.3	101.5	99.4	110.4	108.3	9.0	-1.9
-가축	185.1	89.6	104.2	93.8	92	111.1	111.4	21.1	0.3
-유란	67.5	122.8	115.9	122.6	119.8	108.6	99.6	-16.9	-8.3
기타농산물	60.8	111.7	110.9	115.1	112.7	114.9	109.2	-3.1	-5.0
-특용작물	42.4	123.2	120.2	127.9	119	124	114.2	-4.0	-7.9
-화훼	15.3	83.6	89.5	84.2	99.6	95.9	100.6	1.0	4.9
-부산물	3.0	93.9	88.6	92.2	90	84.5	84.3	-6.3	-0.2

자료: 통계청

1.2. 농가구입가격지수

- 2016년 1/4분기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08.5로 전년 동기보다 0.3% 상승하였으나 전분기에 비해서는 0.5% 하락함.
- 농업용품지수는 104.8로 전년 동기 및 전분기보다 각각 1.1%, 2.3% 하락함.
 - 가축이 전년 동기보다 31.8%, 전분기보다 7.7%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료, 영농광열을 포함한 대부분의 농업용품이 하락함.
- 농촌임료금지수는 136.8로 전년 동기에 비해 3.6% 상승함.
 - 농업노동임금은 전년 동기보다 3.7% 상승하였고, 농기계 임차료는 전년 동기보다 0.8% 상승함.

농가구입가격지수(2010년=100)

	가중치	2014	2015	2014	2015	2015	2016	등락률(%)	
		연간	연간	4/4	1/4	4/4	1/4	전년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총 지수	1000.0	108.4	109	108.1	108.2	109.1	108.5	0.3	-0.5
가계용품	576.0	106.7	108.1	106.5	107.6	108.2	108.7	1.0	0.5
농업용품	376.9	108.3	107.3	107.6	106	107.3	104.8	-1.1	-2.3
-종자	29.3	146.2	139.3	146.2	139.2	139.3	133.8	-3.9	-3.9
-비료	39.0	79.6	80.1	79.6	80.1	80.1	63.5	-20.7	-20.7
-농약	29.9	117.6	124.2	117.8	124.2	124.2	123.3	-0.7	-0.7
-농기구	64.0	116.9	119.5	118.1	119.5	119.5	119.5	0.0	0.0
-영농광열	26.7	120	85.3	112.5	84.5	82.3	67	-20.7	-18.6
-가축	51.3	82	101.6	84.3	87	106.5	114.7	31.8	7.7
-사료	125.0	110.4	106	108.3	108.3	104.8	103.8	-4.2	-1.0
-영농자재	11.7	105.9	95.8	104.8	97	94.6	96.2	-0.8	1.7
농촌임료금	47.1	128.9	134.6	131.2	132	135.8	136.8	3.6	0.7
-농업노동임금	44.9	129.3	135.2	131.6	132.6	136.4	137.5	3.7	0.8
-농기계임차료	2.2	121	122.5	121.5	121.6	122.5	122.6	0.8	0.1

자료: 통계청

1.3. 농업경영조건지수

- 가축류를 제외한 농업용품과 농촌임료금을 통해 산출된 2016년 1/4분기 농업 투입재가격지수는 107.5로 전년 동기보다 3.9%, 전분기보다 3.2% 하락함.
- 2016년 1/4분기 농업경영조건지수는 115.1로 전년 동기보다 2.8% 상승하고, 전분기에 비해서는 13.1% 상승함.
 - 전년 동기대비 농가판매가격지수와 농업투입재가격지수가 모두 하락했으나 농업투입재가격지수의 하락폭이 더 크기 때문에 농업경영조건이 전년 동기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추정됨.
 - 전분기와 대비해서는 채소 및 과실류 등의 판매가격지수 상승으로 농가판매 가격지수가 상승하였기 때문에 농가경영조건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농업경영조건지수

	2014	2015	2015	2016	등락률(%)	
	4/4	1/4	4/4	1/4	전년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농가판매가격(A)	113.5	125.3	112.9	123.7	-1.3	9.6
농업투입재가격(B)	113.8	111.9	111.0	107.5	-3.9	-3.2
농업경영조건(A/B×100)	99.7	112.0	101.7	115.1	2.8	13.1

주: 농가투입재가격은 농가구입가격지수에서 농업용품(가축류 제외)과 농촌임료금의 가중평균임.

2. 농림어업 취업자

- 2016년 1/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수는 103만 8천 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4.9% 감소하고, 전분기에 비해서는 19.5% 감소함. 계절조정 취업자수는 132만 4천 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4.8% 감소한 반면 전분기 보다 1.7% 증가함.
 - 남성 농림어업 취업자는 전년 동기대비 5.5% 감소한 64만 7천 명이었고, 여성은 3.9% 감소한 39만 1천 명임.

- 농가 취업자수는 139만 7천 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3.1%, 전분기보다 16.3% 감소함.

농림어업 취업자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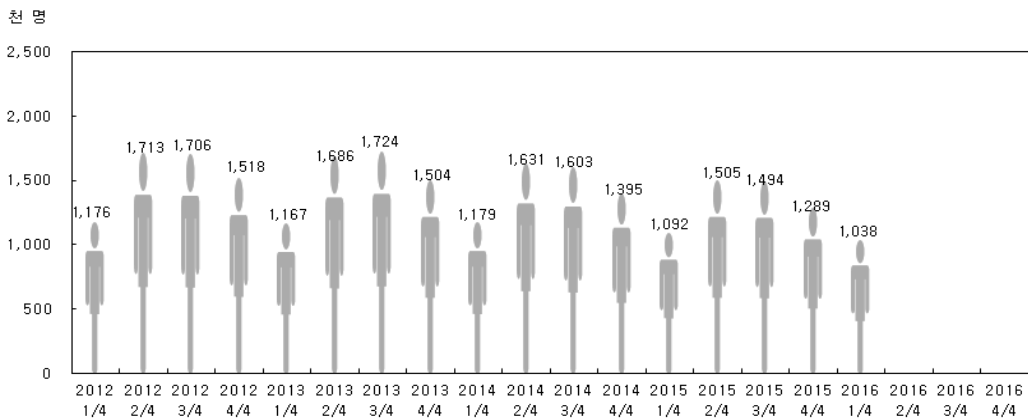
단위: 천명

		2015		2016	증감률(%)	
		1/4	4/4	1/4	전년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취 업 자	전산업	25,267	26,143	25,554	1.1	-2.3
	(계절조정)	25,903	26,119	26,162	1.0	0.2
	농림어업	1,092	1,289	1,038	-4.9	-19.5
	(계절조정)	1,391	1,302	1,324	-4.8	1.7
	남성	685	743	647	-5.5	-12.9
	여성	407	546	391	-3.9	-28.4
	농가	1,607	1,670	1,397	-13.1	-16.3
	농가남성	955	945	832	-12.9	-12.0
	농가여성	652	725	565	-13.3	-22.1

주: ()안은 계절조정 값으로 매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계절적 요인을 제거한 값임.
자료: 통계청

- 2016년 1/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수의 경우 4분기 취업자 수 중 가장 적은 일반적 패턴을 따르고 있으나, 매년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이 있음.

농림어업 취업자수 변화추이



3. 농축산물 수출입

3.1. 수출 동향

- 2016년 1/4분기 농림축산물 수출물량은 86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8.7% 증가함.
- 농산물은 전년 동기대비 4.7% 증가한 반면, 축산물은 2.2% 감소함. 한편 임산물은 전년 동기에 비해 29.9%로 크게 증가함.

농림축산물 수출 동향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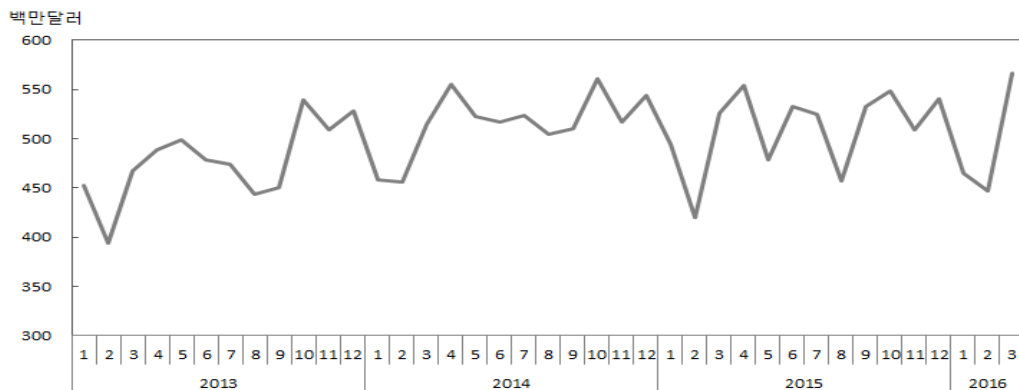
구분	2014		2015		2015		2016		전년동기대비	
	4/4		1/4		4/4		1/4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938	1,621	791	1,437	972	1,599	860	1,478	8.7	2.9
농산물	712	1,402	629	1,244	738	1,370	659	1,297	4.7	4.2
-곡류	11	10	10	8	10	8	9	8	-3.3	-6.7
-과실류	51	95	31	55	47	98	35	67	13.9	23.3
-채소류	27	75	20	78	36	84	27	82	29.8	6.0
축산물	31	132	28	120	33	128	27	100	-2.2	-16.7
-포유육류	1	9	2	13	2	11	1	8	-25.3	-40.6
-가금육류	6	11	6	11	9	13	7	10	16.5	-8.2
-낙농품	11	52	8	39	9	46	7	34	-7.4	-13.6
임산물	195	87	134	73	200	101	174	81	29.9	11.4
수산물	170	535	139	429	163	496	131	435	-5.2	1.5
전체	1,107	2,156	930	1,865	1,135	2,094	992	1,913	6.6	2.5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2016년 1/4분기 농림축산물의 수출액은 14억 7,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9% 증가함.
- 수출액은 농산물과 임산물이 전년 동기에 비해 각각 4.2%, 11.4% 증가하고, 축산물은 16.7% 감소함.
- 농산물에서 곡류는 6.7% 감소한데 반해 채소류는 6.0%, 과실류는 23.3% 증가함.

- 축산물에서는 모든 부류에서 감소를 보였는데, 가금육류는 8.2%, 낙농품은 13.6%, 포유육류는 40.6% 감소함.
- 매년 2월 수출액이 크게 감소하다가 3월에 다시 감소세를 회복하는 패턴이 그대로 이어져 2016년 3월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전월에 비해 26.7% 증가하고, 전년 동월에 비해서도 7.7%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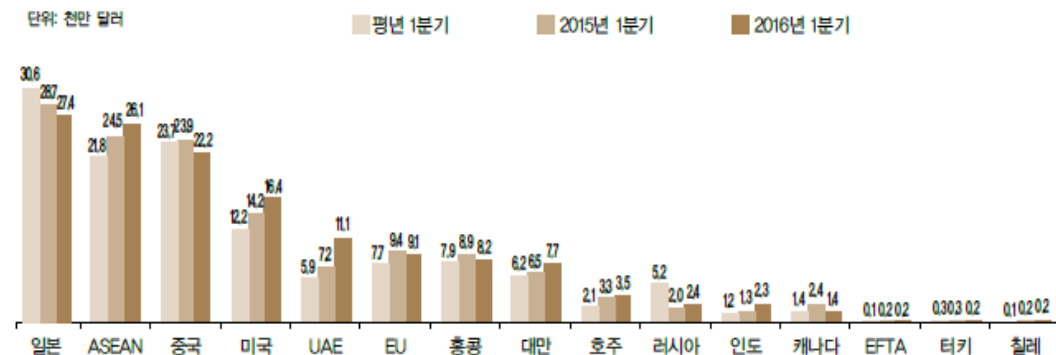
농림축산물 수출액 추이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2016년 1/4분기에 일본, EU, 홍콩, 캐나다 등 주요 수출대상국으로의 누적 수출액이 전년 동기보다 감소한 가운데, UAE로의 수출액(3.9%)은 크게 증가함.

주요 수출 대상국별 수출액 추이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년 1분기 FTA체결국 농축산물 수출입 동향」.

- 2016년 2/4분기 농수산물의 수출산업경기 전망지수(EBSI)는 91.7로 전분기에 비해 수출경기가 악화될 전망이다⁵⁾.
- 이는 원화환율의 변동성 확대와 수출대상국의 경기부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3.2. 수입 동향

- 2016년 1/4분기 농림축산물 수입물량은 1,209만 7천 톤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4.6% 증가함.
- 농산물은 1.3%, 축산물은 5.7%, 임산물은 12.4% 증가함.

농림축산물 수입 동향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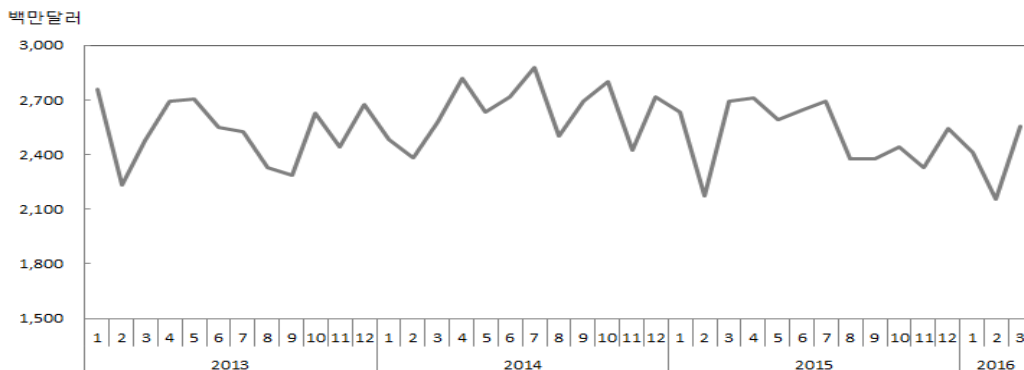
구분		2014		2015		2015		2016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4/4		1/4		4/4		1/4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12,056	7,940	11,567	7,504	13,047	7,314	12,097	7,125	4.6	-5.0
	농 산 물	8,158	4,825	7,921	4,487	8,738	4,388	8,021	4,213	1.3	-6.1
	－곡류	3,921	1,244	3,663	983	4,041	945	3,488	775	-4.8	-21.2
	－과실류	198	302	261	431	211	287	301	444	15.4	2.9
	－채소류	241	206	238	202	361	277	276	217	16.1	7.5
	축 산 물	347	1,448	358	1,456	339	1,278	379	1,397	5.7	-4.1
	－포유육류	180	827	206	935	189	750	233	935	13.4	-0.1
	－가금육류	40	94	27	69	33	82	27	62	0.3	-10.1
	－낙농품	56	230	60	223	59	190	60	181	0.03	-18.9
	임 산 물	3,551	1,666	3,289	1,561	3,969	1,647	3,698	1,515	12.4	-2.9
수 산 물		1,500	1,271	1,224	1,143	1,639	1,235	1,182	1,148	-3.4	0.4
전 체		13,556	9,211	12,791	8,647	14,686	8,549	13,280	8,273	3.8	-4.3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5) 한국무역협회, '2016년 2/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2016.03.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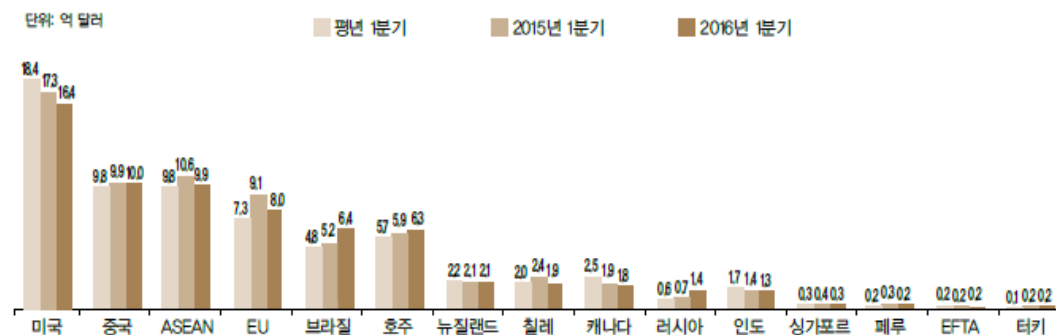
- 2016년 1/4분기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71억 2,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에 비해 5.0% 감소함.
 - 수입물량이 전년 동기에 비해 증가한 것과는 달리 수입액은 감소를 보였는데, 농산물은 6.1%, 축산물은 4.1%, 임산물은 2.9% 감소함.
 - 농산물에서는 곡류가(-21.2%)가 크게 감소하고, 축산물에서는 모든 부류에서 감소가 나타남.
- 2016년 3월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25억 5,400만 달러로 전년 동월에 비해 5.3% 감소하고, 전월에 비해서는 18.4% 증가함.

농림축산물 수입 추이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요 수입 대상국별 수입액 추이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년 1분기 FTA체결국 농축산물 수출입 동향」.

- 2016년 1/4분기에 미국, 중국, ASEAN, EU, 브라질, 호주 등으로부터의 누적 수입액은 전년 동기보다 감소했고, 특히 EU 수입액(-12.0%)이 크게 감소함.
- 돼지고기(미국, EU, 캐나다산), 밀(미국, 호주, 캐나다산), 포도(칠레, 페루산), 대두(미국산) 등의 수입 감소로 주요 수입국별 수입액이 전년 동기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3.3. 순수입 동향

- 2016년 1/4분기 농림축산물 순수입물량은 1,123만 7천 톤으로 전년 동기예 비해 4.3% 증가함.
- 농산물의 경우 순수입물량은 736만 3천 톤으로 임산물과 축산물에 비해 물량 자체는 가장 크지만 전년 동기대비 1.0% 증가에 그침.
- 축산물 순수입물량은 전년 동기보다 6.4% 증가한 35만 1천 톤임.
- 2016년 1/4분기 농림축산물 순수입액은 56억 4,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6.9% 감소함.
- 축산물과 임산물이 전년 동기에 비해 각각 2.9%, 3.6% 감소한데 반해 농산물은 10.1%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농림축산물 순수입 동향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구 분	2015. 1/4분기		2016. 1/4분기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10,776	6,068	11,237	5,648	4.3	-6.9
농 산 물	7,291	3,243	7,363	2,916	1.0	-10.1
축 산 물	330	1,336	351	1,297	6.4	-2.9
임 산 물	3,154	1,488	3,523	1,434	11.7	-3.6
수 산 물	1,085	714	1,051	713	-3.2	-0.2
전 체	11,861	6,782	12,288	6,361	3.6	-6.2

주: 순수입=(수입-수출)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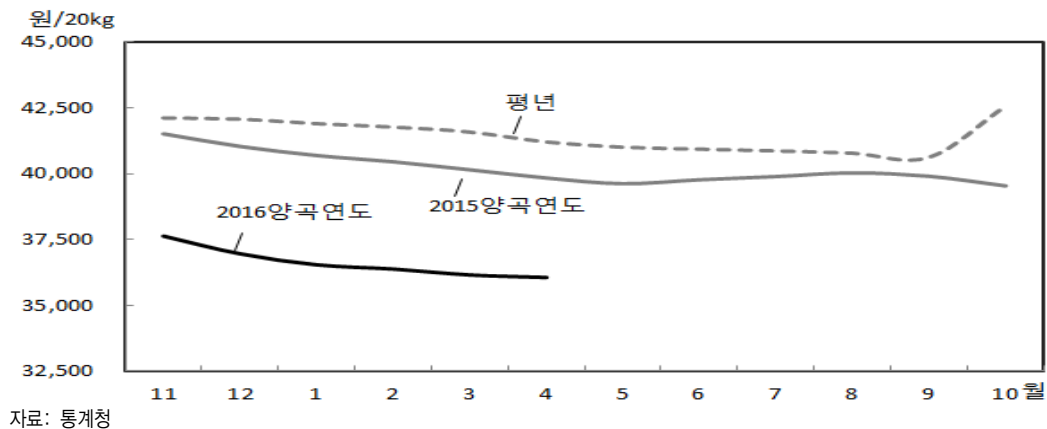
Ⅲ. 주요 농축산물 수급 동향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1. 곡물⁶⁾

1.1. 쌀

산지 쌀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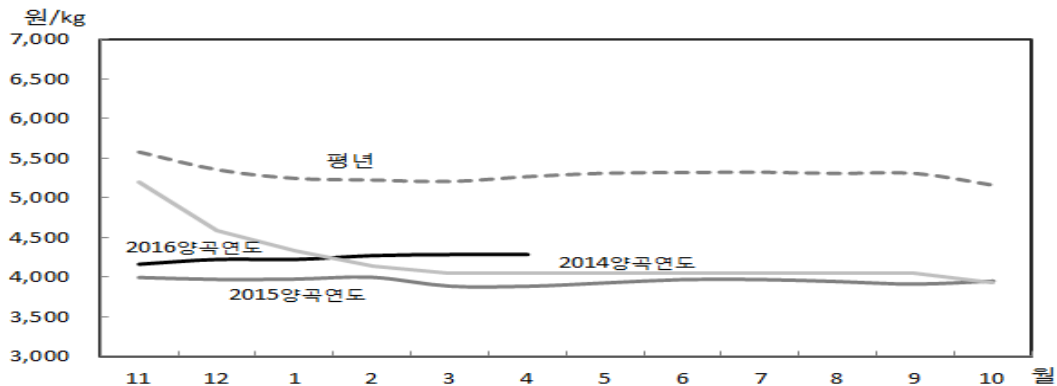
- 2016년 1/4분기 동향
 - 2015년 10월 정부의 시장격리(20만 톤)에도 불구하고 연이은 풍작으로 인한 생산량 증가와 2014년산 쌀값의 역계절진폭 발생 등이 산지 쌀 가격 하락요인으로 작용함.

6)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김태훈 연구위원(taehun@krei.re.kr), 김종진 연구위원(jkim@krei.re.kr), 승준호(jhseung@krei.re.kr), 김지연(jykim12@krei.re.kr), 조남욱(ukjo@krei.re.kr), 손미연(sonmy@krei.re.kr), 최선우(opendoyon@krei.re.kr), 채주호(whiteshark@krei.re.kr), 임권택(lkt20000@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 2016년 2월 말 산지유통업체의 쌀 판매량은 전년보다 26.1%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재고량 역시 전년보다 9.3% 증가함. 이는 수확기에 정부가 산지유통업체에게 벼 매입자금 지원을 확대하여 원료곡 보유량이 전년보다 늘어났기 때문임.
- 한편, 농가재고량(시장출하용)은 공공비축미 출하와 유통업체 판매량이 증가하여 전년보다 24.0% 감소함.
- 3월 평균 산지 쌀 가격은 20kg 기준 3만 6,155원으로 전년 대비 9.9%, 수확기 대비 5.0% 하락함.
- 2016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산지 쌀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자 정부는 3월 30일 추가 시장격리(14만 3천 톤)를 실시하였고, 산지 쌀 가격은 4월부터 강보합세로 전환됨.
 - 하지만 대형유통업체의 창립행사로 4월 25일자 산지 쌀 가격은 전기 대비 0.2%(73원/20kg) 하락함.
 - 2016년 4월 평균 산지 쌀 가격은 3만 6,059원/20kg으로 전년 대비 9.5%, 전월 대비 0.3% 하락함.
 - 대형유통업체 창립행사가 종료되는 5월을 기점으로 산지 쌀 가격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1.2. 콩

국산콩(백태상품) 도매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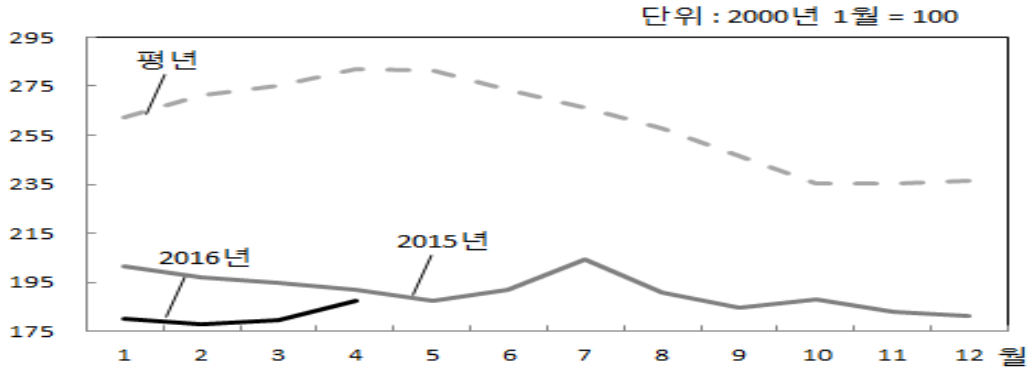


주: 평년 가격은 2011~2015년의 해당 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16년 1/4분기 동향
 - 2015년산 콩 생산량 감소로 수확기(11~1월) 콩 도매가격은 전년에 비해 5.8% 상승하였으며, 이후 3월까지 강보합세를 유지함.
 - 2016년 3월 국산 콩의 평균 도매가격은 4,286원/kg으로 전년 동기보다 10.2% 상승하였으며, 평년 동기 대비 17.7% 낮은 수준임.
 - 2013년산과 2014년산 정부수매물량이 재고로 남아 있고, 가공업체들의 저렴한 수입콩 사용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국산 콩 소비 부진으로 생산량 감소 폭에 비해 가격 상승폭은 제한됨.
- 2016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2016년 4월 국산 콩 평균 도매가격은 4,286원/kg으로 전월과 동일하며, 평년 동기보다는 18.7% 하락함.
 - 2015년산 생산량은 감소하고 정부수매물량은 1만 1,424톤으로 전년보다 늘어나 전체 시장 공급이 감소하여 가격 상승 여력이 존재함. 그러나 가공업체의 수입콩 선호, 2013년산과 2014년산의 정부수매물량 시장방출 가능성 등은 가격 상승 제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1.3. 국제곡물

국제곡물 선물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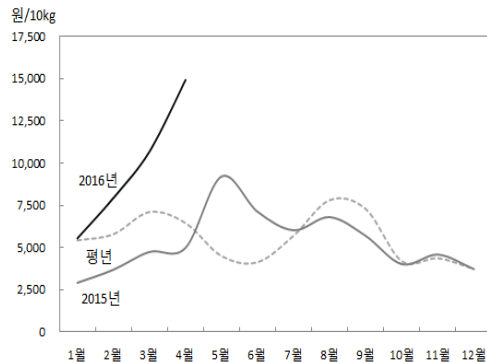
주: 선물 가격지수는 근접월 인도분 선물가격에 곡물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음.
 자료: 시카고 상품거래소(CBOT)

- 2016년 1/4분기 동향
 - 1/4분기 국제곡물 선물가격지수는 전분기보다 2.6% 하락한 179.2임.
 - 2016년 1/4분기는 주요 곡물들의 안정적인 수급상황과 세계 경제 성장을 둔화, 달러화 강세 및 저유가 기조 지속 등 거시경제 요인들이 선물가격의 하락요인으로 작용함.
 - 특히, 옥수수과 콩의 남미지역 생육 상황이 양호하고 원활한 수확 진행으로 인해 국제곡물 가격 하락요인으로 작용함.
- 2016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2016년 4월 국제곡물 선물가격은 콩, 옥수수 주산지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악천후와 환매수세 유입 등으로 전월 대비 4.6% 상승한 187.4임.
 - 2016년 2/4분기 국제곡물 선물가격은 남미의 기상악화와 중국 수요 증가로 전 분기보다 3.6% 상승한 185.6으로 전망됨.
 - 미국, 우크라이나 등 2016/17년 밀 재배면적 감소 전망은 선물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주요 곡물의 안정적인 수급 전망 지속과 세계 경제 성장 둔화, 달러화 강세 및 저유가 지속 전망은 가격 상승 제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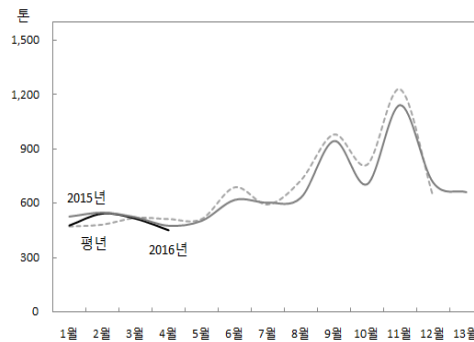
2. 엽근채소⁷⁾

2.1. 배추

배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배추 반입량 동향



주: 일별 가격 및 반입량은 5일 이동 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2011~2015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6년 1/4분기 동향

- 1/4분기 배추 평균 도매가격은 2015년산 월동배추 산지 및 저장 출하량이 크게 줄어들어 전년 및 평년보다 각각 113%, 32% 높았음.
- 월별 가격은 1월 5,550원/10kg, 2월 7,930원/10kg, 3월 10,680원/10kg 등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음.

* (금년) 8,050원/10kg, (전년) 3,790원/10kg, (평년) 6,090원/10kg

- 2016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봄배추 생산량은 전년보다 30% 증가하나, 평년보다 29% 감소한 17만 8천 톤으로 전망됨.

* 시설봄배추 생산량: 재배면적 증가로 전년보다 83% 증가하나, 평년보다 32% 감소한 4만 9천 톤

* 노지봄배추 생산량: 재배면적 증가로 전년보다 17% 증가하나, 평년보다 28% 감소한 12만 8천 톤

7)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김성우 연구위원(swootamui@krei.re.kr), 노호영(rhy81@krei.re.kr), 윤선희(sunny@krei.re.kr), 임효빈(hyobin@krei.re.kr), 김라이(kimlai@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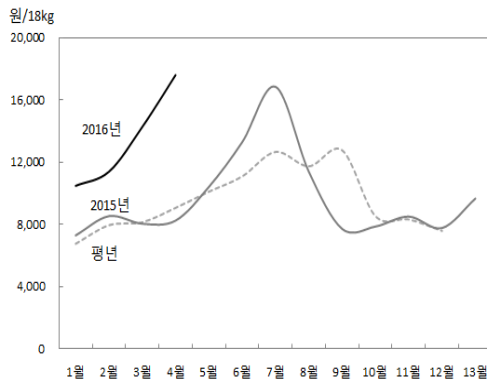
- 2016년 2/4분기 배추 도매가격은 4월이 전년보다 높으나, 5~6월은 작년보다 낮을 전망이다.

* 4월 가격은 월동저장배추 출하량이 매우 적어 전년(4,990원) 및 평년(6,450)보다 높고, 5~6월은 봄배추 출하량이 증가하여 전년(8,160원)보다 낮을 전망. 그러나 5~6월 기상 변화에 따른 봄배추 단수 변화로 가격 수준은 유동적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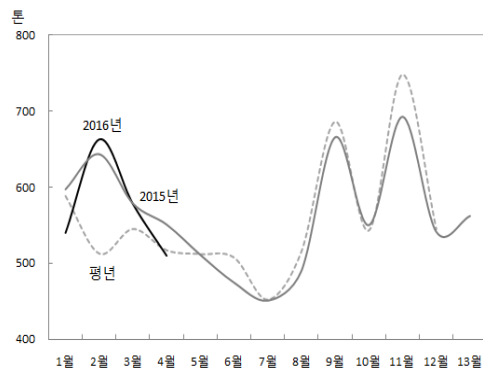
- 2016년 고랭지배추 재배의향
 -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 결과, 2016년 고랭지배추 재배(의향) 면적은 작년 출하기 가격이 낮아 전년(4,721ha)과 평년(5,119ha)보다 각각 2%, 9% 감소한 4,646ha가 될 것으로 전망됨.

2.2. 무

무 도매가격 동향(상품)



무 반입량 동향



주: 일별 가격 및 반입량은 5일 이동 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2011~2015년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016년 1/4분기 동향
 - 1/4분기 무 평균 도매가격은 월동무 생산량 감소로 전년 및 평년 동기보다 각각 51%, 49% 높았음.

- 월별 가격은 1월 10,460원/18kg, 2월 11,370원/18kg, 3월 14,250원/18kg으로 나타났음. 1월 하순 월동무 주산지 한파와 폭설로 작황이 나빠지면서 출하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됨.

* (금년) 12,030원/18kg, (전년) 7,980원/18kg, (평년) 8,090원/18kg

● 2016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봄무 생산량은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12%, 1% 많은 12만 4천 톤으로 전망됨.

* 시설봄무 생산량(추정 단위): 재배면적과 단위 증가로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49%, 13% 증가한 1만 8천 톤 전망

* 노지봄무 생산량(평년 단위): 재배면적 증가로 전년보다 7% 증가하나, 평년보다 1% 감소한 10만 7천 톤 전망

- 2016년 2/4분기 무 평균 도매가격은 가격이 낮았던 전년과 금년 1/4분기보다 높으나, 5~6월은 4월 대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4~5월 무 가격은 월동무 출하량 감소로 전년과 평년 동월보다 높으나, 6월은 봄무 출하량이 많아 전년보다 낮고 전월보다 하락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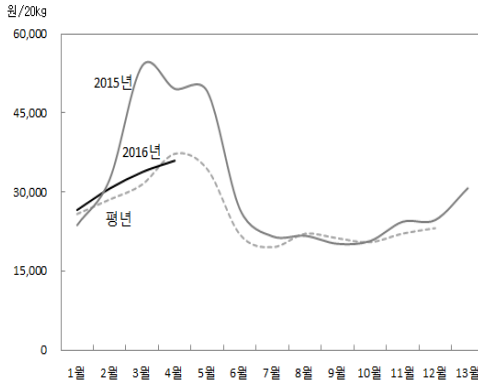
* 그러나 5~6월 기상 변화에 따른 봄무 단위 변화로 가격 수준은 유동적일 전망

● 2016년 고랭지무 재배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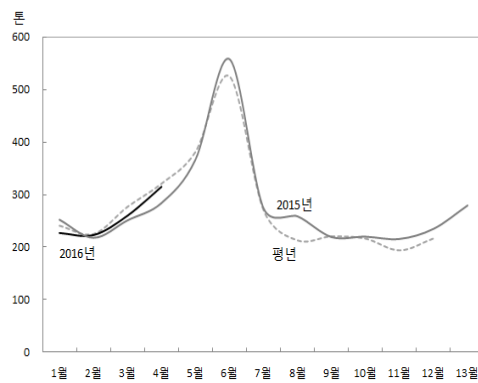
-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 결과, 2016년 고랭지무 재배의향면적은 최근 2~3년간 출하기 가격 약세와 금년 봄무 재배면적 증가, 주산지의 병해 확산 등으로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9%, 27% 감소한 1,795ha가 될 것으로 예상됨.

2.3. 감자

감자(수미) 도매가격 동향



감자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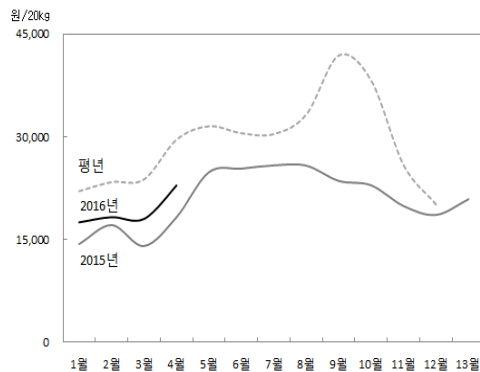
주: 일별 가격은 5일 이동 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2011~2015년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016년 1/4분기 동향
 - 1/4분기 감자(수미) 상품 평균 도매가격은 31,710원/20kg으로 평년과 비슷하나, 전년보다 14% 낮았음.
 - * (금년) 31,710원/20kg, (전년) 36,750원/20kg, (평년) 30,830원/20kg
 - * (1월) 20,570원/20kg, (2월) 30,660원/20kg, (3월) 33,690원/20kg
 - 시설봄감자 출하량은 감소하였으나, 저장고랭지감자 출하량이 증가하여 1/4분기 가격은 전년보다 하락하였음.
- 2016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봄감자 추정 생산량은 44만 3천 톤 내외로 평년보다 6% 감소하나, 전년보다 1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 시설봄감자 생산량: 평년보다 27% 감소하나, 전년과 비슷한 2만 6천 톤
 - * 노지봄감자 생산량: 평년보다 4% 감소하나, 전년보다 14% 증가한 41만 7천 톤
 - 작년 출하기 가격 상승으로 재배면적이 증가한 노지봄감자 출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2/4분기 감자(수미) 출하량은 전년보다 9%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4분기 가격은 노지봄감자 출하량 증가로 전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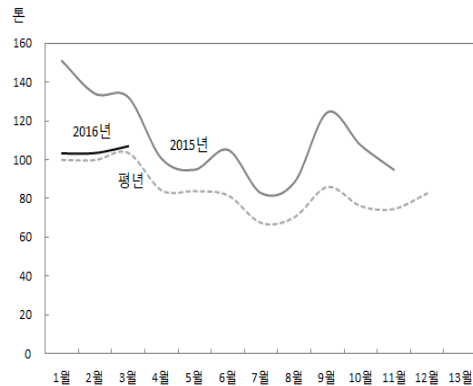
- 2016년 고랭지감자 재배의향
 -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 결과, 2016년 고랭지감자 재배(의향) 면적은 작년 출하기 가격 상승으로 작년(3,403ha)과 평년(3,646ha)보다 각각 9%, 2% 증가한 3,703ha가 될 것으로 예상됨.

2.4. 당근

당근 도매가격 동향(상품)



당근 반입량 동향



주: 일별 가격 및 반입량은 5일 이동 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2011~2015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6년 1/4분기 동향
 - 1/4분기 당근 평균 도매가격은 기상변화(한파, 폭설)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전년 동기보다 17% 높았지만, 평년 동기보다는 22% 낮았음.
 - 월별 가격은 1월 17,500원/20kg에서 3월 18,010원/20kg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음.
 - * (금년) 17,930원/20kg, (전년) 15,360원/20kg, (평년) 23,080원/20kg
- 2016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봄당근 생산량은 전년보다 5% 감소하나, 평년보다 50% 증가한 3만 4천 톤으로 전망됨.

- 따라서 2/4분기 당근 도매가격은 봄당근 출하량 감소로 전년보다 높으나, 평년보다는 낮을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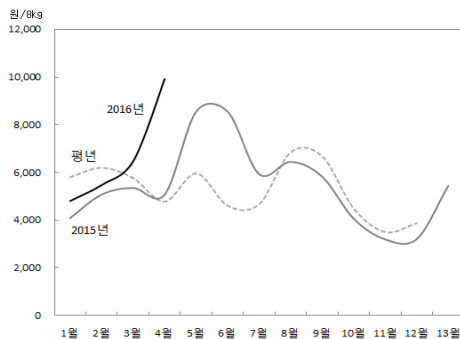
* 그러나 5~6월 기상 변화에 따른 봄당근 단수 변화로 가격 수준은 유동적일 전망

- 2016년 고랭지당근 재배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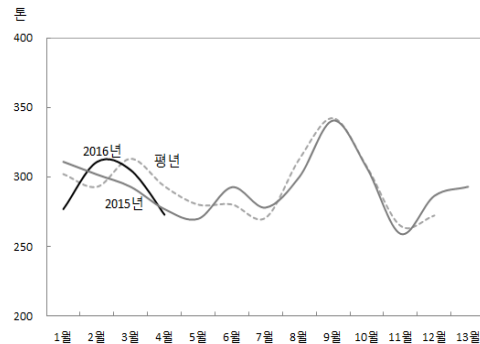
-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 결과, 무의 위황병 발생으로 무 재배 농가가 당근으로 작목전환을 선호하면서 2016년 고랭지당근 재배(의향)면적은 전년보다 7% 증가한 116ha가 될 것으로 전망됨.

2.5. 양배추

양배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양배추 반입량 동향



주: 일별 가격 및 반입량은 5일 이동 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2011~2015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6년 1/4분기 동향

- 1/4분기 양배추 평균 도매가격은 기상악화(한파, 폭설)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산지출하가 조기에 마무리 되면서 전년보다 15% 높으나, 평년 동기보다는 6% 낮았음.
- 월별 가격은 1월 4,800원/8kg에서 3월 6,460원/8kg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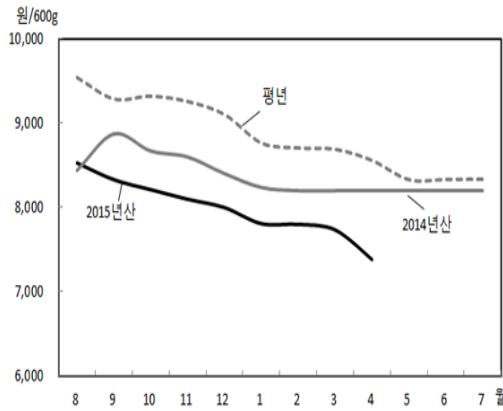
* (금년) 5,577원/8kg, (전년) 4,839원/8kg, (평년) 5,919원/8kg

- 2016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봄양배추 생산량은 전년보다 3% 증가하나, 평년보다 4% 감소한 6만 5천 톤으로 전망됨.
 - 2016년 2/4분기 양배추 도매가격은 4~5월이 전년보다 높으나, 6월은 전년보다 낮을 전망이다.
 - * 4~5월 가격은 겨울저장 및 시설봄양배추 출하량 감소로 전년(6,810원) 및 평년(5,362)보다 높고, 6월은 노지봄양배추 생산량 증가로 전년(8,540원)보다 낮을 전망
- 2016년 고랭지양배추 재배의향
 -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 결과, 2016년 고랭지양배추 재배(의향)면적은 전년도 출하기 가격이 높아 작년보다 5% 증가한 1,762ha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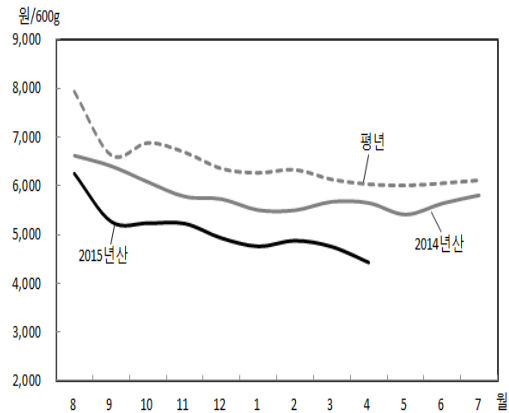
3. 양념채소⁸⁾

3.1. 건고추

화건 도매가격 동향(상품)



화건 산지가가격 동향(상품)



주 1) 평년 가격은 2010년 8월~2015년 7월의 최대, 최소를 뺀 연산 기준 평균임.

2) 도매가격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5대 도매시장의 평균 가격이며, 8월 가격은 햇건고추 가격 기준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안동농협 고추공판장.

● 2016년 1/4분기 동향

- 건고추(화건) 1/4분기 상품 600g당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과 평년 동기보다 각각 5%, 11% 낮은 7,780원이며, 서안동농협 고추 공판장 화건 상품 평균 산지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14% 낮은 4,790원이었음.

* 도매가격: (금년) 7,780원/600g, (전년) 8,210원/600g, (평년) 8,720원/600g

* 산지가격: (금년) 4,790원/600g, (전년) 5,560원/600g, (평년) 6,240원/600g

- 2015년산 공급량은 생산량이 증가하였고, 이월 재고량도 많아 전년보다 증가하였음.

8)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김성우 연구위원(swootamui@krei.re.kr), 송성환 전문연구원(song9370@krei.re.kr), 한은수(hanes012@krei.re.kr), 이형용(lhy2813@krei.re.kr), 노수정(nosu303y@krei.re.kr), 김라이(kimlai@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 2016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건고추 화건 상품 600g당 4월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10%, 전월보다 5% 낮은 7,380원임. 화건 상품 평균 산지가격은 전년과 평년에 비해 각각 22%, 27% 낮은 4,430원임.
 - 건고추 2/4분기 도매가격은 국내산 건고추 재고량 증가로 전년 동기(8,200원/600g)보다 낮고, 전분기(7,780원/600g)대비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2016년산 고추 재배의향면적은 건고추 산지가격 하락 등으로 2015년산보다 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 최근 지속된 건고추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노동력이 적게 드는 콩(땅콩 포함), 깨, 옥수수 외에 마땅한 대체작목이 없어 재배면적 감소폭은 크지 않을 전망
- * 지역별로는 영남이 6%로 가장 크게 감소하였으며, 호남이 4%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됨.
- * 재배방식별로는 멀칭과 터널재배가 2015년산 대비 각각 5%, 4% 감소하고, 비가림(하우스)재배는 정부 비가림 하우스 지원 정책에 의해 1% 증가할 것으로 조사됨.

2016년산 고추 재배의향면적 전년 대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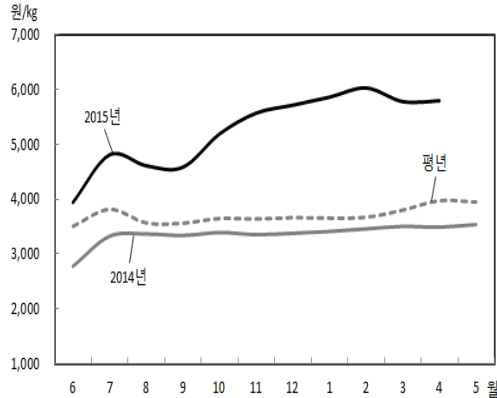
단위: %

	노지재배		비가림재배	전체
	멀칭	터널		
경기·강원	-2.9	-0.1	2.3	-2.4
영 남	-6.3	-2.2	0.2	-5.5
호 남	-3.7	-5.2	1.6	-4.2
충 청	-4.2	-0.9	1.1	-3.4
전 체	-4.6	-4.0	1.4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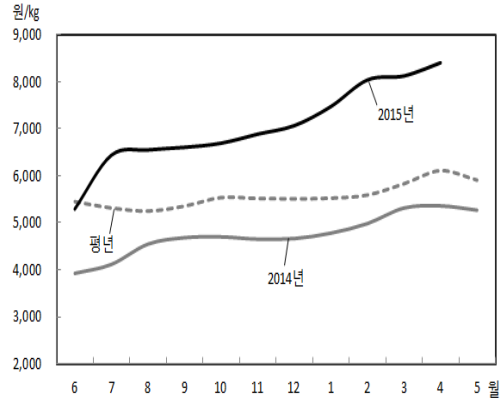
자료: 농업관측센터, 4월 20일 표본농가 조사치

3.2. 마 늘

난지형 마늘 도매가격 동향



간마늘 도매가격 동향



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5대 도매시장의 평균 가격이며, 평년 가격은 2010년 6월~2015년 5월의 최대, 최소를 뺀 연산 기준 평균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16년 1/4분기 동향

- 난지형 마늘 1/4분기 평균 도매가격은 2015년산 마늘 재고량이 적어 전년, 평년 동기보다 각각 70%, 59% 높은 수준이었음.
- 간마늘 도매가격은 2015년산 통(피)마늘 가격이 높아 전년 동기보다 57%, 평년 동기보다 39% 높은 수준이었음.

* 난지형 도매가격: (금년) 5,891원/kg, (전년) 3,459원/kg, (평년) 3,710원/kg

* 간마늘 도매가격: (금년) 7,878원/kg, (전년) 5,026원/kg, (평년) 5,649원/kg

● 2016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4월 난지형 마늘 도매가격은 재고량 감소로 전년, 평년보다 각각 66%, 46% 높은 kg당 5,800원이었음.
- 5~6월 마늘 가격은 국내산 마늘 재고량과 2016년산 마늘 생산량이 적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

* 4월 말 기준, 감모량을 감안한 2015년산 난지형 마늘 재고량은 약 1만 톤으로 전년, 평년보다 각각 30%, 23% 적은 수준임.

2015년산 난지형 마늘 추정 재고량

연산		입고량(톤)	출고량(톤)	감모량(톤)	재고량(톤)
2015		85,576	74,133	1,001	10,442
2014		105,354	88,929	1,487	14,938
평년		107,000	92,000	1,500	13,500
증감률 (%)	전년 대비	-18.8	-16.6	-32.7	-30.1
	평년 대비	-20.0	-19.4	-33.2	-22.6

주: 1. 재고량은 (입고량-출고량)에 감모율(2015년산 8.8%, 2014년산 9.1%, 평년 10.0%)을 적용한 국내산 기준이고, 정부와 농협의 비축·수매 통(피)마늘 물량이 포함됨.
 2. 평년 입고량과 재고량은 냉장협회의 월별 마늘 소요량 기준임.
 3. 재고량과 출고량은 4월 말 기준임.
 자료: 농업관측센터, 저장업체 표본 조사치.

● 2016년산 마늘 생산 동향

- 2016년산 마늘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1% 증가하였으나, 평년보다 19% 감소한 20,758ha로 확정 발표됨(통계청, 4월 28일).

* 품종별로 한지형이 전년 대비 11% 감소한 4,260ha, 난지형은 대서종을 중심으로 4% 증가한 16,498ha

* 난지형 마늘 가운데 남도종은 전년과 큰 차이가 없으나 2015년산 마늘 가격이 높아 대서종은 11% 내외 증가 추정

- 2016년산 마늘 생육은 전반적으로 좋은 수준임.

*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조사 결과(4. 20), 2016년산 마늘 생육은 전년 대비 '좋음' 54%, '비슷' 38%, '나쁨' 8%.

* 현재까지 기상여건이 좋아 2016년산 마늘 생육은 양호하고, 특히 난지형 대서종 마늘 생육은 매우 좋음.

2016년산 마늘 전년 대비 생육 상황

단위: %

구분	좋음	비슷	나쁨	전체
경기·강원	80.0	20.0	0.0	100.0
충청	28.3	59.2	12.5	100.0
호남	60.7	34.9	4.4	100.0
영남	61.2	30.8	8.0	100.0
제주	53.8	35.4	10.8	100.0
전체	54.2	38.1	7.8	100.0

자료: 농업관측센터, 4월 20일 표본농가 조사치.

- 2016년산 마늘 단위당 수확량은 전년보다 8~10% 증가할 전망이다.

*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 결과(4. 20), 2016년산 마늘은 생육 상황이 좋고, 단위당 수확량이 많은 난지형 대서종 마늘 재배 비중이 늘어 전년보다 8% 증가 전망

* 2016년산 마늘 10a당 예상단수는 조사치를 활용할 경우 1,399kg, 농업관측센터 단수예측모형은 1,419kg 추정

2016년산 마늘 단수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구분	경기·강원	충청	호남	영남	제주	전체
한지	2.4	6.1	0.4	0.7	-	2.5
난지	7.7	3.0	7.3	10.3	8.7	8.6
전체	2.5	4.3	7.1	8.8	8.7	8.4

자료: 농업관측센터, 4월 20일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2016년산 마늘 생산량은 전년 대비 10% 내외로 증가할 전망이다.

* 2016년산 마늘 생산량은 전년보다 10% 증가하나, 평년보다 11% 적은 29만 2천 톤 전망

* 난지형 마늘 가운데 대서종 생산량은 재배면적과 단수가 늘어 전년보다 20% 내외 증가하고, 남도종보다 생산량이 더 많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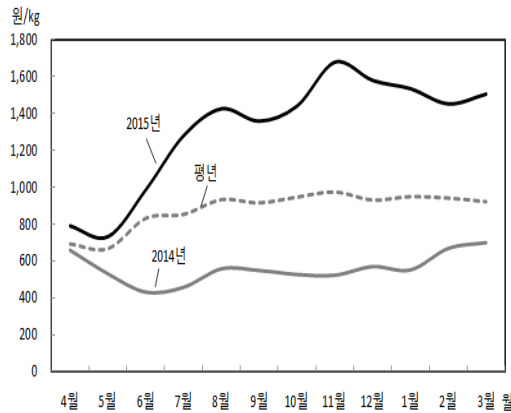
2016년산 마늘 추정 생산량

연산	재배면적(ha)	단수(kg/10a)	생산량(천톤)
2016	20,758	1,399~1,419	290.3~294.6
2015	20,638	1,290	266.3
평년	25,757	1,278	329.3
증감률 (%)	전년 대비	0.6	9.0~10.6
	평년 대비	-19.4	-11.8~-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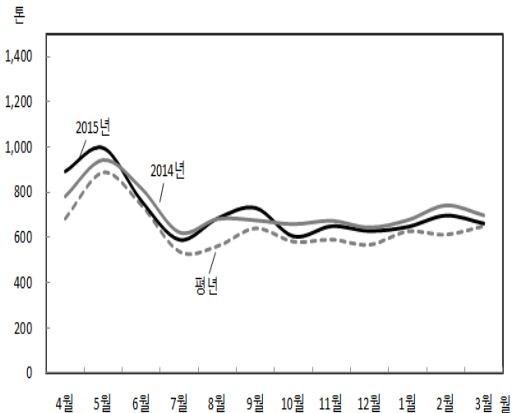
주: 2016년산 단수와 생산량은 농업관측센터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3.3. 양파

양파 도매가격 동향



양파 반입량 동향



주: 평년 자료는 2010년 4월~2015년 3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연산 기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6년 1/4분기 동향
 - 양파 1/4분기 상품 kg당 평균 도매가격은 2015년산 저장양파 감소로 평년 동기보다 60% 높은 1,500원이었음.
 - * (금년) 1,497원/kg, (전년) 639원/kg, (평년) 937원/kg
 - 4월 가격은 평년보다 85% 높은 1,280원/kg이었음. 그러나 순별 가격은 상승 1,640원/kg에서 하순 800원/kg으로 크게 하락하였음.
 - * 이는 2016년산 조생종 햇양파 출하가 4월 중순 이후 집중되면서 출하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2016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5월 양파 출하량은 전년보다 19% 많으나, 평년보다 4% 감소한 17만 4천 톤으로 추정됨.
 - 5월 평균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작년보다 낮으나, 4월 하순과 비슷한 700원/kg 내외로 전망됨.
 - 중만생종 양파의 출하량 감소가 예상되어 6월 가격은 5월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

5월 양파 출하량 추정

단위: 천 톤, %

	국내산 출하량	수입량	합계
2016	171.2	3.0	174.2
2015	144.2	2.8	147.1
평년	179.1	2.2	181.3
전년 대비	18.7	6.0	18.5
평년 대비	-4.4	36.5	-3.9

주: 국내산 출하량은 전국 도매시장의 월별 출하비중을 적용한 수치임.
자료: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 2016년산 양파 생산 동향

- 2016년산 양파의 전체 재배면적은 2015년산보다 10% 증가하나, 평년보다는 7% 감소한 1만 9,891ha로 확정 발표됨(통계청, 4월 28일).
- 2016년산 조생종 양파의 생산량은 단수가 감소하나, 재배면적이 증가하여 2015년산과 평년보다 각각 41%, 37% 많은 17만 8천 톤으로 전망됨.
 - * 2016년산 조생종 양파의 10a당 수확량은 2015년산보다 5% 적은 5,952kg이 될 것으로 조사, 전남지역은 2015년산보다 2% 증가하나, 제주는 26% 감소할 것으로 조사
 - * 특히, 작황이 부진한 제주는 정식시기에 잦은 비로 인한 습해 등으로 결주 및 노균병 발생이 증가
- 2016년산 중만생종 양파의 생산량은 2015년산보다 18% 증가하나, 평년보다는 7% 감소한 114만 6천 톤으로 전망됨.
 - *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결과(4. 20), 2016년산 중만생종 양파의 10a당 수확량은 2015년산보다 10%, 많은 6,629kg으로 조사
 - * 농촌진흥청 생육 조사결과 및 기상패턴을 분석한 결과, 10a당 수확량은 6,929kg으로 추정
- 2016년산 전체 양파 생산량은 조생종과 중만생종의 재배면적 증가로 2015년산보다 21% 많으나, 평년보다 3% 감소한 132만 4천 톤으로 전망

2016년산 양파 추정 생산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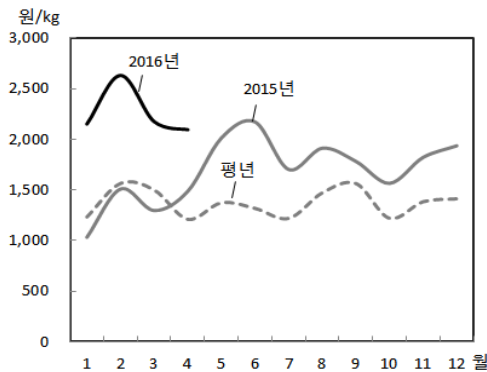
단위: ha, kg/10a, 천 톤, %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16	19,891	6,655	1,323.8
2015	18,015	6,072	1,093.9
평년	21,294	6,378	1,358.0
전년 대비	10.4	9.6	21.0
평년 대비	-6.6	4.4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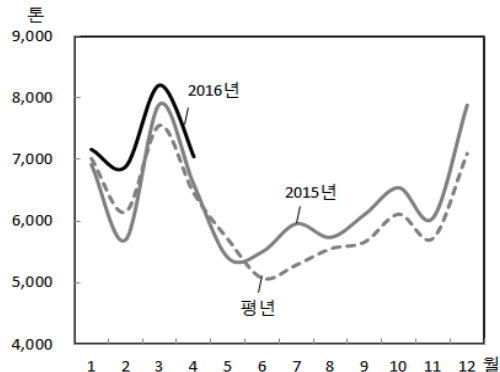
주: 2016년산 단수는 농가·모니터 조사결과와 분석치의 중간 값임.
자료: 통계청.

3.4. 대파

대파 도매가격 동향(상품)



대파 반입량 동향



주: 평년 자료는 2011년 1월~2015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6년 1/4분기 동향
 - 대파 1/4분기 상품 kg당 도매가격은 2,262원(중품 1,857원)으로 전년과 평년 동기대비 각각 70%, 64% 높았음.
 - 겨울대파 출하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가격은 하락세를 보임.
 - * (금년) 2,262원/kg, (전년) 1,330원/kg, (평년) 1,376원/kg
 - * (1월) 2,150원/kg, (2월) 2,630원/kg, (3월) 2,174원/kg

- 겨울대파 주산지인 진도, 신안군은 산지 폭설과 한파로 출하가 원활하지 않아 가격이 상승하였고, 가격 상승 후에는 출하가 빠르게 진행되어 전년보다 조기 종료됨.
- 영광 월동대파는 12월 출하량 증가로 3~5월 출하량이 감소하였으며, 출하 대기물량 감소로 조기 종료될 예정임.
- 2016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4월 상품 도매가격은 2,090원/kg으로 전년보다 41% 높으나, 전월 대비 4% 낮았음.
 - 2/4분기 출하량은 겨울(월동)대파 조기종료로 5월 중순까지 감소하나, 봄대파 재배면적이 증가하여 5월 중순 이후부터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가격은 겨울(월동)대파가 출하되는 5월 중순까지 전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나, 봄대파가 주로 출하되는 5월 중순 이후부터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 3~6월 대파 정식의향은 전년 출하기 가격 상승으로 전년보다 8% 증가할 것으로 조사됨.
 - 특히, 여름, 고랭지대파 주산지인 경기강원은 전년보다 13%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어 증가폭이 가장 컸으며, 대파 최대 주산지인 호남은 4%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어 출하량 증가가 예상됨.

3~6월 정식의향면적(7월~내년 5월 출하분)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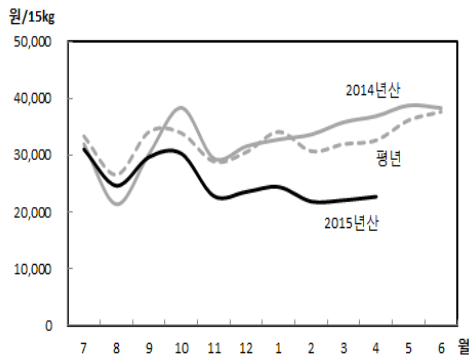
경기강원	충청	호남	영남	전체
13.1	6.7	4.2	7.1	7.8

자료: 농업관측센터, 4월 20일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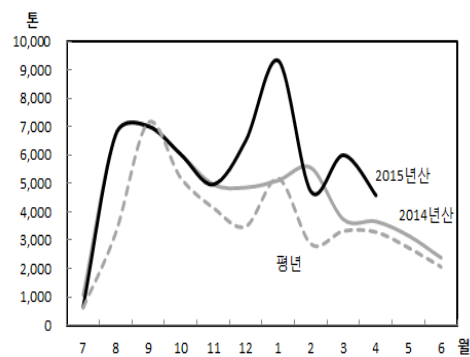
4. 과일⁹⁾

4.1. 사과

사과 도매가격 동향(상품)



사과 반입량 동향



주: 1) 평년은 2010~14년산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2) 도매가격은 7~8월 쓰가루, 9월 홍로, 10월 양광, 11월 이후 후지 기준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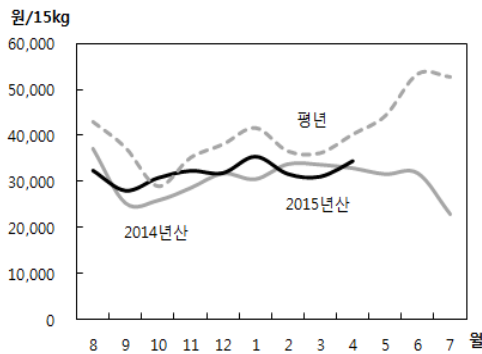
- 2016년 1/4분기 동향
 - 1/4분기 후지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저장량 증가로 출하량이 늘어 전년보다 33% 낮은 2만 3천 원(상품 10kg 상자)이었음.
- 2016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4월 후지 도매가격은 출하량이 많아 전년보다 39% 낮은 2만 3천 원(상품 10kg 상자)이었음.
 - 5월 이후 출하량도 전년보다 25%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가격은 당분간 전년 대비 약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9)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성명환 연구위원(mhsung@krei.re.kr), 신유선(shinys@krei.re.kr), 이미숙(ims1214@krei.re.kr), 강지석(jskang@krei.re.kr), 박지연(zyeon@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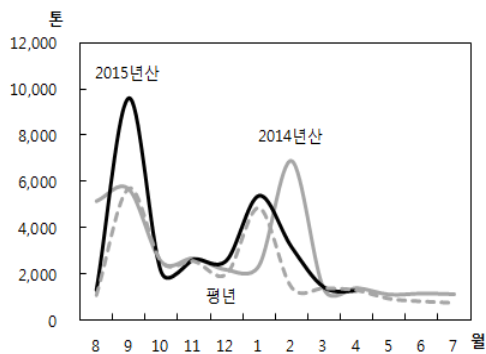
- 2016년 재배면적 추정
 - 2016년 사과 재배면적은 강원·경기·호남지역을 중심으로 신규식재가 많아 전년보다 2% 증가한 3만 2천 ha로 추정됨. 유목면적은 전년보다 5% 증가하고, 성목면적은 1% 늘어날 것으로 파악되었음.

4.2. 배

배 도매가격 동향(상품)



배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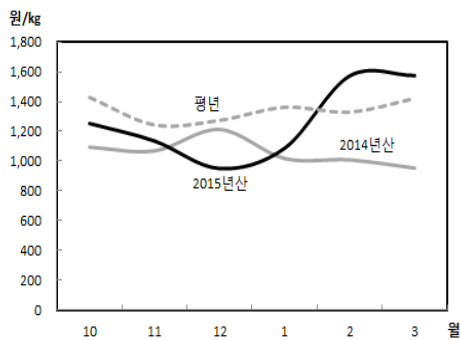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0~14년산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016년 1/4분기 동향
 - 1월 신고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설 성수기 영향으로 전년보다 16% 높은 3만 5천 원(상품 15kg 상자)이었음. 2~3월은 배 출하량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체과일인 사과, 오렌지 물량이 많고, 배 소비도 부진하여 전년보다 7% 낮은 3만 1천 원이었음.
- 2016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4월 신고 도매가격은 출하량이 적어 전년보다 5% 높은 3만 4천 원(상품 15kg 상자)이었음. 5월 이후 출하량도 전년보다 17% 적을 것으로 전망되어 가격이 전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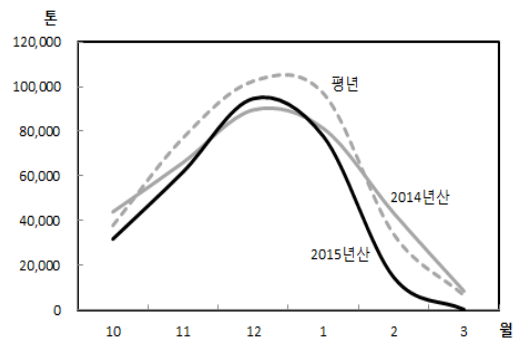
- 2016년 재배면적 추정
 - 2016년 배 재배면적은 농가 고령화와 도시개발 등으로 인한 감소 추세가 이어져 전년보다 3% 감소한 1만 2천 ha로 추정됨. 품종별로는 신고와 원황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각각 3% 감소하는 반면, 국내육성 배 보급사업과 품종 다변화 시도로 신품종의 면적은 증가할 것으로 파악됨.

4.3. 감귤

감귤 도매가격 동향



감귤 출하량 동향



주: 평년은 2010~14년산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출하연합회.

- 2016년 1/4분기 동향
 - 1월 노지온주 평균도매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보다 7% 높은 1,090원/kg이었음. 2~3월은 출하량이 71% 감소하여 전년보다 57% 높은 1,570원/kg이었음.
- 2016년 2/4분기 전망
 - 5월 하우스온주 출하량은 전년보다 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는 극조기 가온 재배농가가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임. 6월 출하량도 전년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2016년 재배면적 추정
 - 2016년 감귤 재배면적은 2만 500ha로 전년보다 0.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품종별로는 노지온주가 전년보다 1% 줄어든 반면, 월동온주와 만감류는 각각 2%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4.4. 포도

- 2016년 재배면적 추정
 - 올해 포도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7% 감소한 1만 4천 ha로 추정됨. 이는 최근 포도 가격이 낮아 2015년에 FTA 폐업지원을 신청한 농가가 많았기 때문임. 재배형태별로는 노지재배가 전년보다 7%, 시설재배는 6% 감소할 것으로 파악됨. 지역별로는 폐업지원 신청이 특히 많았던 충청과 영남지역이 전년보다 각각 7%, 9%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2016년 2/4분기 전망
 - 4~5월과 6월 시설포도 출하면적은 가온재배면적 감소로 인해 전년보다 각각 9%, 2%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7월 이후 출하면적도 무가온재배면적이 줄어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4.5. 복숭아

- 2016년 재배면적 추정
 - 2016년 복숭아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4% 증가한 1만 7천 ha로 추정됨. 유목면적은 신규식재 증가로 전년보다 4%, 성목면적은 유목의 성목전환으로 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품종별로는 천도계가 2% 증가하였고, 숙기별로도 조중만생종 모두 각각 2%씩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최근 몇 년 간 노동력 절감 등의 이유로 조중생종의 면적 증가가 주도적이었으나, 올해는 만생종도 증가하였음.
- 유모계 복숭아는 전년보다 5%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숙기별로는 조생종이 4%, 중만생종은 각각 5% 증가한 것으로 예상됨. 농가에서 성출하기 가격 하락 손실을 줄이고자 조생종과 만생종 식재를 늘린 것으로 파악되었음.

2016년 복숭아 재배면적 추정

단위: ha,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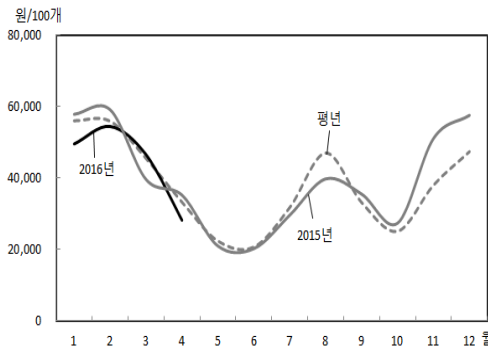
	유목면적	성목면적	전체
2016년	6,149	11,246	17,394
2015년	5,893	10,811	16,704
증감률	4.3	4.0	4.1

자료: 통계청(2015년),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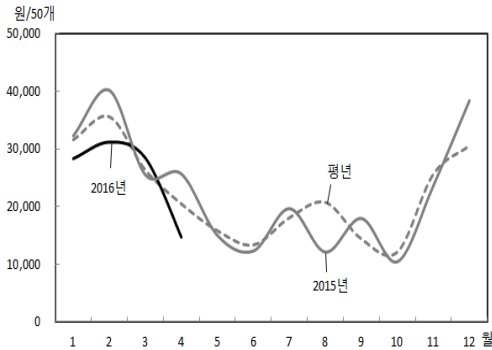
5. 과채¹⁰⁾

5.1. 오 이

백다다기오이 도매가격 동향(상품)



취청오이 도매가격 동향(상품)



주: 평년은 2011~2015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016년 1/4분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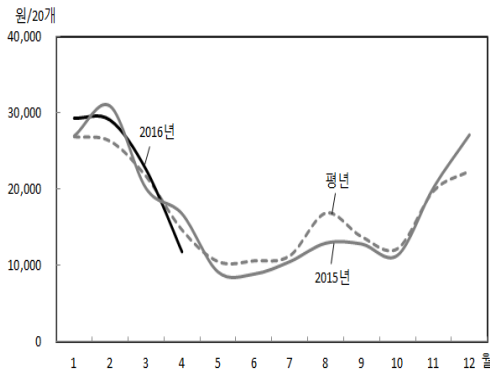
- 백다다기오이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00개에 1월 4만 9,600원, 2월 5만 4,500원, 3월에는 4만 6,600원이었음. 1/4분기 평균가격은 5만 200원으로 전년과 평년 동기보다 4%씩 낮았음.
- 겨우내 부진했던 기상여건이 회복되면서 확대된 재배면적에서 출하가 이어져 백다다기오이 1/4분기 반입량은 전년 동기보다 5% 많았음.
- 취청오이 도매가격은 상품 50개에 1월에는 2만 8,300원, 2월 3만 1,200원, 3월은 2만 8,400원이었음. 기상 회복으로 반입량이 증가하면서 1/4분기 평균가격은 전년과 평년 동기보다 각각 10%, 6% 낮은 2만 9,300원이었음.
- 출하량이 감소했으나 기상 회복으로 원활해진 출하가 가락시장으로 집중되면서 취청오이 1/4분기 반입량은 전년 동기보다 6% 많았음.

10)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성명환 연구위원(mhsung@krei.re.kr), 신성철(ssc0729@krei.re.kr), 김창수(kcs87@krei.re.kr), 이병훈(postino@krei.re.kr), 최기림(somang89@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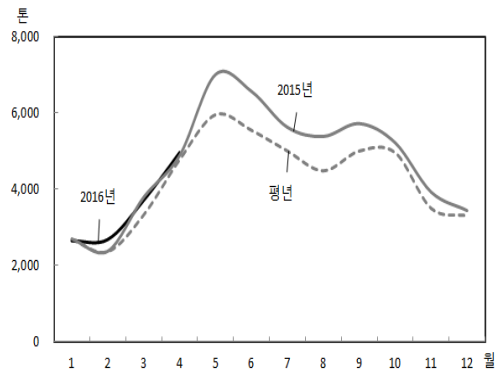
- 2016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4월 백다다기오이 도매가격은 기상여건이 호조세로 급격하게 전환되어 전년 동기보다 20% 낮은 상품 100개에 2만 8,200원이었음.
 - 주산지인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출하면적이 확대되고, 강원지역의 출하가 일부 빨라져 기상이변이 없는 한 5~6월 백다다기오이 출하량은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재배면적 감소와 기상 악화로 출하량이 감소하였으나, 백다다기오이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가격이 동반 하락하여 4월 취청오이 도매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43% 낮은 상품 100개에 1만 4,700원이었음.
 - 호남지역 재배면적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출하비중이 확대되는 충청지역에서 재배면적이 소폭 증가하여 취청오이 4~5월 출하량 감소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5.2. 애호박

애호박 도매가격 동향(상품)



애호박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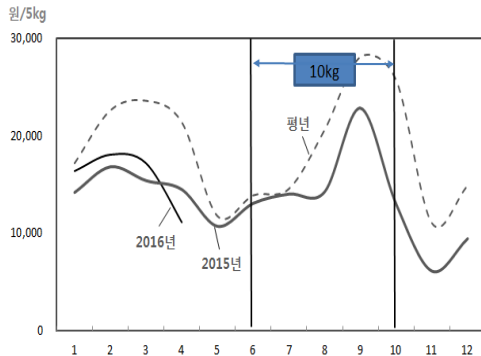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1~2015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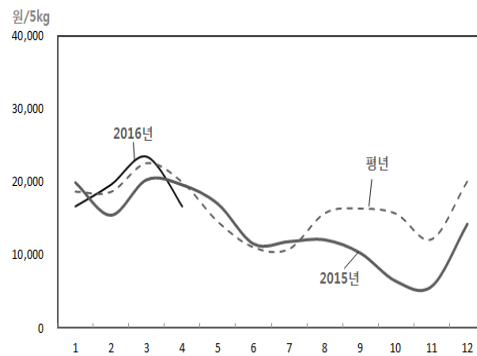
- 2016년 1/4분기 동향
 - 애호박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20개에 1월 2만 9,300원, 2월 2만 9,100원, 3월에는 2만 2,600원이었음. 작년 11~12월에 계속된 기상 악화로 부진했던 생육이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4분기 평균가격은 전년과 평년 동기보다 각각 4%, 8% 높은 2만 7천원이었음.
 - 1/4분기 반입량은 주산지인 영남지역의 시설재배면적이 증가하였으나, 생육 부진 회복세가 더더 전년 동기보다 2% 적었음.
- 2016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반입량이 증가했으나 이른 고온과 큰 일교차로 무름과가 발생하는 등 품질이 저하되면서 4월 애호박 도매가격은 하락 폭이 커져 전년과 평년 동기보다 각각 30%, 20% 낮은 상품 20개에 1만 1,800원이었음.
 - 5~6월에는 강원 일부 지역의 출하가 빨라지고, 충청지역에서도 출하가 이어져 기상이변이 없는 한 출하량은 전년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5.3. 토마토

일반토마토 도매가격 동향(상품)



방울토마토 도매가격 동향(상품)



주: 평년은 2011~2015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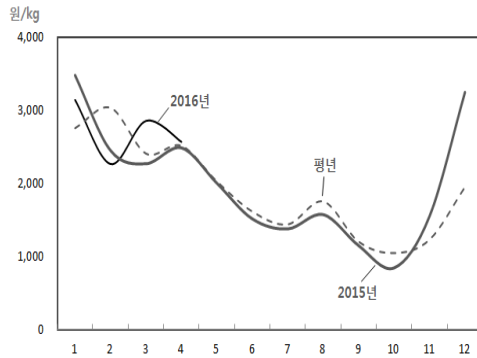
● 2016년 1/4분기 동향

- 일반토마토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5kg 상자에 1월이 1만 6,400원, 2월 1만 8천원, 3월에는 1만 7,200원이었음. 1/4분기 평균가격은 1만 7,2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1% 높았음.
- 주산지에서 재배면적이 증가하였으나 겨울철 기상여건 악화로 일반토마토 1/4분기 반입량은 전년보다 12% 적었음.
- 원형 방울토마토 도매가격은 상품 5kg 상자에 1월이 1만 6,700원, 2월 1만 9,600원, 3월에는 2만 3,500원이었음. 1/4분기 평균가격은 1만 9,9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7% 높았음.
- 대추형 방울토마토 도매가격은 상품 3kg 상자에 1월에는 1만 7,300원, 2월 1만 8,200원, 3월은 1만 8,600원이었음. 1/4분기 평균가격은 1만 8천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4% 높았음.
- 재배면적 변화는 많지 않았으나 겨울철 기상여건 악화로 출하량이 감소하여 방울토마토 1/4분기 전체 반입량은 전년보다 5% 적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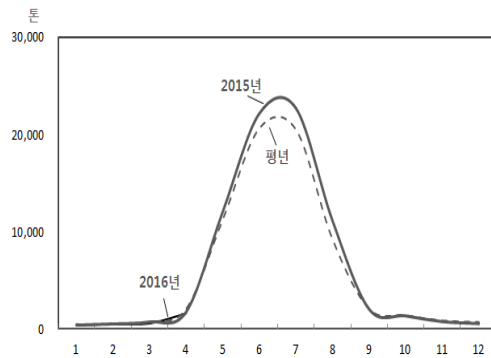
- 2016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4월 일반토마토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보다 23% 낮은 1만 1,100원(상품 5kg 상자)이었음.
 - 주 출하지에서의 면적 변화가 많지 않겠으나, 봄철 기상여건 호조로 작황이 좋아 5~6월 일반토마토 출하량은 전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됨.
 - 4월 원형 방울토마토 도매가격은 주산지에서의 재배면적 확대로 출하량이 증가하여 전년보다 15% 낮은 1만 6,700원(상품 5kg 상자)이었음.
 - 4월 대추형 방울토마토 도매가격도 전체 방울토마토 출하량 증가로 전년보다 5% 낮은 1만 3,900원(상품 5kg 상자)이었음.
 - 5~6월 전체 방울토마토 출하량은 주산지에서 기상여건 호조로 작황이 좋아 전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됨.

5.4. 수박

수박 도매가격 동향(상품)



수박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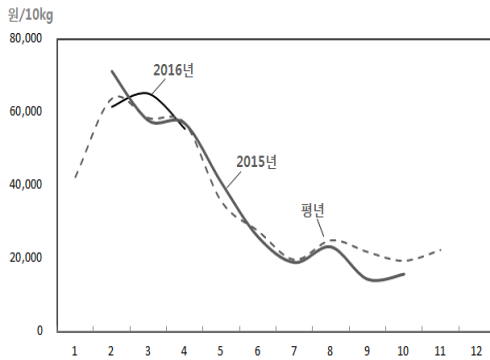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1~2015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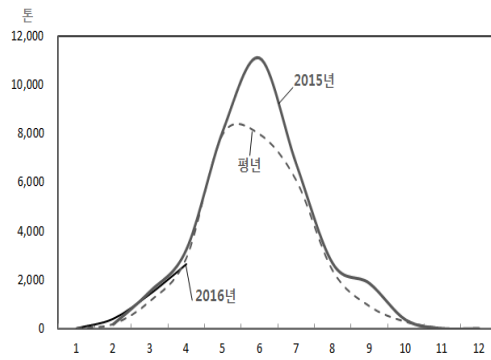
- 2016년 1/4분기 동향
 - 수박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kg에 1월에 3,100원, 2월 2,300원, 3월 2,900원이었음. 1/4분기 평균가격은 2,800원으로 전년보다 1% 높았고, 평년과는 비슷한 수준이었음.
 - 영남지역의 재배면적 감소와 충청지역에서의 기상여건 악화로 인해 1/4분기 반입량은 전년보다 10% 적었음.
- 2016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4월 수박 평균도매가격은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3%, 2% 높은 2,600원(상품 1kg)이었음.
 - 5월 수박 출하량은 주 출하지인 충청지역에서 출하가 앞당겨져 출하량이 증가하겠으며, 6월 출하량은 5월 조기출하 영향과 타 작목 전환 농가 증가로 인해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5월 가격은 다소 낮고, 6월 가격은 높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됨.

5.5. 참외

참외 도매가격 동향(상품)



참외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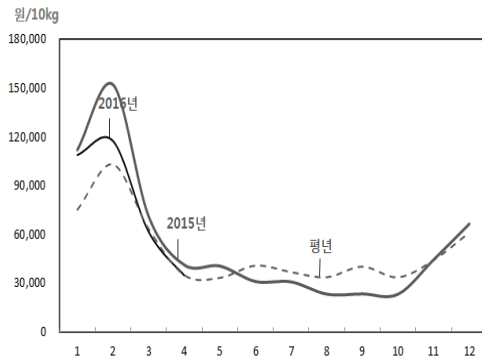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1~2015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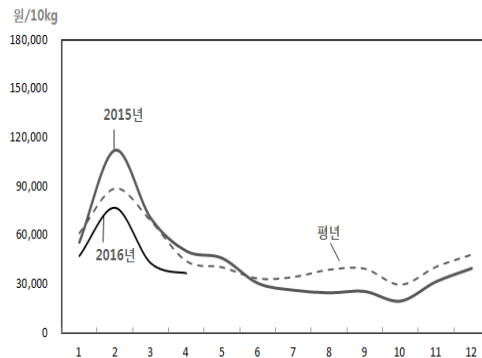
- 2016년 1/4분기 동향
 - 참외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0kg 상자에 2월 6만 1,400원, 3월 6만 5,100원이었음. 1/4분기 평균가격은 6만 3,300원으로 전년보다 2% 낮았으나, 평년보다는 15% 높았음.
 - 조기정식 영향으로 인해 2월 반입량이 급증하여 1/4분기 반입량은 전년보다 8% 많았음.
- 2016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4월 평균도매가격은 5만 5,400원(상품 10kg 상자)으로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3%, 2% 낮았고, 반입량은 2,600톤으로 전년보다 16% 많았음.
 - 전체 참외 재배면적이 감소하였으나, 4월에 출하 지연된 물량이 5월로 집중되어 5월 출하량은 전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됨. 6월 출하면적은 전년보다 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5.6. 풋고추

청양계 풋고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녹광풋고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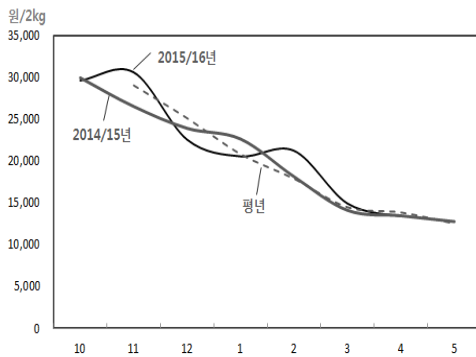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1~2015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016년 1/4분기 동향
 - 청양계풋고추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0kg 상자에 1월 10만 8,900원, 2월 11만 7,500원, 3월에는 6만 1,600원이었음. 1/4분기 평균가격은 9만 4,0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4% 낮았음.
 - 일조량 부족으로 작황이 부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 출하지인 영남지역에서의 재배면적 확대로 청양계풋고추 1/4분기 반입량은 전년 동기보다 2% 많았음.
 - 녹광풋고추 도매가격은 상품 10kg 상자에 1월에는 4만 7,200원, 2월 7만 6,900원, 3월은 4만 2,800원이었음. 1/4분기 평균가격은 5만 4,5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9% 낮았음.
 - 출하비중이 큰 영남지역에서 재배면적이 감소한데다 기상 악화로 작황이 좋지 못해 녹광풋고추 1/4분기 반입량은 전년 동기보다 21% 적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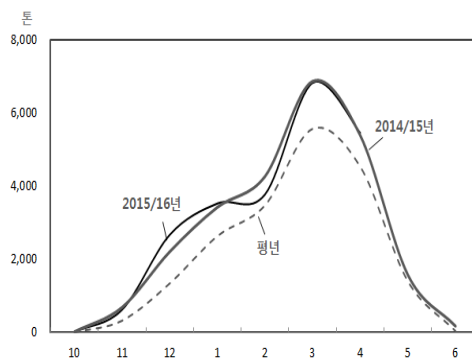
- 2016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4월 청양계꽃고추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16% 낮은 3만 4,900원(상품 10kg 상자), 녹광꽃고추는 작년보다 29% 낮은 3만 6,600원(상품 10kg 상자)이었음.
 - 청양계꽃고추 4월 반입량은 영남지역의 정식면적 증가로 전년보다 9% 많았음. 반면, 녹광꽃고추는 주산지인 영남지역에서 재배가 용이한 오이맛, 룡그린 등으로 품종 전환한 농가가 많아 전년보다 15% 적었음.
 - 5~6월 청양꽃고추 출하량은 영남지역의 재배면적 증가로 기상 이변이 없는 한 전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됨. 녹광꽃고추는 영남지역과 충청지역에서의 정식면적 축소로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5.7. 딸기

딸기 도매가격 동향(상품)



딸기 반입량 동향



주: 평년은 2011~2015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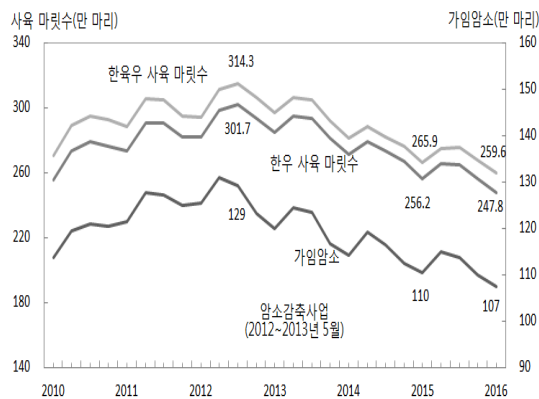
- 2016년 1/4분기 동향
 - 딸기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2kg 상자에 1월에는 2만 600원, 2월 2만 1,300원, 3월에는 1만 4,900원이었음. 1/4분기 평균가격은 1만 8,9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 높았음.

- 딸기 1/4분기 반입량은 전년보다 3% 적었음. 이는 딸기 재배면적이 증가했음에도 겨울철 기상여건 악화로 작황이 불량했기 때문임.
- 2016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4월 딸기 도매가격은 재배면적 확대로 출하량 늘어 전년보다 9% 낮은 1만 3,400원(상품 2kg 상자)이었음.
 - 5월 딸기 출하량은 재배면적이 확대되는데다, 연장재배가 가능한 고설식 재배면적 확대로 전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됨.

6. 축산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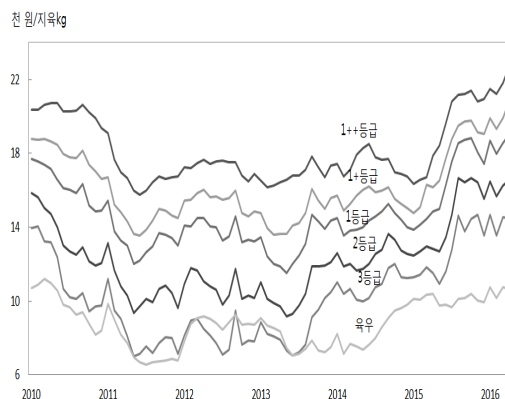
6.1. 한육우

한육우 사육 마릿수 추이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

한우 등급별 도매가격 추이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 2016년 1/4분기 동향

- 1세 이상 마릿수 감소로 3월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작년 12월(268만 마리)보다 3.0% 감소한 260만 마리였음(전년 동월 266만 마리보다 2.4% 감소).
 - * 3월 한육우 사육 마릿수 260만 마리, 한우 248만 마리, 육우 11만 8천 마리
 - * 가임암소 사육 마릿수 107만 마리(전년 동월 110만 마리)
- 설 수요 증가와 도축 감소로 1/4분기 한우 1등급 도매가격은 전분기(18,116 원/지육kg)보다 1.6% 상승한 18,414원임(전년 동기 14,150원보다 30.1% 상승).

11)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우병준 연구위원(bjwoo@krei.re.kr), 이형우(lhw0906@krei.re.kr), 한봉희(hanbh@krei.re.kr), 김형진(junjang00@krei.re.kr), 정세미(wjdtpal55@krei.re.kr), 이지혜(jhl@krei.re.kr), 박근아(pka@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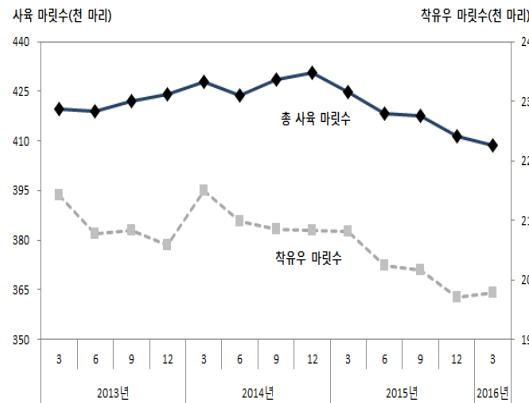
- 2016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도축 감소와 유통업체 할인행사로 4월 한우 1등급 도매가격은 1/4분기보다 3.6% 상승한 19,073원이었음(전년 동월 14,872원보다 28.2% 상승).
 - 계절적으로 송아지 생산이 늘어 6월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3월보다 4.0% 증가한 270만 마리로 전망됨(전년 동월 275만 마리보다 1.7% 감소).
 - 5~6월 한우 1등급 도매가격은 1/4분기 대비 강보합 수준인 18,000~20,000원으로 전망됨(전년 동기 15,642원보다 15~28% 상승).

한육우 사육 마릿수와 한우 1등급 도매가격 전망

	3월(A)	6월(B)	B/A
사육 마릿수	260만 마리	270만 마리	4.0%
1등급 도매가격 (지육kg)	1~3월 18,414원	5~6월 18,000~20,000원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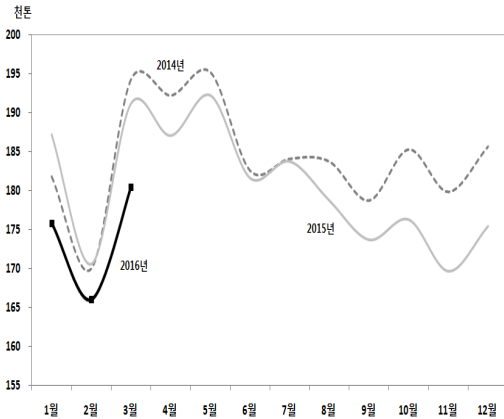
6.2. 젓소

사육 동향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

원유 생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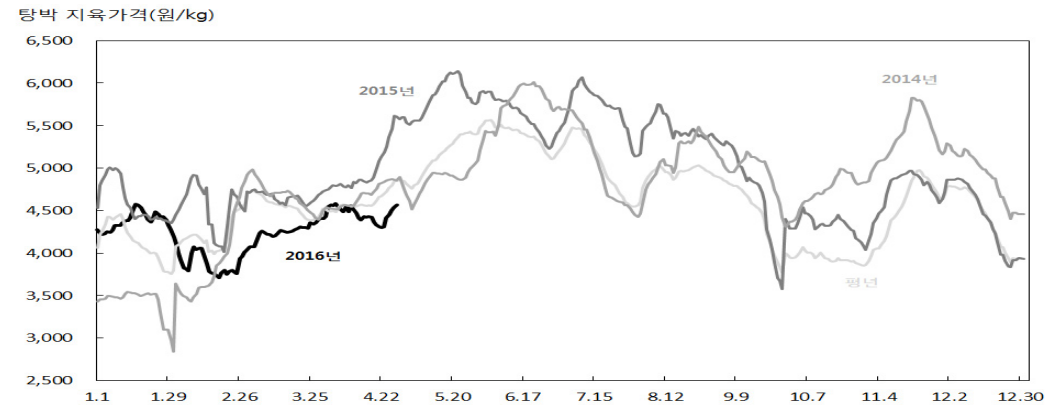


자료: 낙농진흥회.

- 2016년 1/4분기 동향
 - － 원유 감산 대책인 착유우 도태의 영향으로 3월 젓소 사육 마릿수는 전년 동기 보다 3.8% 감소한 40만 9천 마리였음. 착유우 마릿수는 전년 동기보다 4.9% 감소한 19만 8천 마리임.
 - － 착유우 마릿수 감소로 1/4분기 원유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4.9% 감소한 52만 2천 톤임. 반면, 1/4분기 배합사료 생산량은 전년 동기보다 0.6% 증가한 32만 9천 톤이었음. 이는 내년 원유 생산량 급감 현상을 대비하여 낙농가의 송아지 입식이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 2016년(2월 기준) 분유재고량은 2015년보다 11.1% 감소한 1만 9,539톤임. 전년보다는 감소하였지만 2014년 동월 대비 52.2%가 많아 여전히 분유재고량 해소가 시급한 상황임.
- 2016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 원유 생산 감소 추세가 지속되어 2/4분기 원유 생산량은 전년 동기보다 4.5~5.4% 하락한 53만 1천~53만 6천 톤으로 전망됨.

6.3. 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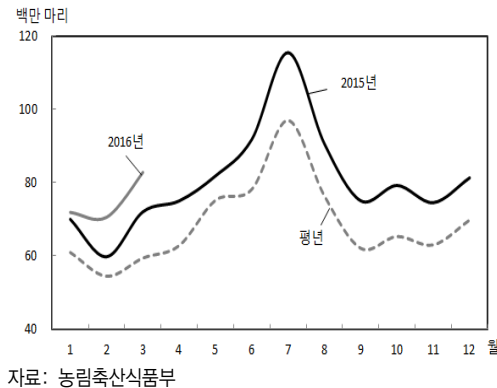
돼지 도매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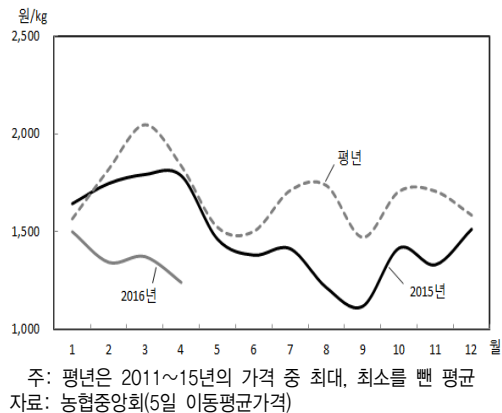
- 2016년 1/4분기 동향
 - 2016년 3월 모든 사육 마릿수는 전년 동월보다 3.0% 증가한 96만 8천 마리였음. 모든 증가에 따른 자돈 생산 증가로 총 사육 마릿수는 전년 동월보다 3.4% 증가한 1,032만 마리임(통계청).
 - 사육 마릿수 증가로 1/4분기 도축 마릿수는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한 422만 마리였음(축산물품질평가원).
 - 도축 마릿수 증가로 돼지고기 생산량이 증가해 1/4분기 돼지 도매가격은 전년(4,655원)보다 10.0% 하락한 탕박 기준 지육 kg당 4,187원이었음.
- 2016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자돈 생산 증가로 2/4분기 도축 마릿수는 전년보다 4.6% 증가한 387만 마리로 전망됨.
 - 도축 마릿수 증가로 돼지고기 생산량이 증가해 2016년 2/4분기 돼지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월별로 보면 4월 4,445원/kg, 5월 4,400~4,700원/kg, 6월 4,600~4,900원/kg으로 전망됨.

6.4. 육계

도계 마릿수 추이



육계 산지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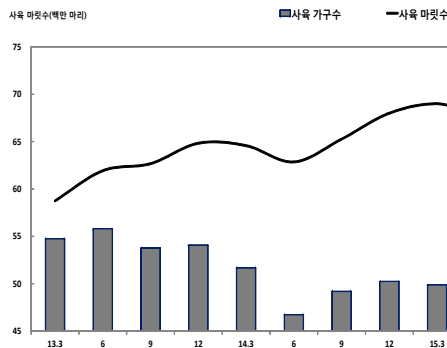


- 2016년 1/4분기 동향
 - － 2016년 1/4분기 육용 종계 성계 사육 마릿수는 2015년 상반기 과다 입식된 병아리의 산란 가담으로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종계 총 사육 마릿수는 1/4분기 종계 병아리 입식 감소로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판단됨. 종계 성계 사육 마릿수 증가로 1/4분기 도계 마릿수는 전년 동기 대비 11.6% 증가한 2억 2,531만 마리임.
 - － 국내 닭고기 가격 하락 영향으로 브라질산 닭고기의 수입이 감소하여 1/4분기 검사실적 기준 닭고기 수입량은 전년 동기보다 32.1% 감소한 1만 4,448톤이었음.
 - － 도계 마릿수 증가로 육계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하락하였음. 2016년 1/4분기 평균 육계 산지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18.7% 하락한 1,405원/kg임.
- 2016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 종계 병아리 입식으로 추정된 병아리 생산잠재력 지수가 전년보다 높아 2/4분기 도계 마릿수도 전년 동기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2/4분기 도계 마릿수는 전년 동기보다 8.4% 증가한 2억 7,000만 마리로 예상됨.

- 4월 육계 산지가격은 닭고기 생산 증가로 전년보다 30.6%, 평년보다 32.5% 하락한 1,240원/kg임. 5~6월에도 닭고기 생산증가는 지속되어 육계 산지 가격은 낮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됨.
- 월별 가격은 4월 1,240원/kg, 5월 1,100~1,300원/kg, 6월 1,300~1,500원/kg으로 전망됨.
- 하반기 병아리 생산잠재력은 전년보다 하락할 것으로 추정됨. 이에 따른 기대심리로 종계 환우가 지속되고 있으며, 종계 도태는 크게 감소하였음. 하반기에도 닭고기 공급과잉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근시안적인 안목에서 벗어난 중장기적인 대책이 시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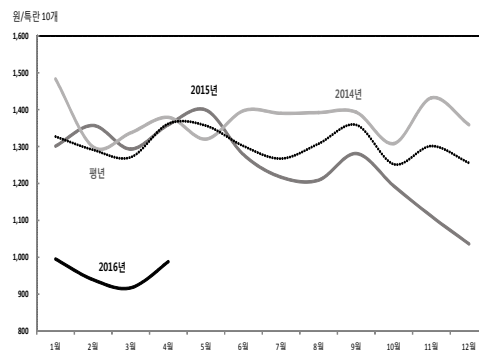
6.5. 산란계

산란계 사육현황



자료: 통계청

계란 산지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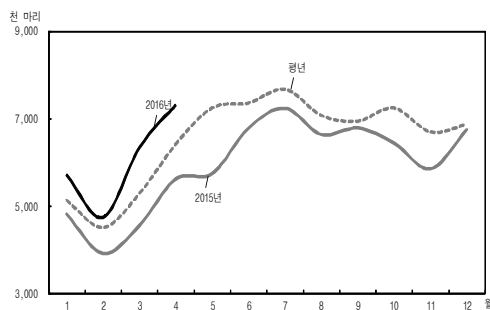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1~15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농협중앙회

- 2016년 1/4분기 동향
 - 2016년 1/4분기 6개월령 이상 마릿수 증가로 3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전년보다 1.9% 증가한 7,018만 마리였음.

- 산란 실용계 병아리 입식은 1,106만 마리로 전년보다 7.8% 감소하였으나, 산란 성계도태는 전년보다 29.7% 증가한 1,082만 마리였음.
- 계란 생산량 증가로 1/4분기 계란 산지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27.8% 하락 (평년 대비 26.7% 하락)한 950원(특란 10개)이었음.
- 2016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2/4분기 산란 가담 신계군 증가로 6개월령 이상 산란계 마릿수는 전년보다 증가할 전망이다.
 - 병아리 입식 증가로 계란 생산량은 전년보다 증가할 전망이다.
 - 계란 공급 증가로 2/4분기 평균 계란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하락한 850~950원(특란 10개)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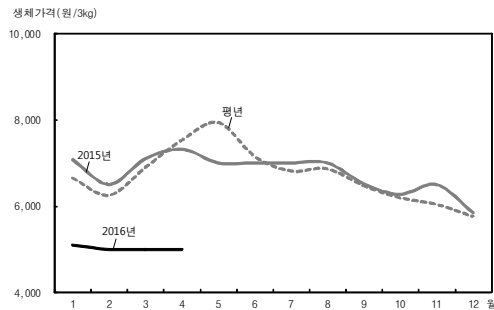
6.6. 오리

오리 도입 마릿수



주: 평년은 2010~15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오리 생체 가격 동향



주: 평년은 2010~15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한국오리협회

- 2016년 1/4분기 동향
 - 3월 오리 사육 마릿수는 전년 대비 23.8% 증가한 951만 마리임. 이중 종오리는 전년보다 4.8% 증가한 76만 마리이며, 육용오리는 전년 대비 25.8% 증가한 876마리임.

- 육용오리 입식 증가로 1/4분기 도압 마릿수는 전년에 비해 26.5% 증가한 1,677만 마리임.
- 오리고기 생산량 증가로 1/4분기 오리 생체가격(3kg)은 전년 동기보다 27.0% 하락(평년 대비 33.2%)한 5,032원이었음.
- 2016년 2/4분기 전망
 - 종오리 입식 증가로 2/4분기 도압 마릿수는 전년보다 22.7% 증가한 2,225만 마리로 전망됨.
 - 도압 마릿수 증가에 따른 오리고기 생산량 증가로 2/4분기 오리 생체가격은 전년 대비 하락한 5,200~6,000원/3kg으로 전망됨.



특별주제

- ① 이슬람권 농식품 시장수출 동향 및 잠재성
- ② 한·미 FTA 발효 4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과제
- ③ 귀농·귀촌의 국내외 성공사례 조사 분석:
지역개발과 6차 산업화 중심

이슬람권 농식품 시장수출 동향 및 잠재성*

김경필**, 한정훈***

1. 분석 배경

- 정부는 제2의 중동진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외교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협력분야도 확대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도 이슬람권 시장으로 농식품 수출을 확대시킴으로써 국내 농식품 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할랄식품 산업기반 강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음.
- ‘할랄(Halal)’은 아랍어로 ‘허용된 것’, ‘무슬림이 먹어도 되는 음식’을 의미하며, 할랄식품이 되기 위한 요건은 원료, 생산 장소 및 시설, 공정, 저장, 수송, 판매, 서비스, 섭취단계까지 모든 제품별, 단계별로 매우 까다로운 편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농식품이 이슬람권 시장으로의 진출노력을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하는 이유는 세계 이슬람권 시장 규모와 한국 농식품의 이슬람권 시장 수출 성장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도 이슬람권 시장 성장 전망이 매우 밝기 때문임.¹⁾

* 본고는 「현안분석 -제 6호 이슬람권 농식품 시장 수출 동향 및 잠재성」을 참고하여 요약·정리한 것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kkphil@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madam4007@krei.re.kr)

1) 본 고에서의 이슬람권 수출국가는 할랄식품 수출시장을 포함하는 의미임.

- 2020년대에는 무슬림이 전 세계 인구의 3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될 정도로 무슬림 인구 증가속도가 빠르며, 이에 따라 할랄식품 시장 성장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할랄식품은 주로 이슬람국가에서 소비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할랄식품이 엄격한 인증절차를 거쳐 생산되므로 위생적이고 윤리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친환경, 동물복지, 채식에 관심이 많은 유럽, 북미 등의 비(非)무슬림 소비자 중심으로 또 하나의 중요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음.²⁾
- 할랄식품은 성분, 위생 측면에서 엄격한 검사과정을 거쳐서 깨끗하고 안전한 식품이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비무슬림에게도 선호되고 있음.
 - ‘The State of the Global Islamic Economy 2014~2015’에 따르면 할랄 식음료 시장은 2013년 1조 2,920억 달러(세계 식음료 시장의 17.7%)에서 2019년 2조 5,370억 달러(세계 식음료 시장의 21.2%)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됨.
 - 호주, 브라질 등 낙농국가나 무슬림 거주인구가 많은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등 유럽 국가,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은 할랄산업에 적극 대처하여 할랄 제품의 주요 수출국으로 부상함.
 - 일본은 230개 업체가 할랄제품 도입에 적극적이며, 일부는 말레이시아에 현지공장을 설립하여 할랄 식재료, 식품, 어육 가공제품을 생산 중임.
 - 기존의 이슬람권 시장은 무슬림의 먹고 마시는 부분에 국한되었으나 현재는 화장품, 의약, 금융, 오락, 여행 등의 영역까지 확장함.
- 이와 같이 할랄식품 시장의 성장 추세에 부응하여 각국의 기업들은 할랄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다국적 기업은 할랄식품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음. 각국 정부도 할랄식품 산업 성장에 대비해 지원을 강화하는 추세인데, 특히 호주는 정부 주도 하에 할랄 인증기관의 안정시스템 확립, 이슬람식 도축제도 도입, 이슬람권 도축 관계자 입국비자 발급 간소화 등의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할랄식품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2) 이희열 외(2014)의 ‘할랄 인증제도와 할랄 인증 강화에 따른 우리의 과제’와 김철민(2015)의 ‘할랄식품시장의 의의와 동향’ 연구를 참고하여 작성함.

- 이슬람권 시장은 우리 농식품의 주요 수출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으므로 향후 수출시장 진출의 잠재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분석은 이슬람권 수출시장 성장 가능성에 대응하고 수출유망품목 발굴과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해 선결해야 하는 과정임. 이슬람 국가에 대한 수출잠재품목을 발굴하고 잠재시장 진출여건을 파악한 후 이들 품목들의 수출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생산기반 구축, 비관세장벽조치 완화, 마케팅추진 방안 등 정책적인 후속조치가 이어져야 함.
- 본 분석의 목적은 이슬람권 수출시장 진출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서 이슬람권 핵심 국가에 대한 농식품 수출시장의 잠재성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임.
- 한국 농식품의 이슬람권 시장 수출 유망지역은 동남아시아와 중동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음. 동남아시아는 할랄의식이 강하고 농식품 수출증가율이 전년대비 13.2%로 높으며, 한류에 대한 인지도 및 선호도가 높아지는 지역임. 중동 또한 구매력이 높은 부유층들이 많고 식품의 8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임.
- 이슬람권 수출시장 잠재성 및 잠재품목 발굴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음.
 - 첫째, aT kati(농수산물무역정보)의 ‘품목의 국가별 수출입실적’에서 분류하는 90개 중분류 가운데 고무류, 합판류, 가구류 등 국내 농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품목류를 제외한 28개 품목류³⁾를 선정함.
 - 둘째, 이들 28개 품목류를 신선농산물, 가공식품, 축산물로 구분한 후 이슬람 주요 5개 국가 평균수출액(최근 5년간 기준)이 높은 상위 3개 품목부류⁴⁾를 선정함(축산물은 2개 선정).
 - * 품목류별로 가장 높은 수출액을 나타낸 품목부류는 신선농산물 중에서는 채소류, 인삼류, 곡류, 가공식품 중에서는 커피류, 기타조제 농산품, 면류로 나타남. 축산물 중에서는 낙농품이 가장 높은 평균수출액을 기록함.
 - 셋째, 품목부류별로 최근 5년간 평균수출액이 높은 품목을 선별하고 이들 품목들 중심으로 국내산의 최근 5년간 수출동향을 살펴봄.

3) 품목류는 곡류, 과실류, 기타곡실류, 기타조제 농산품, 두류, 면류, 박류, 버섯류(농산물), 서류, 소오서류, 음료, 인삼류, 차류, 채소류, 채유종실, 커피류, 코코아류, 한약재(농산물), 화훼류, 버섯류(임산물), 산채류, 종자류, 가금육류, 기타 육류, 낙농품, 난류, 포유 가축육류, 한약재(축산물) 등으로 구분됨.

4) 8개 품목류를 선정할 때 수출증가율이 10% 이하인 품목류는 제외함.

- 넷째, 수출시장 잠재성을 살펴보기 위해 주요 이슬람 국가의 품목별 수입동향과 이슬람 권역 수출잠재품목 시장 비중을 살펴봄.
- 분석대상 국가는 가봉, 가이아나, 나이지리아, 레바논, UAE, 우즈벡, 이란, 이집트 등 이슬람협력기구(OIC, Organization of the Islamic Conference)에 속해 있는 57개 이슬람국가를 전체 이슬람권 시장 수출대상 국가로 설정하였음. 분석 자료는 무역협회(수출입 통계), aT의 농림수산물 수출입동향 및 통계, FAO STAT, UN Comtrade 등의 통계자료를 활용함.
- 그 중에서 우리 농식품 수출액 순위가 높으면서 자료 접근이 가능한 국가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이란 등 5개 국가를 구체적인 이슬람권 시장 분석대상 국가로 설정함.⁵⁾

2. 이슬람권 농식품 시장 수출 동향

2.1. 이슬람권역 수출 동향⁶⁾

- 한국의 농식품 총 수출액은 2014년을 기준으로 61억 8천만 달러이며, 2010년 대비 2014년에 51.5%가 증가함. 이 중 이슬람권 국가로의 수출액은 8억 6천만 달러로 34.9%가 증가한 수치임.
- 물량 기준으로도 전체 수출과 이슬람권 수출은 각각 5년 전에 비해 56.0%와 42.6%씩 증가함.
- 이슬람권역 국가로의 수출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국가 전체 수출액 증가율보다 낮지만 수출액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2014년 이슬람권역 수출액은 전년대비 29.1% 증가함.

5) 수출동향 분석대상 국가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란 등 5개 국가이며, 수출잠재성 분석 핵심 국가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3개 국가임.

6) 이슬람권역은 가봉, 가이아나, 나이지리아, 레바논, UAE, 우즈벡, 이란, 이집트 등 이슬람협력기구(OIC, Organization of the Islamic Conference) 57개국에 대한 수출실적이며, 이슬람권역 국가들을 전체 이슬람권 시장으로 가정하여 분석함.

이슬람권역 농식품 수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 %P

구분		2010년(A)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B)	B/A(%)
총 수출	금액	4,081.8 (23.8)	5,383.5 (31.9)	5,644.8 (4.9)	5,724.5 (1.4)	6,182.7 (8.0)	51.5
	물량	2,310.9 (16.6)	2,792.7 (20.8)	3,205.9 (14.8)	3,335.8 (4.1)	3,605.3 (8.1)	56.0
이슬람권 수출	금액	640.4 (23.3)	747.8 (16.8)	795.4 (6.4)	669.2 (-15.9)	863.8 (29.1)	34.9
	물량	250.1 (16.1)	274.5 (9.8)	324.8 (18.3)	273.8 (-15.7)	356.6 (30.2)	42.6
비중	금액	15.7 (-0.3)	13.9 (-11.5)	14.1 (1.4)	11.7 (-17.0)	14.0 (19.5)	-1.7
	물량	10.8 (-0.4)	9.8 (-9.2)	10.1 (3.1)	8.2 (-19.0)	9.9 (20.5)	-0.9

주: ()는 전년대비 증감율을 나타냄.

자료: aT kati

- 이슬람권 수출비중은 최근 5년 간 등락을 거듭했으며, 2014년에 이슬람권으로의 수출액 비중은 14.0%임. 이는 전년에 비해 19.5% 증가한 수치임.
- 주요 이슬람권 농식품 시장 5개국의 수출 동향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음. 2014년을 기준으로 5개 국가 가운데 아랍에미레이트(UAE)로의 농식품 수출이 3억 달러 이상으로 가장 많고,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순으로 수출액이 높음. 주요 이슬람권 시장 5개국으로의 총 수출액은 2010년 4억 2천만 달러 수준에서 2014년에는 7억 달러 이상으로 매우 빠르게 (69.3%) 증가함.
- 이슬람권 5개 주요 수출국가로의 수출액은 모두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특히, 이란으로의 수출은 2010년 대비 2014년에는 246.8% 증가하였고, 인도네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도 각각 105.5%와 92.7%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주요 이슬람권 시장 농식품 수출 동향

단위: 천 달러, %

	2010년(A)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B)	B/A(%)
인도네시아	93,963	121,513	151,929	167,360	193,069	105.5
말레이시아	65,589	95,805	79,196	82,205	102,701	56.6
사우디	18,862	21,581	41,258	33,359	36,345	92.7
UAE	220,801	190,675	224,521	191,696	304,505	37.9
이란	22,023	37,463	54,926	30,863	76,374	246.8
합계	421,238	467,037	551,830	505,483	712,994	69.3

자료: aT kati

2.2. 이슬람권 시장 품목류별 수출 동향

- 다음의 표는 이슬람권 시장에 대한 주요 품목류별 수출 동향을 나타낸 것임.
신선농산물 중에서 최근 5년간 평균수출액이 가장 높은 품목류는 채소류(500만 달러), 곡류(110만 달러), 인삼류(160만 달러)로 나타남.
- 가공식품 중에서는 커피류(4,100만 달러), 기타 조제농산품(3,000만 달러), 면류(8,700만 달러)의 수출액이 높음. 축산물 중에서는 낙농품(230만 달러)과 포유가축육류(28만 달러)의 수출이 두드러짐.
- 이슬람권 농식품 시장으로의 수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 품목류는 곡류(26.2%), 인삼류(25.9%), 기타 조제농산품(24.4%), 포유가축육류(24.5%) 등으로, 최근 5년간 20% 이상의 수출 증가율을 기록했다. 2014년을 기준으로 각 품목류의 수출액은 2010년 대비 세 배 이상 증가함.

이슬람권 농식품 시장 품목류별 수출 동향⁷⁾

단위: 천 달러,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평균 수출액	평균 증감율
신선 농산물	채소류	3,137	4,108	4,661	5,948	7,489	5,069	19.0
	곡류	522	854	753	1,957	1,674	1,152	26.2
	인삼류	714	1,482	2,424	1,303	2,266	1,638	25.9
가공 식품	커피류	24,765	40,719	40,450	50,416	49,063	41,082	14.6
	기타 조제 농식품	12,993	44,156	25,243	28,749	38,689	29,966	24.4
	면류	5,791	7,627	10,207	9,023	10,957	8,721	13.6
축산물	낙농품	2,690	1,918	2,133	2,005	3,144	2,378	3.2
	포유가축육류	202	226	87	319	604	288	24.5

주 1) 평균수출액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의 수출액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했으며, 평균 증감율은 최근 5년간의 수출액 평균증감율을 기준으로 나타낸 것임.

2) 기타 조제농식품은 혼합주스, 아이스크림, 두부, 식초 등의 조제품을 포함함.

자료: aT kali

2.3. 이슬람권 시장 품목별 수출 동향

- 이슬람권 농식품 시장에 대한 국내산 주요 수출 품목을 파악하기 위해 8개 주요 품목류의 세부품목을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신선농산물에서 채소류는 배추, 양배추, 김치, 상추, 시금치, 미늘, 양파, 채소종자 등 51개 세부품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곡류는 쌀, 보리, 밀 등 12개 품목을, 인삼류는 수삼, 백삼, 홍삼 등 13개 품목을 포함하고 있음.

7) 우리나라에서 이슬람권 시장 주요 5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란)으로의 수출액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임.

이슬람권 농식품 시장 주요 수출품목류별 세부 품목(124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신 선 농 산 물	채소류(51)	배추, 양배추, 꽃양배추, 방울다다기양배추, 김치, 기타배추, 상치, 절구상치, 시금치, 무, 순무, 당근, 고추냉이, 기타근채, 토마토, 오이, 멜론, 호박, 가지, 딸기, 수박, 파프리카, 양파, 파, 쪽파, 마늘, 부추, 기타파속채소, 아스파라거스, 샐러리, 고추, 생강, 토란줄기, 연뿌리, 염교, 균질화채소, 채소종자, 채소 혼합물, 채소주스, 기타채소, 치커리채소, 양영경귀, 후추, 스위트콘, 올리브, 고구마줄기, 올리브, 케이퍼, 사우어크라우트, 아티초크, 식용의 채소(뿌리, 괴경)
	곡류(12)	쌀, 보리, 밀, 호밀, 옥수수, 밀리트, 수수, 메밀, 귀리, 울무, 카나리시드, 기타곡물
	인삼류(13)	수삼, 백삼, 백삼분, 백삼정, 백삼조제품, 홍삼, 홍삼분, 홍삼정, 홍삼조제품, 인삼부산물, 인삼액즙, 인삼음료, 인삼제제
가 공 식 품	커피류(2)	커피, 커피조제품
	기타 조제 농산물(17)	유아용조제식료품, 맥아엑스, 오토밀, 기타조제식료품, 혼합주스, 차, 마태조제품, 치커리조제품, 음료조제용 조제품, 수우프브로드, 혼합조제식료품, 아이스크림, 기타빙과, 두부, 기타단백질농축물, 향미용조제품, 알로에조제품, 식초
	면류(9)	스파게티, 마카로니, 국수, 당면, 냉면, 라면, 인스턴트면, 쿠파스쿠파스, 기타 파스타
축 산 물	낙농품(12)	생우유, 탈지분유, 전지분유, 연유, 유당, 버터밀크, 버터, 유장, 치즈, 발효유, 조제분유, 우유조제품
	포유가축육류(8)	쇠고기, 돼지고기, 말고기, 면양고기, 산양고기, 토끼고기, 사슴고기, 기타포유가축육

주: ()는 세부품목 수를 나타냄.
자료: aT kati

- 가공식품은 커피류의 경우 커피와 커피조제품의 2개 품목을, 기타 조제농산물은 유아용조제식료품, 차, 아이스크림 등 17개 품목을, 면류는 국수, 라면 등 9개 품목을 포함함. 축산물의 경우 낙농품은 생우유, 조제분유 등 12개 품목을, 포유가축육류는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8개 품목을 포함함.⁸⁾

8) 돼지고기가 주요 수출품목으로 분석된 이유는, 이슬람권 주요 국가의 모든 국민들이 이슬람교를 믿고 할랄식품만을 섭취하지는 않기 때문임. 예컨대 인도네시아의 경우 14%가 이슬람교가 아닌 타종교를 숭배하며, 이는 3,300만 명에 달함(외교부 인도네시아 개황).

이슬람권 농식품 시장 주요 수출품목 수출 동향

단위: 천 달러, %

품목류	품목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평균 수출액	수출 증감율
채소류	딸기	1,127	1,499	2,022	3,108	3,346	2,220	24.3
	김치	340	609	870	1,006	1,238	813	29.5
	채소종자	428	554	444	582	1,329	667	25.4
곡류	쌀	352	630	573	421	278	451	-4.6
인삼류	홍삼	216	710	299	300	693	444	26.2
	인삼음료	180	237	260	194	569	288	25.9
커피류	커피 조제품	18,088	28,171	31,805	37,714	35,710	30,298	14.6
기타조제 농산품	아이스크림	915	1,484	2,043	2,672	1,693	1,761	13.1
면류	라면	3,888	5,289	6,849	6,849	7,236	6,022	13.2
낙농품	조제분유	2,588	1,897	2,020	1,845	2,360	2,142	-1.8
포유가축	쇠고기	206	204	60	373	475	264	18.2
육류	돼지고기	14	22	29	66	195	65	69.9

주 1) 평균수출액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의 수출액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했으며, 평균 증감율은 최근 5년간의 수출액 평균증감율을 기준으로 나타낸 것임.

2) 5개 주요 수출국으로의 수출액 합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임.

자료: aT kati

- 소분류로 제시된 총 124개 품목들의 최근 5년간 평균수출액을 기준으로 품목
류별 주요 수출품목을 선별함. 위의 표는 각 품목류별 주요 수출품목의 5년 간
수출동향을 정리한 것임. 채소류 중에서 가장 높은 평균수출액을 기록한 품목
은 딸기(220만 달러), 김치(81만 달러), 채소종자(66만 달러)로 나타났고, 곡류
중에서는 쌀(45만 달러), 인삼류 중에서는 홍삼(44만 달러)과 인삼음료(28만
달러)가 주요 수출품목인 것으로 분석됨.
- 커피류 중에서는 커피조제품(3,000만 달러)이, 기타 조제농산품 중에서는 아이
스크림(1,760만 달러), 면류에서는 라면(600만 달러), 낙농품에서는 조제분유
(210만 달러), 포유가축육류 중에서는 쇠고기(26만 달러)와 돼지고기(6만
5,000달러)의 수출이 두드러짐.

3. 이슬람권 농식품 시장 수출 잠재성 분석

3.1. 수출잠재품목의 이슬람 국가별 수입규모⁹⁾

- 다음의 표는 제2장의 분석을 통해서 도출된 국내 농식품 중에서 이슬람권 시장으로 수출할 가능성이 높은 품목¹⁰⁾의 이슬람 주요 국가별 수입규모를 보여줌. 딸기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400만 달러 이상을 수입하고 있으며, 채소종자 역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500만 달러 수준을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버섯류는 말레이시아의 수입이 두드러졌는데, 1,000만 달러 이상 수입한 것으로 나타남.

이슬람 국가의 주요 농식품 수입품목¹¹⁾

단위: 달러

구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사우디
딸기	706,041	2,361,553	24,649,427
감	92,308	5,753,793	145,353
버섯	60,355	10,720,246	1,824,528
채소종자	5,166,492	3,797,851	14,938,561
쌀	246,002,090	503,264,427	1,387,436,582
인삼	1,997,438	7,950,778	2,360,712
커피조제품	129,139,642	467,842,018	709,953,061
쇠고기	189,415,429	470,567,552	360,114,925
돼지고기	766,557	33,642,810	—

주: 기준연도는 2013년임.
자료: UN-Comtrade

9) 이슬람 주요 국가의 농식품 품목별 수입동향을 살펴보면, 인도네시아의 경우 밀(21.9억 달러), 생면(17.8억 달러), 원당(16.4억 달러) 순으로 많이 수입이 많고, 말레이시아는 팜오일(19.4억 달러), 과일제(11.8억 달러), 천연고무(11.1억 달러) 순으로 나타남. 사우디아라비아는 보리(19.6억 달러), 닭고기(17.2억 달러), 식품첨가물(10.6억 달러) 수입(FAO-Stat, 2011). 자료 수집의 제한으로 인해 주요 이슬람권역 국가의 농식품 수입 동향 자료에 한국산 주요 수출품목이 차지하는 순위 및 비중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10) 감과 버섯은 이슬람 주요 국가 내 시장점유율이 우수하고 수출경쟁력이 높아 포함함.

11) 분석대상 주요 품목들 중, UN-comtrade에서 접근 가능한 품목을 중심으로 분석함.

- 커피조제품의 경우 사우디에서 7억 달러 이상을, 말레이시아에서 4억 6,000만 달러 이상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남. 축산물 중에서는 쇠고기의 경우 말레이시아에서 4억 7,000만 달러를, 사우디에서 3억 6,000만 달러를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3.2. 이슬람 권역 수출잠재품목의 시장비중

- 다음의 표는 한국에서 이슬람 국가로 수출할 가능성이 높은 주요 품목들에 대해 이슬람 주요 국가들의 수입국가 및 수입비중을 나타낸 것임.
 - 주목되는 품목은 감으로, 한국산 감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수입 감 시장에서 각각 80.8%, 86.5%라는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
 - 또한, 신선 딸기의 경우 말레이시아 수입 딸기 시장에서 41.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버섯류의 경우 말레이시아의 수입 버섯 시장에서 10.5%의 점유율을 차지함.
 - 사우디아라비아 수입 채소종자시장은 일본과 태국의 채소종자가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한국산 채소종자도 4.8%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주요 수출잠재 품목의 수출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을 살펴보면, 딸기의 경우 말레이시아 시장 내 수입경쟁국인 미국의 kg당 1.65달러와 호주의 1.32달러 보다 높은 가격인 2.30달러로 가격경쟁력에서 열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감의 경우 인도네시아 시장과 말레이시아 시장에서 모두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수입 시장에서는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말레이시아 버섯 시장 내 가격경쟁력은 최대 경쟁국인 중국산 버섯의 kg당 2.11달러에 비해 1.90달러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이슬람 권역 농식품 수출잠재품목 시장 비중¹²⁾

단위: 달러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사우디
딸기	중국(98.8), 한국(0.0)	한국(41.5), 미국(27.3)	이집트(63.5), 미국(34.3)
감	한국(80.8), 뉴질랜드(14.0)	한국(86.5)	스페인(100.0), 한국(0.0)
버섯	중국(62.7), 이탈리아(24.6), 한국(0.0)	중국(71.2), 한국(10.5)	네덜란드(55.1), 오만(35.7), 한국(0.0)
채소종자	일본(32.7), 태국(30.0), 인도(11.2), 한국(0.0)	태국(27.7), 중국(13.9), 인도네시아(13.3), 한국(0.0)	일본(41.7), 태국(30.4), 한국(4.8)
쌀	베트남(39.5), 태국(25.1), 인도(18.3), 파키스탄(12.1)	베트남(54.1), 태국(19.2), 파키스탄(12.6), 한국(0.1)	인도(73.2), 미국(8.9)
인삼	한국(86.7), 중국(8.4)	중국(37.6), 홍콩(32.9), 한국(4.7)	시리아(100.0)
커피조제품	베트남(29.0), 인도(18.7), 한국(0.1)	인도네시아(27.3), 인도(24.1), 한국(0.1)	UAE(21.8), 에티오피아(15.5), 한국(0.1)
쇠고기	호주(74.3), 뉴질랜드(20.1), 미국(5.5)	인도(80.1), 호주(12.8)	인도(59.9), 호주(29.2)
돼지고기	미국(100.0)	독일(47.8), 벨기에(11.7), 네덜란드(9.1)	-

주: ()는 해당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전체 수입으로부터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며, 기준연도는 2013년임.
 자료: UN-Comtrade

4. 요약 및 시사점

가. 이슬람권 농식품 시장 성장 가능성이 높으므로 적극적인 대응 필요

- 한국 농식품의 이슬람권역 국가 수출액은 최근 4년간 34.9% 증가한 8억 6천만 달러이며, 이는 한국 농식품 총 수출액의 14%를 차지할 정도로 큰 규모임. 농식품 수출 증가율은 2014년에 전년대비 8.0%인 반면, 이슬람 국가에 대한 수출증가율은 29.1%로 두드러지게 높아 성장 가능성이 높음.

12) 주요 이슬람국가 5개 국가 가운데 UN-Comtrade에서 활용 가능한 3개국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함.

- 특히 인도네시아는 수출액과 수출 성장률이 모두 높은 편이며, 아랍에미리트(UAE)는 수출액이 가장 높은 국가임.
- 또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이란 등 주요 이슬람권 시장으로의 수출액은 최근 5년 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수출잠재력이 높은 국가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란 등의 주요 이슬람권 국가를 농식품 수출 목표 대상 국가로 선정 하여 적극적으로 농식품 시장에 진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나. 이슬람권 국가별 수출유망품목과 시장 진출여건을 비교분석하여 차별적인 진출전략 수립 필요

- 국내 신선농식품 중에서는 딸기, 감, 채소종자, 버섯의 수출이 두드러지고, 가공식품 중에서는 커피조제품, 음료, 비스킷 등이 주요 수출품목으로 나타남.
 - 이슬람권 주요 국가에서 점유율이 높은 품목은 감임. 감은 이슬람권 시장에 지속적으로 수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공급기반 및 수출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 딸기의 경우도 말레이시아에서 41.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는 거의 진출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인도네시아 시장에서의 수출장애요인을 파악하고 시장진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버섯류도 인도네시아 시장으로 진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채소종자의 경우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주요 원인을 조사하여 시장진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커피조제품 등 가공식품은 주요 이슬람권 시장 국가에 미약하게 진출해 있지만 향후 수출성장 가능성이 커보이므로 적극적으로 진출을 시도할 필요가 있음.

다. 할랄식품 소비자의 까다로움을 고려하여 가격경쟁력보다는 품질 경쟁력 제고의 수출확대 전략이 효과적

- 주요 이슬람권 시장에서 한국산 농산물 가격이 미국산이나 호주산 가격의 거의 두 배에 이르지만 점유 비중이 높다는 것은 한국 농식품의 품질경쟁력과 소비자 선호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함.
- 이슬람권 시장으로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상품을 엄격하고 까다롭게 관리하여 수출시장 소비자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어야 함. 한편, 향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주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이 빠르게 높아지면 서 소비행태도 고급화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향후 국내 농식품의 이슬람권 시장 수출전략도 가격경쟁력보다는 품질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

한·미 FTA 발효 4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과제*

지성태**, 이현근***, 이수환****, 유정호*****

1. 한·미 FTA 이행과 농축산물 교역 동향¹⁾

1.1.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동향

- 한·미 FTA 이행 4년차('15)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발효 전 평년²⁾ 대비 17.7% 증가, 3년차 대비 10.2% 감소한 70.1억 달러이며,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 비중은 FTA 발효 전 평년 기준 26.0%에서 이행 4년차 23.0%로 하락함.
- 과일·채소 수입액은 오렌지(9.6%), 레몬(29.4%), 토마토(7.9%), 자몽(42.6%), 크랜베리(17.6%) 등의 수입 증가로 이행 3년차 대비 2.5% 증가함. 가공식품 수입액은 빵(12.4%), 곡류조제품(6.6%), 혼합조제식료품(5.4%), 기타 당(8.1%) 등의 수입 증가로 이행 3년차 대비 7.3% 증가함.

* 본고는 「농정포커스 -제 121호 한·미 FTA 발효 4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과제」를 참고하여 요약·정리한 것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dongsimjst@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hklee@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suhwan8352@kre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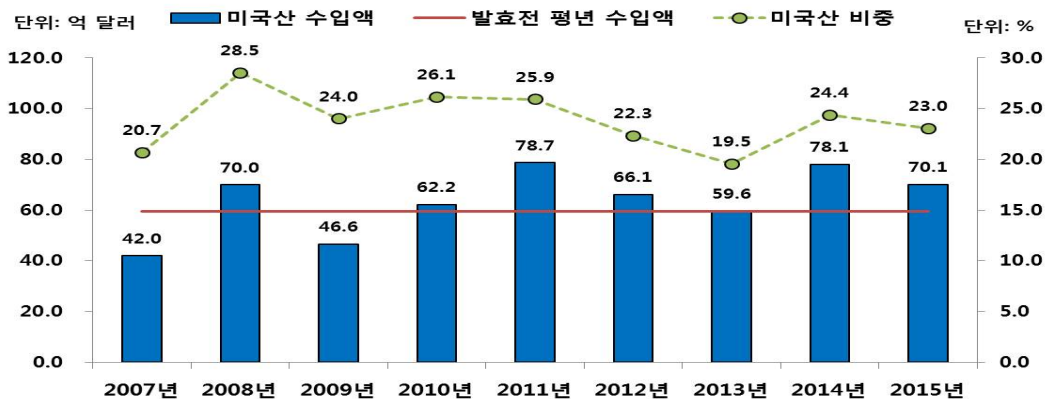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jhyoo@krei.re.kr)

1) 한·미 FTA가 2012년 3월 15일에 발효되었지만, 분석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1~12월) 기준으로 통계자료(2,316개 HS코드 기준)를 집계함.

2) 한·미 FTA 발효 전 평년은 2007~2011년의 최대·최소를 제외한 올림픽 평균임.

- 곡물 수입액은 가격경쟁력 약화에 따른 수입선 전환 등으로 이행 3년차 대비 29.5% 감소했으며, 축산물(유제품 포함)은 미국 내 가축질병(AI) 발생 및 국내 생산량 증가 등 국내외 수급여건 변화 등으로 이행 3년차 대비 6.2% 감소함.³⁾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 동향



자료: 무역통계진흥원.

미국산 농축산물 부류별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발효 전 평년 (‘07~‘11)(A)	발효 후 이행				증감률			
		1년차 (‘12)(B)	2년차 (‘13)(C)	3년차 (‘14)(D)	4년차 (‘15)(E)	발효 전 대비(E/A)	1년차 대비(E/B)	2년차 대비(E/C)	3년차 대비(E/D)
전체 합계	5,957	6,614	5,961	7,810	7,011	17.7	6.0	17.6	-10.2
농산물	4,336	4,411	3,637	5,089	4,416	1.9	0.1	21.4	-13.2
- 곡물	2,787	2,375	1,442	2,760	1,947	-30.2	-18.1	35.0	-29.5
- 과일·채소	328	593	616	610	625	90.3	5.3	1.5	2.5
- 가공식품	1,027	1,443	1,580	1,719	1,844	79.5	27.9	16.8	7.3
축산물	823	1,411	1,471	1,878	1,761	114.0	24.8	19.7	-6.2
임산물	795	793	853	843	834	4.9	5.2	-2.2	-1.1

주 1) 곡물은 곡류, 기타 곡식류, 두류, 서류, 전분, 박류, 채유종실의 소계, 과일·채소는 과일, 채소, 화훼, 버섯류(농산물), 기타 산식물의 소계, 가공식품은 농산물 소계에서 곡물과 과일·채소를 제외한 값

2) 발효 전 평년은 2007~2011년의 최대·최소를 제외한 올림픽 평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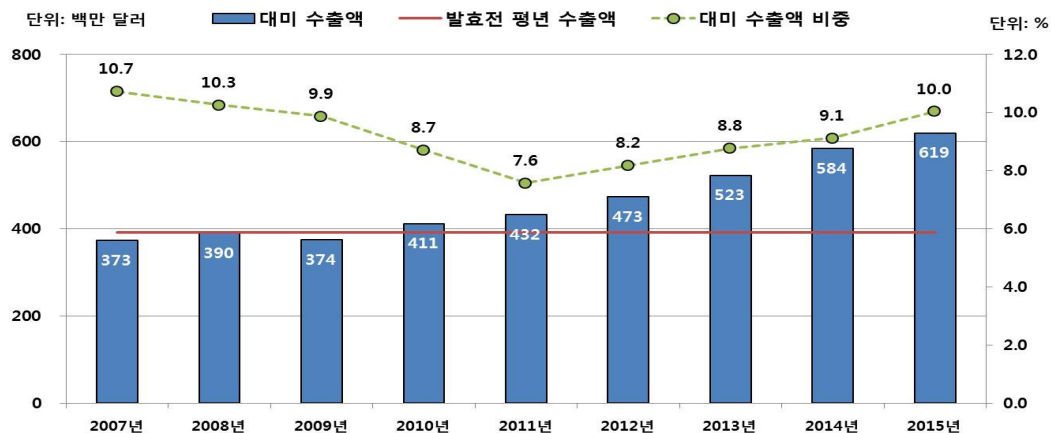
자료: 무역통계진흥원.

3) 곡물 주요 수입 감소 품목은 옥수수(-45.4%), 밀(-15.7%), 대두(-24.3%) 등이며, 축산 주요 수입 감소 품목은 치즈(-16.8%), 닭고기(-83.9%), 탈지분유(-59.5%) 등임.

1.2. 對미 농축산물 수출액 동향

- 한·미 FTA 이행 4년차 對미 농축산물 수출액은 발효 전 평년 대비 58.1%, 3년차 대비 6.0% 증가한 6.2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전체 농축산물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FTA 이행 4년차에 10.0%까지 상승함.

對미 농축산물 수출액 동향



자료: 무역통계진흥원.

- 가공식품 수출액은 기타 베이커리제품(36.3%), 기타 음료(5.1%), 라면(13.5%), 껌(54.2%) 등의 수출 증가로 이행 3년차 대비 7.0% 증가함.
- 과일·채소의 경우 배, 감귤, 매실, 기타 채소 등의 수출액은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전체 수출액은 이행 3년차 대비 소폭(0.6%) 감소함.
 - 주요 수출 감소 품목은 신선 배(-10.6%), 신선 감귤(-44.4%), 신선 매실(-72.1%), 기타 채소(-14.8%) 등임.
 - 단, 신선 과일류는 발효 전 평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신선 배(7.6%), 신선 포도(11.8%), 신선 감귤(32.0배), 신선 사과(29.8배))함.
- 축산물(유제품 포함) 수출액은 단백질류, 가죽류, 기타 축산물 부산물 등의 수출 감소로 이행 3년차 대비 2.9% 감소함.

농축산물 부류별 對미 수출액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발효 전 평년 (‘07~‘11)(A)	발효 후 이행				증감률			
		1년차 (‘12)(B)	2년차 (‘13)(C)	3년차 (‘14)(D)	4년차 (‘15)(E)	발효 전 대비(E/A)	1년차 대비(E/B)	2년차 대비(E/C)	3년차 대비(E/D)
전체 합계	392	473	523	584	619	58.1	30.9	18.5	6.0
농산물	353	430	464	520	550	55.9	28.0	18.5	5.8
- 곡물	8	9	10	9	9	10.3	0.6	-7.3	0.3
- 과일·채소	58	67	74	74	74	27.9	9.7	-0.3	-0.6
- 가공식품	288	353	381	437	467	62.5	32.2	22.8	7.0
축산물	22	27	35	36	35	62.2	30.1	0.2	-2.9
임산물	16	16	23	28	34	109.9	108.1	45.6	22.4

주 1) 곡물은 곡류, 기타 곡식류, 두류, 서류, 전분, 박류, 채유종실의 소계, 과일·채소는 과일, 채소, 화훼, 버섯류(농산물), 기타 산식물의 소계, 가공식품은 농산물 소계에서 곡물과 과일·채소를 제외한 값

2) 발효 전 평년은 2007~2011년의 최대·최소를 제외한 올림픽 평균임.

자료: 무역통계진흥원.

1.3. 한·미 FTA 이행과 농축산물 FTA 수출입 특혜 관세 활용률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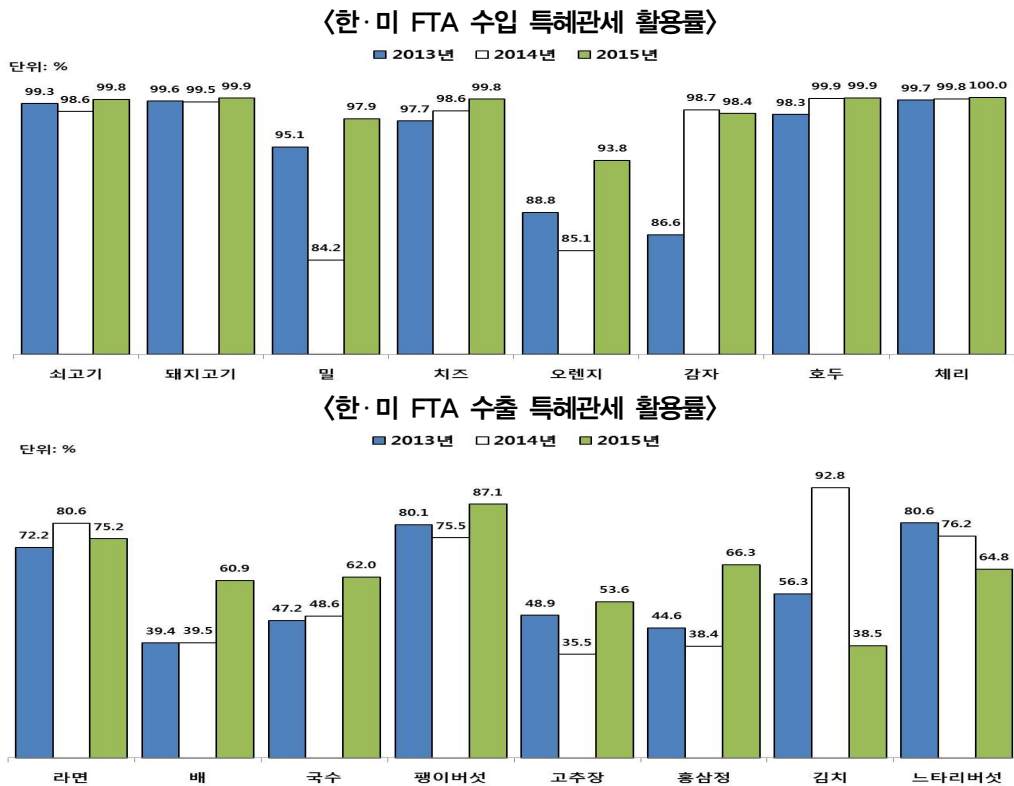
- 미국산 농축산물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2013년 72.6%에서 2014년 63.2%로 하락했다가 2015년 71.6%로 상승했음. 2015년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농축산물 중에서 ‘FTA 대상 품목’의 수입액은 62.8억 달러이며, 그중 FTA 특혜관세 활용 수입액은 45.0억 달러임. 2014년 큰 폭으로 하락했던 옥수수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 상승이 전체 활용률 회복을 견인함.
- 2015년 미국산 수입 농축산물 가운데 옥수수 수입액(7.6억 달러)이 쇠고기 다음으로 많으며, 옥수수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2013년 41.5%에서 2014년 7.1%로 하락했으나 2015년 13.0%⁵⁾로 상승함.

4) FTA 수출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한 ‘FTA 대상 품목’ 중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하거나 수출한 금액을 의미함.

5) 옥수수의 특혜관세 활용률이 낮은 이유는 할당관세가 부과되는 수입물량에 대해 원산지증명서가 요구되지 않기 때문임.

- 2015년 對미 수출 농축산물의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47.6%⁶⁾로 2013년 (46.1%)과 2014년(46.2%)에 비해 소폭 상승 추세임. 2015년 한국의 對미 농축산물 수출액 중에서 'FTA 대상품목'의 수출액은 6.2억 달러이며, 그중 FTA 특혜관세 활용 수출액은 2.9억 달러임.
- 수출규모가 1천만 달러 이상인 품목 중 팡이버섯의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이 87.1%로 가장 높고, 나머지는 모두 80% 이하임.

2015년 주요 농축산물 한·미 FTA 특혜관세 활용률



자료: 무역통계진흥원.

6) 미국과의 농축산물 교역에서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이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보다 높은 이유는, 미국산 농축산물이 FTA로 인한 관세혜택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고, 가공무역 위주의 국산 수출 농식품의 역외 원료 비중이 높기 때문임. 또한 국내 수출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해 원산지 증명 등 통관과정에서의 다양한 비관세장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점도 작용함.

2. 주요 품목별 수입 실태

2.1. 미국산 축산물

- 한·미 FTA 이행 4년차에 접어들어 닭고기를 제외한 쇠고기, 돼지고기, 치즈, 분유 수입액은 관세율 인하, 국내 생산량 감소 및 수요 증가 등으로 발효 전 평년 대비 증가함.
 -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발효 전 2011년 대비 22.8% 증가했으나, 수입단가 상승으로 수입량은 10.1% 감소함.
 - 미국산 닭고기 수입액은 2014년 12월 미국 내 AI 발생에 따른 수입 금지조치로 발효 전 평년과 이행 3년차 대비 모두 감소함.
 - 치즈와 분유 수입은 국내 수요 증가로 발효 전 평년 대비 크게 증가했으나 수입선 전환효과 등으로 이행 3년차 대비 모두 감소함.

미국산 주요 축산물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

구분		발효 전 평년 (‘07~‘11)(A)	발효 후 이행				증감률	
			1년차 (‘12)(B)	2년차 (‘13)(C)	3년차 (‘14)(D)	4년차 (‘15)(E)	발효 전 대비(E/A)	3년차 대비(E/D)
쇠고기	수입액	653	522	578	764	802	22.8	4.9
	수입량	128	106	101	112	115	-10.1	3.4
돼지고기	수입액	225	391	313	403	455	102.4	12.9
	수입량	98	131	112	121	151	53.6	24.1
닭고기	수입액	54	91	71	96	16	-71.1	-83.9
	수입량	39	54	45	65	11	-72.7	-83.4
치즈	수입액	56	141	188	301	251	346.4	-16.8
	수입량	13	32	43	64	55	324.9	-14.1
분유 (탈지+전지)	수입액	0.9	6.9	24.1	32.7	12.8	1339.7	-61.0
	수입량	0.3	1.9	6.3	8.0	5.7	1874.1	-28.7
전체 축산물	수입액	823	1,411	1,471	1,878	1,761	114.0	-6.2
	수입량	1,071	1,286	1,209	1,357	1,464	36.8	7.9

주 1) 발효 전 평년은 2007~2011년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올림픽 평균치임.

2) 쇠고기의 발효 전 대비 증감률은 미국은 BSE 발병으로 인한 수입금지 조치를 고려하여 FTA 발효 직전 연도인 2011년과 비교한 수치임.

자료: 무역통계진흥원.

- 2015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2012년 미국 내 광우병 발생에 따른 수입선 전환 등으로 발효 전 2011년 대비 10.1% 감소한 11만 5천 톤임.
 - 반면, 호주산 쇠고기 수입량은 수입단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2011년 대비 11.2% 증가함.
- 미국산 쇠고기 수입가격은 생산량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 등으로 발효 전 2011년 대비 26.5% 상승한 것으로 추정됨.
 - 동 기간 미국산 쇠고기 수입단가는 33.7% 상승했고, 관세율 인하가 수입가격 하락을 어느 정도 상쇄하는 효과를 나타냄.

미국산 쇠고기 수입가격 분석

구분		발효 전 2011년 (‘11)(A)	발효 후 이행				증감률	
			1년차 (‘12)(B)	2년차 (‘13)(C)	3년차 (‘14)(D)	4년차 (‘15)(E)	발효 전 대비(E/A)	3년차 대비(E/D)
미국	수입가격(원/kg)	8,215	7,934	8,536	9,669	10,389	26.5	7.4
	수입단가(달러/kg)	5.31	5.13	5.79	6.96	7.10	33.7	2.0
	환율(원/달러)	1,108	1,127	1,095	1,053	1,131	2.1	7.4
	관세율(%)	40	37.3	34.6	32	29.3	-26.8	-8.4
	수입량(천 톤)	128	106	101	112	115	-10.1	3.4
호주	수입가격(원/kg)	8,518	8,428	8,217	8,300	9,181	7.8	10.6
	수입단가(달러/kg)	5.49	5.34	5.36	5.74	6.03	9.8	5.1
	수입량(천 톤)	170	156	166	173	189	11.2	9.5
뉴질랜드	수입가격(원/kg)	6,583	6,172	6,232	7,093	6,844	4.0	-3.5
	수입단가(달러/kg)	4.24	3.91	4.07	4.81	4.46	5.2	-7.3
	수입량(천 톤)	39	33	30	27	23	-41.3	-13.4
국내 수급	생산량(천 톤)	216	234	260	261	256	18.5	-1.9
	1인당 소비량(kg)	10.2	9.7	10.3	10.8	10.9	6.9	0.9

주 1) 수입가격 분석 대상은 냉장쇠고기(0201300000), 냉동갈비(0202201000), 냉동쇠고기(0202300000)이며, 3개 세번 수입량 비중은 2015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의 89%를 차지

2) 쇠고기의 발효 전 대비 증감률은 한·미 FTA 발효 직전 연도인 2011년과 비교

3) 수입가격은 부위별 수입액(환율, 관세율 적용) 합계를 수입량 합계로 나누어 산출

4) 수입량은 쇠고기에 포함된 전체 HS코드를 기준으로 함.

자료: 무역통계진흥원, 한국은행, FTA 협정문, KREI 농업전망(2016).

- 2015년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량은 관세율 인하에 따른 수입단가 하락과 국내 수요 증가로 발효 전 평년 대비 53.6% 증가한 15만 1천 톤임.
 - 발효 전 대비 국내 돼지고기 수요 증가에 따른 국내산 생산량 증가와 수입 단가 하락에 따른 수입량 증가 현상이 동시에 나타남.
-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단가는 발효 전 평년 대비 33.0% 상승했으나, 2014년 냉동 돼지고기(삼겹)의 관세율 철폐 등으로 수입가격 상승폭은 12.2%에 그친 것으로 추정됨.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가격 분석

구 분		발효 전 평년 (‘07~‘11)(A)	발효 후 이행				증감률	
			1년차 (‘12)(B)	2년차 (‘13)(C)	3년차 (‘14)(D)	4년차 (‘15)(E)	발효 전 대비(E/A)	3년차 대비(E/D)
미국	수입가격(원/kg)	3,088	3,784	3,257	3,610	3,465	12.2	-4.0
	수입단가(달러/kg)	2.21	2.89	2.65	3.16	2.94	33.0	-7.0
	환율(원/달러)	1,122	1,127	1,095	1,053	1,131	0.8	7.4
	관세율(%)	25	16	12	8	4	-84.0	-50.0
	수입량(천 톤)	98	131	112	121	151	53.6	24.1
EU	수입가격(원/kg)	3,944	4,274	3,979	3,884	3,553	-9.9	-8.5
	수입단가(달러/kg)	2.81	3.18	3.11	3.26	2.88	2.5	-11.7
	수입량(천 톤)	134	162	129	199	253	89.7	27.4
국내	생산량(천 톤)	712	750	854	830	842	18.2	1.4
수급	1인당 소비량(kg)	19.1	19.2	20.9	21.8	23.7	24.1	8.7

주 1) 수입가격 분석 대상은 냉동돼지고기(0203299000), 냉동삼겹살(0203291000), 냉장삼겹살(0203191000)이며, 3개 세번 수입량 비중은 2015년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량의 89%를 차지

2) 수입가격은 냉동돼지고기, 냉동삼겹살, 냉장삼겹살의 수입액(환율, 관세율 적용) 합계를 수입량 합계로 나누어 산출

3) 협정관세율은 냉동돼지고기(목살, 전·후지)를 기준으로 함.

4) 수입량은 돼지고기에 포함된 전체 HS 코드를 기준으로 함.

자료: 무역통계진흥원, 한국은행, FTA 협정문, KREI 농업전망(2016).

- 2015년 미국산 닭고기 수입량은 미국 내 AI 발생으로 수입이 금지되어 발효 전 평년 대비 72.7% 감소한 1만 1천 톤임.
 - 2014년 12월 미국의 AI 발병으로 닭고기 수입이 전면 금지됐으며, 2015년 11월 금지조치가 해제됐으나, 2016년 1월 인디애나에서 AI가 재발생하여 금지조치를 유지함.

- 미국산 닭고기 수입 금지조치로 수입선이 브라질로 전환됨.
- 미국산 닭고기 수입단가는 발효 전 평년 대비 1.5% 상승했으나, 관세율 인하 등으로 수입가격은 4.2% 하락한 것으로 추정됨.

미국산 닭고기 수입가격 분석

구분		발효 전	발효 후 이행				증감률	
		평년 (‘07~‘11)(A)	1년차 (‘12)(B)	2년차 (‘13)(C)	3년차 (‘14)(D)	4년차 (‘15)(E)	발효 전 대비(E/A)	3년차 대비(E/D)
미국	수입가격(원/kg)	1,826	2,202	1,983	1,771	1,749	-4.2	-1.2
	수입단가(달러/kg)	1.36	1.66	1.56	1.48	1.38	1.5	-6.8
	환율(원/달러)	1,122	1,127	1,095	1,053	1,131	0.8	7.4
	관세율(%)	20	18	16	14	12	-40	-14.3
	수입량(천 톤)	39	54	45	65	11	-72.7	-83.4
브라질	수입가격(원/kg)	3,232	3,449	3,255	3,335	3,143	-2.8	-5.8
	수입단가(달러/kg)	2.40	2.55	2.48	2.64	2.31	-3.7	-12.5
	수입량(천 톤)	26	57	59	52	80	209.6	53.0
국내수급	생산량(천 톤)	408	464	473	528	573	40.5	8.6
	1인당 소비량(kg)	9.8	11.6	11.5	12.8	13	32.7	1.6

주 1) 수입가격 분석 대상은 냉동닭다리(0207141010), 냉동닭가슴(0207141020), 냉동닭날개(0207141030)이며, 3개 세번 수입량 비중은 2015년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량의 99%를 차지

2) 수입가격은 냉동닭다리, 냉동닭가슴, 냉동닭날개의 수입액(환율, 관세율 적용) 합계를 수입량 합계로 나누어 산출

3) 협정관세율은 냉동닭다리를 기준으로 함.

4) 수입량은 닭고기에 포함된 전체 HS 코드를 기준으로 함.

자료: 무역통계진흥원, 한국은행, FTA 협정문, KREI 농업전망(2016).

- FTA 이행으로 미국산 유제품에 대한 TRQ 확대 및 관세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EU의 생산 쿼터제 폐지, 뉴질랜드산 수입 증가 등으로 미국산 치즈 및 분유 수입은 이행 3년차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미국산 치즈·분유 TRQ 및 수입량 동향

단위: 톤, %

구분	발효 전 평년 (‘07~‘11)(A)	발효 후 이행				증감률	
		1년차 (‘12)(B)	2년차 (‘13)(C)	3년차 (‘14)(D)	4년차 (‘15)(E)	발효 전 대비(E/A)	3년차 대비(E/D)
치즈	TRQ	-	7,000	7,210	7,426	-	3.0
	수입량	12,901	31,877	42,530	63,848	324.9	-14.1
분유 (탈지+전지)	TRQ	-	5,000	5,150	5,305	-	3.0
	수입량	289	1,941	6,265	7,989	1874.1	-28.7
조제 분유	TRQ	-	700	721	743	-	3.0
	수입량	150	266	141	136	-45.2	-39.8

자료: 무역통계진흥원, 한·미 FTA 협정문 부속서.

2.2. 미국산 과일류

- 2015년 미국산 과일 수입액은 관세율 인하, FTA TRQ 증량 및 국내 수요 증가 등으로 발효 전 평년 대비 크게 증가함.
 - 신선 오렌지, 체리, 포도, 레몬과 자몽의 수입액은 발효 전 평년 대비 품목에 따라 0.5~3.4배까지 큰 폭으로 증가함.
 - 이행 3년차(‘14)와 비교하면, 오렌지, 레몬, 자몽은 주산지인 캘리포니아의 작황호조와 국내 수요 증가로 수입이 증가한 반면, 체리와 포도는 주산지인 워싱턴주의 작황부진, 석류는 국내 소비 감소로 수입이 감소함.
- 2015년 미국산 오렌지 수입량은 관세율 인하와 TRQ 증량(복리 3%) 및 국내 수요 증가로 발효 전 평년 대비 11.1% 증가한 10만 3천 톤임.
 - 미국산 오렌지 수입량은 주산지인 캘리포니아의 작황부진(USDA, '16.1.)과 항만노조 파업에 따른 수입시기 지연에도 불구하고 이행 3년차 대비 12.8% 증가함.

미국산 과일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톤, %

구분			발효 전 평년 (‘07~‘11)(A)	발효 후 이행				증감률	
				1년차 (‘12)(B)	2년차 (‘13)(C)	3년차 (‘14)(D)	4년차 (‘15)(E)	발효 전 대비(E/A)	3년차 대비(E/D)
주요 신선과일	오렌지	수입액	110	211	186	156	163	48.5	4.3
		수입량	92,570	166,931	145,741	91,209	102,884	11.1	12.8
	체리	수입액	30	81	88	123	120	300.5	-2.6
		수입량	3,748	9,325	8,936	13,080	12,076	222.2	-7.7
	석류	수입액	10	19	28	24	19	82.4	-21.2
		수입량	4,892	8,702	13,596	10,760	8,638	76.6	-19.7
	포도	수입액	9	16	20	20	18	97.8	-12.2
		수입량	3,799	5,951	7,579	7,027	6,034	58.8	-14.1
	레몬	수입액	8	15	24	25	33	336.7	30.3
		수입량	4,584	9,250	12,619	10,706	12,962	182.7	21.1
	자몽	수입액	7	11	12	14	19	182.8	35.7
		수입량	5,849	8,681	9,487	10,911	14,116	141.3	29.4
	전체 과일	수입액	216	411	432	421	442	104.2	4.8
		수입량	134,542	227,088	222,165	162,324	179,929	33.7	10.8

주: 석류는 기타과실 중 0810.90.9000기준임. 기타 미국산 신선과일로는 크랜베리, 아보카도, 멜론 등이 있으나 수입규모는 미미함.
자료: 무역통계진흥원.

- 2015년 미국산 오렌지 수입가격은 계절관세 적용에 따른 관세율 하락(50%→15%)효과보다 수입단가 상승(37.1%) 등의 영향으로 발효 전 평년 대비 6.0% 상승한 것으로 추정됨.

미국산 오렌지 수입가격(3~8월) 분석

구분		발효 전 평년 (‘07~‘11)(A)	발효 후 이행				증감률	
			1년차 (‘12)(B)	2년차 (‘13)(C)	3년차 (‘14)(D)	4년차 (‘15)(E)	발효 전 대비(E/A)	3년차 대비(E/D)
수입가격(원/kg)		1,944	1,860	1,741	2,166	2,059	6.0	-4.9
수입단가(달러/kg)		1.2	1.3	1.3	1.7	1.6	37.1	-7.7
환율(원/달러)		1,122	1,127	1,095	1,053	1,131	0.8	7.4
관세율(%)		50	30	25	20	15	-70.0	-25.0
수입량 (천 톤)	미국	92.6	166.9	145.7	91.2	102.9	11.1	12.8
	남아공	2.2	2.1	3.7	4.0	4.6	109.7	14.3
	칠레	2.8	3.1	2.4	1.8	1.3	-54.8	-30.1
생산량(천 톤)		690	692	683	722	680	-1.4	-5.8
감률	만감류	4,545	5,351	4,828	4,266	3,893	-14.3	-8.7
	가격(원/kg)							

주 1) 수입가격 분석대상은 신선오렌지(080510000)를 기준으로 수입액(환율, 관세율 적용) 합계를 수입량 합계로 나누어 산출

2) 3~ 8월까지 수입되는 미국산 오렌지는 계절관세가 적용됨(관세는 6년에 걸쳐 철폐 예정).

자료: 무역통계진흥원, 한국은행, 통계청, 서울농수산식품공사(가락시장).

- 2015년 미국산 체리 수입량은 FTA 발효 즉시 기준관세율(24%)이 철폐되고 국내 수요 증가로 발효 전 평년 대비 2.2배 증가한 1만 2천 톤임.
 - 미국산 체리 수입량은 주산지인 워싱턴주의 작황부진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이행 3년차 대비 7.7% 감소함.
- 미국산 체리 수입가격은 미국 체리 생산량 감소에 따른 수입단가 상승(17.5%)에도 불구하고 FTA 발효 즉시 관세율이 철폐되어 발효 전 평년 대비 4.5% 하락한 것으로 추정됨.

미국산 체리 수입가격 분석

구분	발효 전 평년 (‘07~‘11)(A)	발효 후 이행				증감률	
		1년차 (‘12)(B)	2년차 (‘13)(C)	3년차 (‘14)(D)	4년차 (‘15)(E)	발효 전 대비(E/A)	3년차 대비(E/D)
수입가격(원/kg)	11,760	9,780	10,724	9,908	11,230	-4.5	13.3
수입단가(달러/kg)	8.4	8.7	9.8	9.4	9.9	17.5	5.5
환율(원/달러)	1,122	1,127	1,095	1,053	1,131	0.8	7.4
관세율(%)	24	0	0	0	0	-100.0	-
수입량(톤)	미국	3,748	9,325	8,936	13,080	222.2	-7.7
	뉴질랜드	158	121	145	109	9.5	59.6
	호주	2	8	9	24	-	-
국산 체리 가격(원/kg)	15,531	10,910	10,313	8,279	11,393	-26.6	37.6

주 1) 수입가격 분석대상은 신선체리(0809290000)를 기준으로 함.

2) 수입가격은 신선체리 수입액(환율, 관세율 적용) 합계를 수입량 합계로 나누어 산출
 자료: 무역통계진흥원, 한국은행, FTA 협정문, FTA이행지원센터(2016).

- FTA이행 4년차 미국산 포도 수입량은 관세율 인하와 그에 따른 가격경쟁력 상승으로 발효 전 평년 대비 58.5% 증가한 6천 톤임.
- 미국산 포도 수입가격은 수입단가와 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계절관세 적용에 따른 관세율 인하(2016년 철폐) 등으로 발효 전 평년 대비 9.3% 하락한 것으로 추정됨.

미국산 포도 수입가격 분석

구분	발효 전 평년 (‘07~‘11)(A)	관세 유형	발효 후 이행				증감률	
			1년차 (‘12)(B)	2년차 (‘13)(C)	3년차 (‘14)(D)	4년차 (‘15)(E)	발효 전 대비(E/A)	3년차 대비(E/D)
수입가격(원/kg)	3,902	일반관세	3,978	3,906	4,158	4,580	17.4	10.2
		계절관세	3,780	3,467	3,449	3,540	-9.3	2.6
수입단가(달러/kg)	2.4	일반관세	2.5	2.6	2.9	3.0	26.1	4.5
		계절관세	2.7	2.7	2.9	3.0	23.6	0.9
환율(원/달러)	1,122	-	1,127	1,095	1,053	1,131	0.8	7.4
관세율(%)	45.0	일반관세	42.3	39.7	37.0	34.4	-23.6	-7.0
		계절관세	24.0	18.0	12.0	6.0	-86.7	-50.0
수입량 (천 톤)	미국	3.8	6.0	7.6	7.0	6.0	58.8	-14.1
	칠레	28.8	46.6	47.4	47.0	50.6	75.7	7.7
	페루	0.0	1.6	3.8	5.2	9.0	-	72.7
국산 포도	생산량 (천 톤)	322	278	260	272	271	-15.8	-0.4
	노지 가격 (원/kg)	2,488	3,064	2,942	2,246	2,261	-9.1	0.7
	시설 가격 (원/kg)	5,964	5,710	6,259	4,529	4,665	-21.8	3.0

주 1) 수입가격 분석대상은 신선포도(080610000)를 기준으로 함.

2) 수입가격은 신선포도 수입액(환율, 관세율 적용) 합계를 수입량 합계로 나누어 산출

3) 미국산 포도는 10월 16일부터 익년 4월 30일까지 계절관세가 적용되며, 페루는 2011년부터 수입실적이 있음.

자료: 무역통계진흥원, 한국은행, FTA 협정문, FTA이행지원센터(2016), 통계청, 서울농수산식품공사.

- 2015년 미국산 레몬, 자몽과 석류의 수입량은 국내 수요 증가로 발효 전 평년 대비 모두 증가함.
 - 미국산 레몬 수입량은 주산지인 캘리포니아의 작황호조로 발효 전 평년과 이행 3년차 대비 각각 1.8배와 21.1% 증가함.
 - 미국산 자몽 수입량은 FTA 발효 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품질이 좋고 수입단가가 낮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이스라엘의 수입량 증가로 국내 시장점유율이 2012년 83%에서 2015년 56%로 하락함.
 - 미국산 석류 수입량은 발효 전 평년 대비 76.6% 증가했지만, 최근 작황부진에 따른 품질 저하와 국내 선호도 하락 등으로 전년 대비 19.7% 감소함.

2.3. 미국산 곡물류(식용)

- 2015년 미국산 곡물 수입액은 가격경쟁력 하락에 따른 수입선 전환 등으로 발효 전 평년 대비 감소함.
 - 미국산 옥수수과 밀 수입액은 수입단가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곡물 수출국 대비 수입단가가 높아 수입선이 전환⁷⁾되어 발효 전 평년 대비 각각 65.1%와 8.6% 감소함.
 - 미국산 대두 수입액은 미국 작황호조와 FTA TRQ 증량으로 발효 전 평년 대비 107.7% 증가함.
 - 이행 3년차('14)와 비교하면, 밀과 대두의 수입량은 증가한 반면, 수입단가 하락으로 수입액은 모두 감소함.

미국산 주요 곡물(식용)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

구분			발효 전 평년 (‘07~‘11)(A)	발효 후 이행				증감률	
				1년차 (‘12)(B)	2년차 (‘13)(C)	3년차 (‘14)(D)	4년차 (‘15)(E)	발효 전 대비(E/A)	3년차 대비(E/D)
주요 곡물	옥수수	수입액	315	49	38	282	110	-65.1	-61.0
		수입량	1,141	115	87	1,021	462	-59.5	-54.8
	밀	수입액	389	437	428	381	355	-8.6	-6.6
		수입량	1,197	1,210	1,135	1,106	1,134	-5.3	2.5
	대두	수입액	77	129	160	169	159	107.7	-5.6
		수입량	134	191	212	233	252	88.4	8.3
	전체 곡물	수입액	2,149	1,750	652	1,867	1,273	-40.7	-31.8
		수입량	7,790	5,309	1,547	6,694	4,867	-37.5	-27.3

주: 전체 곡물은 미국산 곡물의 전체 수입량이며, 각 품목별 수입량은 식용(종자, 사료 등을 제외) 기준임.
 자료: 무역통계진흥원.

- 주요 수출국 대비 높은 수입단가와 달러 강세 등으로 수입선이 브라질,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으로 전환되어 2015년 미국산 옥수수 수입량은 발효 전 평년 대비 59.5% 감소한 46만 2천 톤임.

7) 식용 옥수수의 주요 수입선은 미국에서 브라질,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으로 전환됨.

- 미국산 옥수수의 수입단가는 0.24\$/kg으로 수출 경쟁국인 브라질·러시아·우크라이나(0.21\$/kg)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미국산 옥수수 수입가격은 수입단가 하락(-1.3%) 및 관세율 인하 등으로 발효 전 평년 대비 65.7% 하락한 것으로 추정됨.

미국산 옥수수(식용) 수입가격 분석

구분	발효 전 평년 (‘07~‘11)(A)	발효 후 이행				증감률	
		1년차 (‘12)(B)	2년차 (‘13)(C)	3년차 (‘14)(D)	4년차 (‘15)(E)	발효 전 대비(E/A)	3년차 대비(E/D)
미국	수입가격(원/kg)	799	480	480	663	274	-65.7
	수입단가(달러/kg)	0.28	0.42	0.44	0.28	0.24	-1.3
	환율(원/달러)	1,122	1,127	1,095	1,053	1,131	0.8
	팝콘용						
	ASG 물량(톤)	-	5,112	6,390	7,668	8,946	-
	ASG 관세(%)	630	601	572	544	515	-18.3
	기타 옥수수						
브라질	ASG 관세(%)	328	313	298	283	268	-18.3
	수입량(천 톤)	1,141	115	87	1,021	462	-59.5
	수입량(천 톤)	139	419	694	236	390	180.2
	수입단가(달러/kg)	0.30	0.30	0.32	0.26	0.21	-30.0
	수입량(천 톤)	0	0	0	225	372	-
	수입단가(달러/kg)	1.40	0.00	0.00	0.26	0.21	-85.0
	수입량(천 톤)	0	457	0	60	275	-
우크라이나	수입단가(달러/kg)	0.00	0.31	7.50	0.24	0.21	-
	수입량(천 톤)						-12.5

주 1) 수입가격은 분석 대상은 기타옥수수(1005909000), 팝콘용(1005902000), 옥수수가루(1102200000) 등 5개 세번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2) 수입가격은 기타옥수수, 팝콘용, 옥수수가루 등 5개 세번의 수입액(환율, 관세율 적용) 합계를 수입량 합계로 나누어 산출

3) ASG 물량 미만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수입옥수수에 대한 WTO TRQ 물량과 FTA TRQ 물량이 모두 미국산에 배정되었다는 가정 하에 수입가격 산출

4) 수입량은 옥수수에 포함된 전체 HS 코드를 기준으로 함.

자료: 무역통계진흥원, 한국은행, FTA 협정문.

- 수입단가와 관세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최근 호주산 밀에 대한 국내 수요 증가로 2015년 미국산 밀 수입량은 발효 전 평년 대비 5.3% 감소한 113만 4천 톤임.
- 호주산 밀 수입량은 107만 4천 톤으로 발효 전 평년 대비 27.8% 증가한 반면, 미국산 수입량은 작황호조에 따른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감소함.

- FTA이행 4년차 미국산 밀 수입가격은 수입단가 하락(-5.4%) 및 관세율 인하 등으로 발효 전 평년 대비 8.1% 하락한 것으로 추정됨.
 - 미국산 식용 밀 대부분의 기준관세율(제분용 1.8%)은 매우 낮은 수준이고 FTA 발효 즉시 철폐되어 관세 인하효과가 크지 않음.

미국산 밀(식용) 수입가격 분석

구분		발효 전 평년 (‘07~‘11)(A)	발효 후 이행				증감률	
			1년차 (‘12)(B)	2년차 (‘13)(C)	3년차 (‘14)(D)	4년차 (‘15)(E)	발효 전 대비(E/A)	3년차 대비(E/D)
미 국	수입가격(원/kg)	386	407	413	363	355	-8.1	-2.2
	수입단가(달러/kg)	0.33	0.36	0.38	0.34	0.31	-5.4	-8.9
	환율(원/달러)	1,122	1,095	1,053	1,122	1,131	0.8	7.4
	관세율(%) 제분용/기타	1.8	0	0	0	0	-100.0	-
	수입량(천 톤)	1,197	1,210	1,135	1,106	1,134	-5.3	2.5
호 주	수입가격(원/kg)	387	383	434	368	388	0.1	5.5
	수입단가(달러/kg)	0.33	0.33	0.39	0.34	0.29	-11.4	-15.2
	수입량(천 톤)	840	1,028	954	1,023	1,074	27.8	5.0
캐 나 다	수입가격(원/kg)	486	484	430	396	388	-20.2	-1.9
	수입단가(달러/kg)	0.41	0.42	0.39	0.37	0.34	-16.8	-8.6
	수입량(천 톤)	167	179	170	167	202	20.9	20.7

주 1) 수입가격 분석 대상은 메슬린 외 기타(1001992090), 밀가루(1101001000) 등 14개 세번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기타 옥수수에 대해서는 ASG를 적용한 수입가격임.

2) 수입가격은 메슬린 외 기타, 밀가루 14개 세 번의 수입액(환율, 관세율 적용) 합계를 수입량 합계로 나누어 산출

3) 수입량은 밀에 포함된 전체 HS 코드를 기준으로 함.

자료: 무역통계진흥원, 한국은행, FTA 협정문.

- 미국산 대두 TRQ⁸⁾ 물량이 2만 5,750톤으로 증량되었고, 그 외 수입량은 WTO 시장접근물량(264,787톤)으로 취급되어 5%의 관세율이 부과되므로 미국산 대두 전체 수입량은 발효 전 평년 대비 88.4% 증가한 25만 2천 톤임.
- 미국산 대두 수입가격은 수입단가의 상승(6.2%)에도 불구하고 무관세 적용 및 TRQ 물량 도입 등에 따른 상쇄효과로 발효 전 평년 대비 소폭(1.5%) 상승한 것으로 추정됨.

8) TRQ는 미국산 식용콩을 대상으로 한 시장접근수입물량을 의미하며, 대부분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 민간실수요업체가 FTA이행물량을 배정받아 수입하고 있음.

미국산 대두(식용) 수입가격 분석

구분		발효 전 평년 (‘07~‘11)(A)	발효 후 이행				증감률		
			1년차 (‘12)(B)	2년차 (‘13)(C)	3년차 (‘14)(D)	4년차 (‘15)(E)	발효 전 대비(E/A)	3년차 대비(E/D)	
미국	수입가격(원/kg)	735	797	863	797	746	1.5	-6.4	
	수입단가(달러/kg)	0.60	0.68	0.75	0.73	0.63	6.2	-12.9	
	환율(원/달러)	1,122	1,127	1,095	1,053	1,131	0.8	7.4	
	TRQ	HS1201(톤)	-	10,000	20,000	25,000	25,750	-	3.0
		TRQ 관세율(%)	5.0	0.0	0.0	0.0	0.0	-100.0	-
	수입량(천 톤)	134	191	212	233	252	88.4	8.3	
중국	수입가격(원/kg)	858	1,144	1,265	1,174	1,392	62.2	18.6	
	수입단가(달러/kg)	0.72	0.97	1.10	1.06	1.18	64.4	10.7	
	수입량(천 톤)	158	121	55	75	27	-83.1	-64.2	

주 1) 수입가격 분석 대상은 콩나물용(1201903000), 기타(1201909000), 대두로 만든 것(120810000)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2) 수입가격은 콩나물용, 기타, 대두로 만든 것(분쇄)의 수입액(환율, 관세율 적용) 합계를 수입량 합계로 나누어 산출

3) 수입량은 대두에 포함된 전체 HS 코드를 기준으로 함.

자료: 무역통계진흥원, 한국은행, FTA 협정문.

3. 시사점 및 향후 과제

- 한·미 FTA 이행 4년차의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은 가축질병 등에 따른 국내의 공급여건 변화, 수출국의 작황부진에 따른 수입선 전환 등에 좌우되는 경향을 보임.
- 미국산 축산물은 관세율이 장기간 균등 철폐되므로 EU·영연방 3개국 등 FTA 기 체결 국가(경제권)와의 경합이 불가피한 상황임. 또한 미국산 축산물 수입량은 국내의 가축질병(구제역, AI 등) 발생 여부와 그에 따른 수입선 전환의 영향을 받음.
- 국내 소비자의 수입과일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FTA 관세율 인하에 따라 오렌지, 체리, 자몽 등 시장 점유율이 높은 미국산 과일의 수입단가가 하락함. 그러나 미국산 과일 수입량은 미국 내 작황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현상을 보임.

- 미국산 곡물 수입량은 기후변화에 따른 미국의 작황부진에 크게 좌우되며, 다수의 FTA 이행으로 수입선 전환의 가능성이 커짐.
- 이행 4년차 관세율 하락에 따른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과 과일(오렌지, 체리, 포도, 석류, 레몬, 자몽)의 수입가격 하락폭은 각각 약 6.7~16.5%와 12.4~23.3%로 추정되며, 향후 관세율 하락폭이 확대되면 미국산 가격경쟁력은 더욱 제고될 전망이다. 반면, FTA 발효 전 기준관세율이 낮고 TRQ 물량 비중이 큰 곡물(옥수수, 밀, 대두)의 수입가격 하락폭은 약 1.1~1.3%로 관세율 인하효과는 크지 않음.
- FTA 이행에 따른 관세율 하락 및 철폐로 인한 국내 농축산업 생산 구조 변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생산기반 정비, 구조조정, 고품질화 등 실효성 있는 FTA 국내보완대책 중심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
- 시장개방뿐만 아니라 국내 수급 불안정, 기상이변 등의 경영 위험에 대한 농업인의 대응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직접적인 수입피해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미국을 포함한 FTA 체결국을 대상으로 국산 농축산물의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마케팅 전략수립, 인프라 구축, 특혜관세 활용 제고 등에 필요한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함.
- 對미 수출 농축산물의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미국산 농축산물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FTA 발효 이후 對미 농축산물 수출의 지속적인 증가와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의 상승추세는 고무적임.
- 그러나 여전히 주요 수출품목이 가공식품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출품목을 신선농산물 등으로 다양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수출 유망품목 발굴, 수출 시장 정보 및 FTA 활용을 위한 컨설팅서비스 제공, 수출업체 마케팅 역량강화, 수출 촉진 인프라 구축 등의 포괄적 지원이 필요함.

귀농·귀촌의 국내외 성공사례 조사 분석: 지역개발과 6차 산업화 중심*

박대식**, 마상진***, 채상현****, 최윤지*****, 박지연*****

1. 서론

- 이 조사의 주요 목적은 ① 지역개발 및 6차 산업화 부문의 국내외의 귀농·귀촌 성공사례를 조사·분석하여, ② 우리나라의 귀농·귀촌 관련 정책에 함의하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임.
- 귀농·귀촌인의 지역개발 부문에서의 주요 성공사례는 마을 만들기 관련 사업 또는 운동을 활용하여 성공한 유형, 사회적 경제 또는 복지 관련 활동으로 성공한 유형, 농촌관광으로 성공한 유형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귀농·귀촌인의 6차 산업화 부문 성공요인은 가족들의 적극적인 협조, 지역사회와의 상생, 교육 및 6차 산업화 정책의 활용, 창의력과 적극적인 도전정신 등으로 유형화 할 수 있음.

* 본고는 「귀농·귀촌의 국내외 성공사례 조사 분석 보고서: 지역개발과 6차 산업화 중심」을 요약·정리한 것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pds8382@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msj@krei.re.kr)

**** 천안연암대학 교수(ka50@naver.com)

***** 국립농업과학원 연구관(veritas96@korea.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jiyeonparkgj@krei.re.kr)

2. 지역개발 부문의 귀농·귀촌 성공사례

2.1. 마을 만들기 관련 사업·운동을 활용하여 성공한 유형

가.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4리

- 사례자(45세)는 2010년에 귀농함. 귀농 전 직업은 대안학교 중국어 강사였음.
- 정착 성공요인: 대안학교 교사로서의 인연이 있었고, 마을공동 일에 솔선수범함.
- 마을 활력화 활동 성공요인: 제3자의 입장에서 마을의 자원을 발굴하여 상품화함. 대외적으로 넓은 인맥을 활용한 활동, 마을주민들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을 보임.

나. 충남 당진시 면천면 삼웅2리

- 사례자(61세)는 2007년에 귀농함. 귀농 전 직업은 회사원(서울)이었음.
- 정착 성공요인: 고향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하였고, 장기간(3년)에 걸쳐 귀농을 준비함. 지역주민들과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함.
- 마을 활력화 활동 성공요인: 새로운 정보와 트렌드를 학습하고 전달하는 능력, 마을공동체 복원을 위해 주민을 결집시키는 지도력을 갖추. 마을 내부 그리고 외부 전문가 및 행정기관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함.

충남 당진시 면천면



국가무형문화재 면천두견주 원료 진달래꽃 건조작업



마을대동회(총회 년/1회)

다. 충북 충주시 신니면 내포마을

- 사례자는 2008년 귀농함. 귀농 전 직업은 자영업(서울)임.
- 정착 성공요인: 고향이고 부모님의 토지가 있었음. 지역주민들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함.
- 마을 활성화 활동 성공요인: 지역사회 일꾼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각종 사업의 유치와 운영을 맡음. 긍정적인 사고와 함께 주민들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지도력과 추진력을 갖춤. 행정기관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함.

라. 함양군 휴천면 송전리

- 사례자(72세)는 2007년에 귀농함. 귀농 전 직업은 회사원(부산)이었음.
- 마을 활성화 활동 성공요인: 마을리더가 중심이 되어 귀농귀촌인의 마을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고 있음. 마을기업 운영, 농가민박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6차 산업화 관련 활동을 적극적으로 함.

마. 주식회사 조(일본 나라현 나라시)

- 사례자는 복지 분야 연구직에서 근무하였고, 부인은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음. 일본 전통야채를 사용하여 농가레스토랑을 운영함.
- 아메리카 원주민 취락의 견학을 통해서 전통야채에 관심을 가지게 됨.
- 일본 전통야채(토란의 일종인 우한, 가늘고 긴 모양이 특징인 히모고추, 도이쵸콩 등)를 활용한 지역 만들기를 추진함.
- 성공요인: ① 지역 커뮤니티 모임의 장으로 농가레스토랑을 활용, ② 지역 만들기의 일환, 조직화

주식회사 조



栗「收穫祭」御膳



농가레스토랑

2.2 사회적 경제 또는 복지 관련 활동으로 성공한 유형

가. 흙사랑영농조합법인(충북 괴산군 감물면)

- 사례자(50세)의 귀농 전 거주지는 서울, 직업은 회사원이었음.
- 사회적 기업 2년 차로서 사회적 일자리 6명을 지원받고 있음.
- 가공산업으로 냉동옥수수, 절임배추, 양배추즙을 생산함.
-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폐교된 감물중학교를 임차하여 다양한 사업(도농교류, 체험, 가공, 주민교육문화사업, 유기농식당 등)을 준비 중임.
- 귀농자의 정착률 방법으로 흙사랑영농조합법인의 실무자로 2~3년간 일하면서 지역을 파악하고 이후 지역에 정착 추진
- 성공요인: ① 지역주민과 흙사랑영농조합법인의 지속적인 유대관계와 협력, ② 현지 주민 및 농민의 시각에서 귀농·귀촌을 바라봄, ③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귀농인력 활용

나. (주)고향에 醫食同源(일본 돗토리현 돗토리시)

- 저(低) 글루텔린 쌀을 매개로 하여 농업과 의료와 복지를 연계시킴.
- 지역병원인 ‘사토전원 클리닉’ 으로부터 인공투석 환자를 위한 급식 제공을 요청받은 것을 계기로 2009년에 창업함.
- 성공요인: ① 지역 농가와 연계하여 고령농의 부담 경감, ② 환자의 건강과 가족들의 불편함을 보완해주는 프로그램 운영.

(주)고향에 醫食同源



저 글루텔린 쌀



특별재배미 고시히까리

다. 산림휴양마을 달래촌(강원도 양양군)

- 사례자(57세)는 대학에서 시각디자인을 전공하고, 서울에서 홍보마케팅 관련 사업을 했음.
- 사례자는 우연히 자연치유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산림휴양마을을 조성해보고자 귀촌을 결심하였음.
- 성공요인: ① 철저한 준비, ② 지역주민과의 융화, ③ 마을주민들의 일자리와 소득창출에 기여, ④ 정부의 관련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 ⑤ ‘힐링’을 추구하는 사회변화의 흐름을 잘 파악

2.3. 농촌관광으로 성공한 유형

가. 양수리딸기체험농장(양평군 양서면)

- 사례자는 인테리어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09년에 고향인 양수리로 귀농함.
- 건설회사와 인테리어회사 간의 ‘갑을관계’에 싫증을 느끼고 자신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귀농함.
- 어린이집의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와 양수리의 입지조건이 맞아 떨어져 딸기체험농장의 매출액이 가파르게 상승함.
- 성공요인: ① 좋은 입지조건에서 고객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 ② 발품을 팔아 성공 농가를 찾아가고, ③ 기술적·이론적인 영농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은 후 체험농장 운영에 도전, ④ 체험농장은 새로운 관광업이라는 생각에 농장프로그램을 상품화하고 이를 홍보하는 데 집중

나. 미우라 비파 클럽(일본 치바현 미나비보소시)

- 이 고장 출신으로 대형 소매업에서 근무했던 사례자는 고향마을의 동 사무소의 관광기획과장으로부터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에 도움을 줄 것을 요청받았음.
- 지역의 경작 포기 농지를 활용하여 꽃 꺾어가기나 딸기수확체험, 야채수확체험 등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정비하여 꽃 꺾어가기 체험을 하는 농원 ‘꽃 클럽’을 오픈함.
- 성공요인: ① 외부 전문가 영입, ② 마을주민이 주인이 되는 경영방침

미우라 비파 클럽



자체 브랜드 상품



비파클럽의 오리지널 브랜드 상품

다. 아지무그린투어리즘연구회 회장 일가(일본 오이타현 오이타시)

- 포도의 생산·가공·판매 그리고 도시청소년의 농산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함.
- 미야다 세이치 아지무그린투어리즘연구회 회장과 부인은 포도 생산과 그린투어리즘을 담당함.
- 아들(39세)은 동경농공대 대학원 석사 출신이며, 7년 전에 귀농을 하였으며, 3호의 포도농가로 구성된 건포도 가공공장의 대표를 맡고 있음. 가공공장에서는 3농가의 10ha의 포도농장에서 생산하는 포도를 건포도 등으로 가공하고 있음.
- 성공요인: ① 가족 간의 적절한 분업, ② 그린투어리즘의 조직화, ③ 마을주민 간의 공평한 이익 분배, ④ 품질 좋은 포도의 생산 및 가공

라. 여성농업인 주도의 농촌관광(프랑스 도르도뉴)

- 사례자(60세)는 2004년에 귀농하였으며, 귀농 전에는 농업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였음.
- 사례자의 마을 활력화 관련 주요 활동: 남편, 아들과 함께 3인이 공동경영인으로 1명의 임금노동자를 고용하여 110ha의 농장에서 젓소 사육, 포도 재배, 펜션 운영 등을 하고 있음, 사례자는 펜션 운영을 전담하고 있지만 회계도 담당하며, 이외에 다른 일을 돕거나 젓소의 젖을 짜기도 함.
- 성공요인: ① 배우자와 사례자가 적극적으로 공동경영인의 역할을 수행, ② 사례자가 농촌생활과 농사일에 애착, ③ 농민협회의 연계기관인 농민센터로부터의 적절한 지원, ④ 가족 간 적절한 역할 분담

마. 체험펜션 하우네 농장(독일 헤센주 Fulda시)

- 사례자는 바이에른주 출생으로 베를린의 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한 후 사회복지 관련 일을 하다가 귀농함.
- 자신은 도시에서의 생활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사회복지 관련 일을 그만두고 농촌으로 내려와 농장을 구입하여 운영함.
- 성공요인: ① 철저한 귀농 준비, ② 자신을 농촌생활 초보자라고 생각하고 기존의 질서와 관행을 인정하며 마을사람들을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 ③ 농촌다운 아름다움의 보전

3. 6차 산업화 부문의 귀농·귀촌 성공사례

3.1. 가족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성공한 유형

가. 복분자 한과(전북 정읍시 영원면)

- 사례자(41세)는 2006년에 귀농함. 귀농 전 직업은 회사원(서울)이었음.
- 복분자 및 고구마를 생산하고, 복분자를 이용한 한과를 생산하여 판매함.
- 귀농지는 부모님의 고향이며, 어머니가 2년 정도 먼저 귀농해서 정착 중이었음.
- 평소에 한과에 관심이 많던 어머니의 권유로 복분자를 이용한 한과에 도전함.
- 성공요인: ① 가족들의 적극적인 협조, ② 시골살이와 농사일에 대한 적응력

나. 야생화(경남 산청군 금서면)

- 사례자(50세)는 2009년에 귀농함. 귀농 전 직업은 사진촬영업(서울)이었음.
- 야생화와 유실수를 재배하고, 장류가공, 발효액, 꽃차, 천연비누 등을 만들어 판매하며,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 장기적으로는 소규모 노인공동생활가정을 만들어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설립할 계획임.
- 성공요인: ① 가족들의 전폭적인 이해와 동참, ② 더불어 사는 공존의 자세

다. 요코하마농원(일본 아이치현 토요아케시)

- 사례자는 기모노 판매회사에 취업한 적이 있으나 얼마 안 돼 그만두고 요리학원을 2년 다닌 후 일본 내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일하다가 24세에 이탈리아에서 유학을 하고 33세에 귀국하여 레스토랑을 개업함.

- 가족분담 경영: 아버지는 최고품질의 토마토를 생산하고, 형은 토마토 시설재배와 가공, 직매장을 담당하고 있으며, 사례자 본인은 요리 실력을 살려 정부의 6차 산업화 사업자로 지정을 받고 농가레스토랑을 운영 중임.
- 가공품으로는 100% 토마토주스와 잼, 케첩, 바질소스 등이 있음.
- 성공요인: ① 역량에 맞게 가족 간 역할 분담, ② 최고의 품질을 만들어내는 역량

3.2. 지역사회와의 상생으로 성공한 유형

가. 뫼농장가족(경북 상주시 이안면)

- 사례자(45세)는 2006년에 귀농함. 귀농 전 직업은 대기업 회사원(평택)이었음.
- 배추, 벼, 옥수수, 감자 등을 재배하고, 다양한 ‘박 공예’와 ‘건조시래기’를 생산하며, 현장실습프로그램도 운영함.
- 박을 포함한 각종 작물의 파종과 수확과정을 공유하고, 이를 이용한 가공품을 함께 만들어보는 현장실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성공요인: ① 활발한 온라인 활동으로 홍보, ② 원만한 대인관계, ③ 지역사회와의 상생

나. 구암쌀두부영농조합(완주군 봉동읍)

- 사례자(48세)는 인생의 제2막을 고향에서 시작해 보겠다는 마음으로 2011년에 완주로 귀농하였음.
- 농사를 잘 짓고도 적자가 계속되어 희망을 잃어가던 사례자의 귀농인생이 달라진 것은 로컬푸드를 만나면서부터임.

- 성공요인: ① 맛있는 두부를 당일 생산하여 가급적 당일 판매, ② 100% 지역 농산물로 두부 생산, ③ 유통기한을 기존의 12일에서 5일로 단축, ④ 대기업 제품보다 저렴한 두부

다. (유)시골생활(일본 교토부 후쿠치야마시)

- 사례자는 회사 도산을 계기로 귀농 연수를 2년간 받고 귀농함.
- 벼를 생산·가공하여 쌀가루, 누룩, 떡 등을 생산함.
- 팔밥, 김밥, 일본식 과자 등을 만들어 휴게소형 농산물 판매장, 료칸 등에 판매 하며, 수확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함.
- 성공요인: ① ‘6차 산업 서포트 센터’의 효과적인 이용, ② 창의적 역발상과 지역공생

3.3. 교육 및 6차 산업화정책을 활용하여 성공한 유형

가. 배 6차 산업화(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 사례자(52세)는 2009년 귀농함. 귀농 전 직업은 대학교 컴퓨터학과 교수였음.
- 본인의 경력과 창의력을 농업에 접목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 스스로 성공적인 농업인상을 정립하여 농업인의 위상을 높이고 자긍심을 함양하고 싶었다는 생각과, 일생을 헌신하며 지켜온 부모님의 농토를 더욱 잘 가꾸어서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마음이 귀농을 결정하게 된 배경임.
- 성공요인: ① 교육을 통한 철저한 준비, ② 자신의 경력 활용, ③ 끊임없는 탐구심

나. 올리브 생산·가공·판매(일본 후쿠오카현 구루메시)

- 사례자(50세)는 가고시마 출신이고, 동경에서 회사원(수입 업무 담당)으로 근무하다 4년 전에 귀농함.
- 구루메시에 있는 3층 건물을 임차하여 1층은 직매장, 2층은 가공공장, 3층은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음.
- 성공요인: ① 올리브 재배에 적합한 자연환경, ② 6차 산업화 서포트 센터의 정보 제공, ③ 전문가들의 기술 지원, ④ 우수한 품질의 올리브 생산 등

다. (주)오카모토농원(일본 홋카이도 카사이군)

- 사례자는 홋카이도 출신으로 2005년에 장인이 경영하던 오카모토농원을 이어받았음. 귀농 전 직업은 공무원이었음.
- 2007년부터는 농상공 제휴법에 근거하여 사업자로 인정을 받고 연계 사업자와 함께 미니 토마토 품종인 토마토베리의 가공품을 만들기 시작함.
- 2011년에는 6차 산업화·자산지소법에 근거하여 종합화 사업 계획이 인정되었고, 2013년부터 가공제품인 ‘스위트콘 수프’를 출시함.
- 성공요인: 적절한 시기에 시작된 6차 산업화 정책을 잘 활용함.

3.4. 창의력과 적극적인 도전정신으로 성공한 유형

가. 고구마 생산·가공·판매(전남 해남군 화산면)

- 사례자(59세)는 인천에서 검수원으로 일하다가 건강문제로 귀촌하게 됨.
- 해남은 친환경 우수고장으로 자연환경과 비옥한 토질에 비교적 토지구입가격도 부담이 적은 곳이어서 귀촌지역으로 선택하게 됨.

- 귀농하여 해남의 주산물인 고구마와 배추를 재배하기 시작함.
- 사례자는 자체브랜드로 ‘배추’와 ‘고구마’를 각각 ‘황금추’, ‘고구마리’라는 브랜드로 상품화하였음.
- 성공요인: 열정과 뛰어난 홍보능력

나. 순창고추장마을영농조합법인의 청국장쿠키

- 사례자(49세)는 중·고등학교는 광주에서, 대학은 서울에서 다녔으며(컴퓨터공학 전공), 임실에서 컴퓨터학원을 운영하였음.
- 쿠키를 즐기는 젊은이들이나 어린이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냄새에서 자유로운 우수 균주를 분리배양해서 쿠키에 첨가한다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함.
- 매실, 아몬드, 검은깨, 호두, 초콜릿 등을 얹은 다양한 청국장쿠키 제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음.
- 성공요인: ① 연구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임, ② 청국장쿠키를 냄새가 나지 않고 맛있으며 고급스럽게 만들었음, ③ 디자인과 포장에서 전통과 신세대의 맛이라는 개념을 복합적으로 표현함, ④ 웰빙트렌드와 잘 맞았음.

다. (유)이만리 그린팜(일본 사가현 이만리시)

- 고품질 쪽파를 생산하여 귀농한 지 9년 만에 ‘파의 명인’으로 지정됨.
- 농가의 장남으로 자랐지만 농업에 관심이 없었던 사례자는 지역은행에 취직을 했으나 가업을 잇기 위해서 28세에 취농을 결정함.
- 부인은 경리담당이자 야채 소믈리에로 상품 개발을 맡고 있으며, 큰 딸은 가공을 담당함.

- 성공요인: ① 은행원 생활에서 몸에 밴 계량화·규격화 정신, ② 끊임없는 도전 정신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실행력

라. 사와다농원(일본 아이치현 도코나메시)

- 사례자는 아이치현 도코나메시 태생임.
- 장미생산을 하는 한편, 오키나와 지방에서 멸종되어 가던 ‘하리쓰루 마사키’라는 식물의 돌연변이종에 하트 모양의 열매가 열리는 것을 발견하고, “행복하게 된다. 웃는 얼굴이 된다”를 상품 콘셉트로 정함.
- 주위의 우려나 조롱도 있었지만 장미재배에서 번 돈을 쏟아 부으며 10년 이상 품종 개량을 거듭하다 개발한 품종을 ‘하트 트리’로 상품화함.
- 품종개량이 된 장미(하트 트리)를 생산 및 판매함.
- 성공요인: ① 상품 콘셉트에 적합한 스토리와 전달능력, ②연구하는 농업인

사와다농원



주요 생산물, 하트 트리1



하트 트리2

4. 결론 및 시사점

- 귀농·귀촌인의 지역개발 부문에서의 주요 성공 유형
 - － 귀농·귀촌인의 지역개발 부문에서의 주요 성공사례는 마을 만들기 관련 사업 또는 운동을 활용하여 성공한 유형, 사회적 경제 또는 복지 관련 활동으로 성공한 유형, 농촌관광으로 성공한 유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귀농·귀촌인의 지역개발 부문에서의 주요 성공 요인
 - － 지역(마을)주민과의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
 - － 다양한 인맥의 활용
 - － 철저하고 계획적인 귀농·귀촌 준비
 - － 새로운 정보나 사회변화 추세를 학습하고 전달하는 능력
 -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을 결집시키는 지도력
 - － 마을 내부, 외부 전문가 및 행정기관과의 의사소통 능력
 - － 이익을 마을주민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여 주민들의 화합을 도모
 - － 부모의 영농 또는 사업기반을 적극적으로 활용
 - － 적극적인 지역사회 참여
 -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
 - － 다양하고 체계적인 홍보활동
 - － 가족 간의 적절한 분업
 - － 지역주민의 조직화
 - － 농촌생활과 농사일의 선호
 - － 농촌다움의 보전
- 귀농·귀촌인의 6차 산업화 부문에서의 주요 성공 유형
 - － 귀농·귀촌인의 6차 산업에서의 주요 성공사례는 가족들의 적극적인 협조, 지역사회와의 상생, 교육 및 6차 산업화정책 활용, 창의력과 적극적인 도전정신 등으로 유형화 할 수 있음.

- 귀농·귀촌인의 6차 산업화 부문에서의 주요 성공 요인
 - 가족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 자신의 적성에 맞는 농업·농촌생활
 - 6차 산업화 관련 정책 및 지원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활용
 - 농업 및 농촌에 대한 이해
 - 가족들의 이해와 동참
 - 더불어 사는 공존의 마음씨: 지역사회 또는 마을주민과 상생하기 위한 노력
 - 가족원들의 적절한 역할 분담
 - 맛, 향기, 안전성 등에서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의 생산 및 가공
 - 마을 및 지역농산물을 적극적으로 활용
 - 귀농 전의 직업 등에서 습득한 다양한 전문지식을 적절하게 활용
 - 탐구적이고 도전적인 삶의 자세
 - 관련 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
 - 귀농·귀촌 선배, 관련 전문가 등의 기술, 정보, 경영 등의 지원
 - 뛰어난 홍보능력: 인터넷, 네트워크, 홍보물 등을 다양하게 활용
 - 웰빙트렌드와 부합
 - 유통 및 판로 확보 노력
- 시사점
 -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 간의 상호 이해교육을 강화해야 함.
 -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귀농·귀촌을 계획적이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함.
 -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들이 사회의 변화 트렌드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귀농·귀촌 관련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생활방식 및 삶의 자세를 재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홍보 및 의사소통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